새가족 정착에 관한 소그룹 하이터치 접근

APPROACH OF HIGH-TOUCH IN SMALL GROUPS ON THE NEW CHRISTIAN'S SETTLEMENT

BY

LEE, JAE YONG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Roslyn Heights, New York

2012

This is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새가족 정착에 관한 하이터치 접근

APPROACH OF HIGH-TOUCH IN SMALL GROUPS ON THE NEW CHRISTIAN'S SETTLEMENT

presented by

Lee, Jae Yong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Academic Dean's Signature

Director for D. Min Program's Signature

May 2012

NYTS is an Affirmative Action/Equal Opportunity Institution

ABSTRACT

Approach of High-Touch in Small Groups On the New Christian's Settlement

by

Lee, Jae Yong

This project does not exceed the rate of 50% settled in the ‘New Church of the Greater New York’ is a study on the new Christian's to settle. The core of this research are approach of high-touch in small groups. As a result, new Christian's to the settlement rate of 80% was found to be recovered. It also the transformation of conscious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church had brought. So why did the high-touch approach? In the Old Testament Daniel says "Many will go here and there to increase knowledge."(Daniel 12:4) It is represented today's high-tech phenomenon. People move more quickly by the plane. In addition, the Internet was flooded due to a lot of knowledge. John Naisbitt says, Modern's high technology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s called high-tech.

On the other hand, high-touch can be represented in the analogically and emotionally. What kind of high-touch elements are there? For example, as follows: dance, art, poetry, music, community, family, relationships, balance with nature. It also expresses humanity, but more efficiently, which filled their souls with the means necessary. In this regard, approach of high-touch belonged to emotion among the intellect, emotion and volition. To solve the lonely feelings, Above all, small-group activities with the high-touch approach is needed.

According to a survey by Gallup Korea in 2008, 67.9% of the reason for seeking the religion replied 'to get peace of mind'. In other words, new Christian's are eager for high-

touch approach. In particular, for emotional intimacy. Because when Korean immigrants arrived in the USA, many of them could not communicate in English. They had nowhere to turn for help, except to the Korean church. There were no American social institutions and social work agencies which really met their needs. The Korean church filled in the gap. As many Korean churches take a type of house church meeting seriously, quite often smaller groups of church members will gather together in houses for meal fellowship and prayer.

Erik Erikson says theory of human development "in the intimacy of the season (19-35 years) and the honeymoon for a hug and a deep personal expression of love by sharing the intimacy and isolation is partitioned into its opposite says that critical time." To selecting the intimacy itself that means there is just healing. And intimacy with friends, family, workplace, community, and to share in relation to each other, revealing their personal appearance means that visible. They're in small-group approach high-touch, emotional, spiritual approach, through the intimate sharing of access to culture is formed. It also regained stability in a loving relationship with a new christian's is settled.

The solid obtained through research projects, become the new paradigm is acceptable. Change and awareness through working with the structural changes brought that can be a quiet revolution. The researchers studied the Bible in the traditional one-way decent two-way communication in high-tech era of Narrative Bible Study Room expression changed to a new christian's education. Since the previous project in the Middle Group, the small group structure. 'The New Church of the Greater New York' catch-phrase is the Church of the healthy and happy. In a healthy church of the future kingdom of God, as well as

looking at the present kingdom of God and love our neighbor, and they participate in the sufferings and create hope in the darkness out of the love of God is a living church.

Furthermore, high-touch sensibility in the mind as a preaching, teaching, training, evangelism and missions is to change the approach. In today's high-tech environment, emotionally may be more effective to approach the public through the media illustrates it. Department stores and supermarkets also leads to customer satisfaction will soon know that the buying. This small change causes the butterfly effect, because that could lead to a new paradigm shift. Until now, these small changes to elicit awareness training was required. For these studies, which was formed of four Site Team and four New Christian’s Ministers for the awareness training was studied. Beyond the awareness training, passed over to the organizing stage. According to a person's gift is to put in place talent. Most church workers can be suppressed to complain.

In conclusion, Approach of high-touch in small groups brought resulted that new christian's settled Rate higher than previously. Also new Christian's has changed in their lives. Encounter Seminar as a way of approaching spirituality had brought changes to Attendees. Through this process, further advanced by people of faith “Jacob, and the prodigal son, a woman poured perfume, David, Abraham” met with such a character in the Bible, spiritual healing, and communication takes place. The purpose of these studies are among the elements with an emphasis on positive emotional touch, a small group training, parenting and spirituality, and cultural activities in the church since the move towards a sense of belonging and intimacy.

ACKNOWLEDGEMENTS

배움에 대한 내재적인 열정과 뉴욕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 접근을 통해서 새가족 정착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의 예능교회 사역 현장에서부터 관심이 많았던 영역입니다. 그런 이유로 학문적인 이론과 현장 목회에서의 실천적인 부분으로 보다 접근이 더 용이했습니다. 한국교회와는 달리 이민교회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바는 새가족 비율이 태신자가 아닌 기존 전입교인이 한국보다 훨씬 높고, 잦은 이동으로 정착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 연구자는 인간의 지, 정, 의 요소 중에서 정적인 감성터치에 중점을 두고, 친밀감으로 나아가는데 소그룹 하이터치 접근이 논문과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NYTS Coursework 과정에서 영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는 본 연구자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신 Dr. Keith A. Russell 교수님과 본 프로젝트 연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코디네이터가 되어주신 백창건 교수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지도해 주신 장신대 주승중 교수님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거의 2년 동안 뉴욕새교회에서 사역하며, 논문의 임상실험이 가능하게 해 주신 양승구 담임목사님과 나의 동기 이대근 목사님 그리고 늘 든든한 후원자였던 Site Team, 새가족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울에서 논문심사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저의 논문의 모체가 되어준 예능교회 새가족팀과 조건회 목사님께도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던 어머니와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하며 남편의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 준 아내 우명희와 아빠의 부족함을 기쁨으로 채워준 사랑하는 두 딸 은솔이와 유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2년 5월 Seoul Chang-dong에서

이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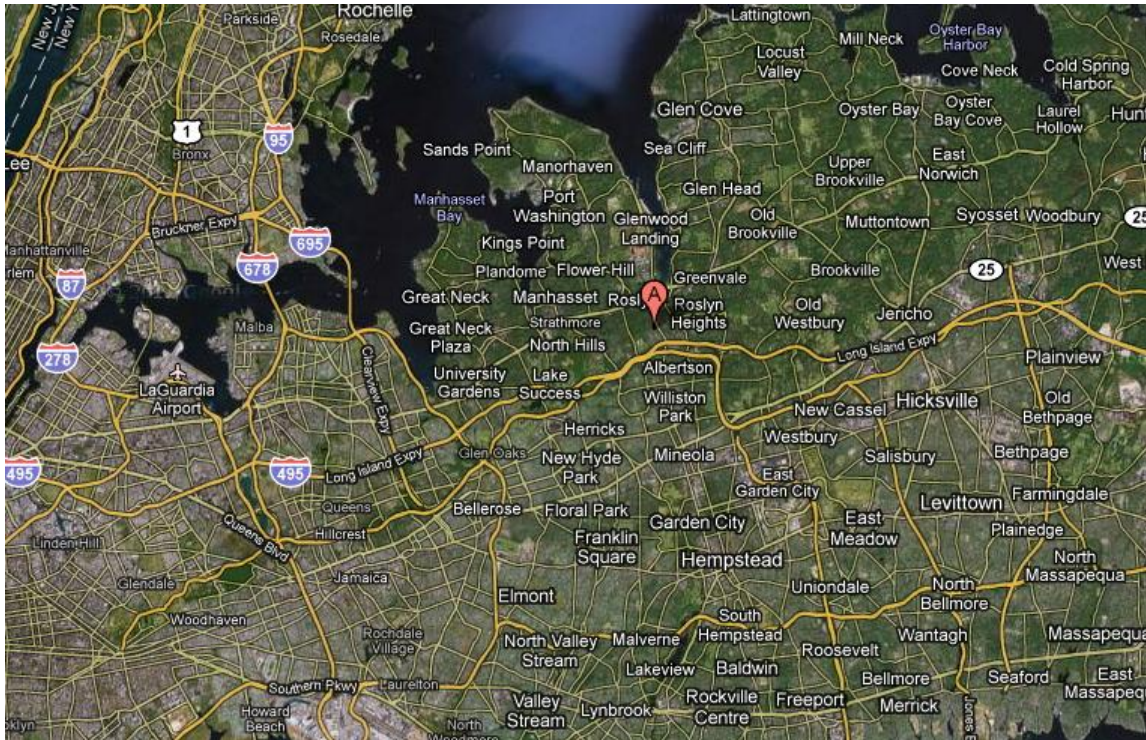
목 차(Table of Contents)

Ⅰ. 서론(Introduction to Setting)

1. 뉴욕새교회(The New Church of the Greater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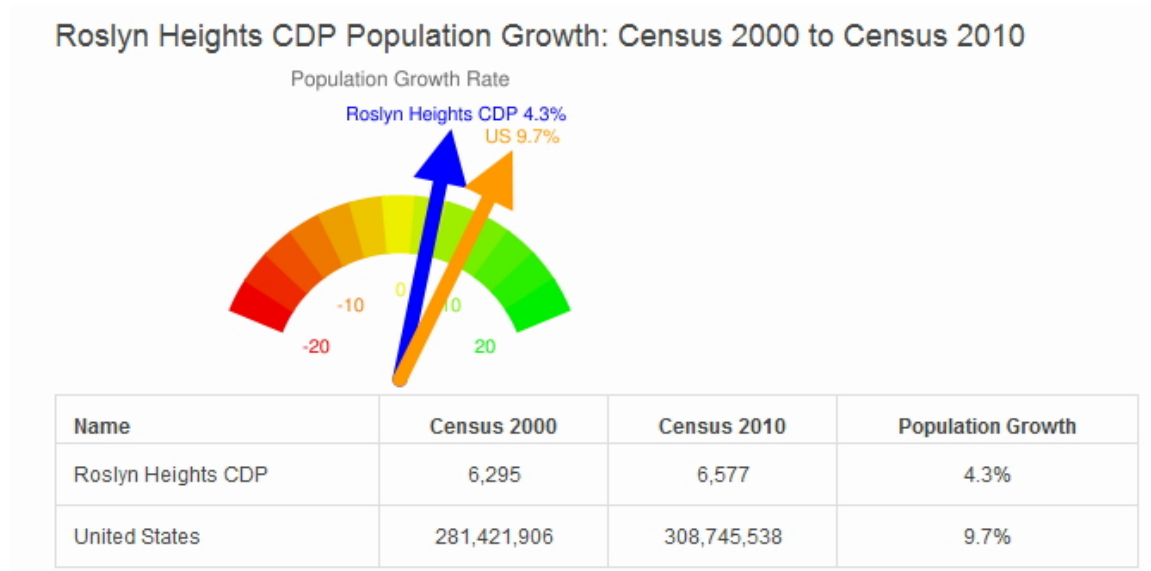
1)지역적 배경

뉴욕새교회는 1 Willow St. Roslyn Hts. NY 11577의 주소에 위치해 있다. 495 고속도로 Exit 37에서 North 방향으로 나오면 조용하고, 아름다운 전원주택들이 들어선 마을을 가로질러 언덕 위의 숲속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림1> 지역지도

Rosyln Hts는 New York 주의 Nassau County에 속해 있으며, 면적은 Total 1.5 sq mi(3.9km2)이다. 평균 해발(Elevation)이 174ft(53m)로 숲으로 둘러 싸여 있다. 2010년 인구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거주민은 6,577명으로 2000년의 6,295명에 비해 4.3%

늘었지만 미국 전체의 인구성장 9.7%에 비하면 인구유입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1]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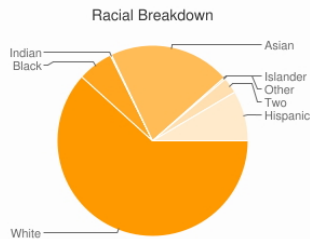
Name	Census 2000	Census 2010	Population Growth
Roslyn Heights CDP	6,295	6,577	4.3%
United States	281,421,906	308,745,538	9.7%

인구 분포 면에서 살펴보면, 18세 이상이 4,773명 전체 인구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전체 인구 분포의 76.0% 보다 3.4%로 적은 반면 18세 이하의 인구 분포는 1,804명으로 27.4%로 미국 전체 인구 분포의 24.0% 보다 3.4% 높게 나왔다. 이는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학군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1] http://www.cubitplanning.com/city/25319/06.20.2011.

<그림3>

Name	Total	18 years of age & over		Under 18 years of age	
		Count	Percentage	Count	Percentage
Roslyn Heights CDP	6,577	4,773	72.6%	1,804	27.4%
United States	308,745,538	234,564,071	76.0%	74,181,467	24.0%

인종별로 살펴보면, White(백인)이 4,058명으로 61.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Asian(아시안)이 1,357명으로 20.6%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아시안 중에서는 한국인이 대부분이다. 이는 미국전체 인구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차지하는 4.7%를 훨씬 넘어서는 곳이다. 상대적으로 Hispanic과 Black(흑인)들의 비율이 미국 전체의 절반 정도 미치는 8.5%와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4>

Geography	Not Hispanic														Hispanic**	
	White		Black*		Indian*		Asian		Islander*		Other*		Two*			
	#	%	#	%	#	%	#	%	#	%	#	%	#	%	#	%
Roslyn Heights CDP	4,058	61.7	397	6.0	15	0.2	1,357	20.6	0	0.0	18	0.3	176	2.7	556	8.5
United States	196,817,552	63.7	37,685,848	12.2	2,247,098	0.7	14,465,124	4.7	481,576	0.2	604,265	0.2	5,966,481	1.9	50,477,594	16.3

특히 교회 부근 거주하는 백인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40%를 웃도는 실정이며, 이는 겉으로는 드려내지 않지만 교회와 소수민족 특히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는 현재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고, 건축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주차장 확장공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관계자들의 말이다. 무리하게 공사를 하지 않는 것도 지역주민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주일날 특정한 시간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부득불 교회 주변 도로에 파킹을 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 지역주민들이 단합해서 주일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주변 도로에 파킹을 하지 못하도록 도로 주차금지 푯말을 세웠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 관공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되는 민원에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뉴욕새교회에 대한 지역적인 배타성은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 건물은 이전에 이슬람사원에서 운영했던 부설유치원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했기에 환경적인 면에서는 비교적 넓은 주차장과 농구장 그리고 녹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예전부터 달갑지 않은 공간으로 여겨졌다.

무엇보다 한인교회가 들어 온 후 지속적인 부흥과 함께 한인들이 이 지역에 모여들게 되면서 백인들이 하나 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백인 학생들은 교회농구장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으며, 경찰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을 전후로 지역주민과 관공서에 나눔을 매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작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2) 역사적 배경과 상황

뉴욕새교회는 개혁장로교단(RCA)으로 1991년 4월에 이학권 목사(현, 뉴저지 하나임교회 담임)에 의해 개척된 교회로 여느 교회들과는 달리 장로를 당회장으로 세우는 등, 개혁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으로 인해 뉴욕을 비롯하여 타 주에서도 많이 알려진 교회이다. 그는 만인제사장의 관점에서 교회론을 세워갔다. 특히 성도는 특정 개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죽지만 인류라는 보편적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에 개인의 특정성은 인류 전체의 보편성(universality)에 기여되고 한 지체로써 전체의 몸에 유기적(organically)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2]

유기체로서 건강한 교회에 바탕을 둔 뉴욕새교회는 지난 2005년 이학권 목사의 사임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소망교회 부목사였던 양승구 목사가 담임목사로 청빙되면서 사랑의 교회 양육시스템을 도입하여 훈련과 양육에 전념하면서 교회의 체질을 바꿔 놓았다. 분명한 목회비전과 철학을 확고히 세워가는 양승구목사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에 대한 열정은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다 안정적으로 교회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본 연구자는 뉴욕새교회가 지향하는 5가지 사역의 방향을 새가족을 위한 교회 홍보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였다.[4]

첫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 기독교인으로의 정체성을 심어 주는 신앙교육과 함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뿌리교육을 통해 한인1.5와 2세들이 자랑스러운 Korean-American으로서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주일날

[2]http://www.hanaimchurch.org/news/info_detail.asp?n=38&list=38&level=1/06.25.2010. 이학권 목사(전 뉴욕새교회 담임, 현 하나임교회 담임).

[3]http://www.newchurchny.org/06.25.2011/뉴욕새교회 홈페이지 참조.

[4]뉴욕새교회 홍보영상 CD는 논문부록에 첨부.

교회학교와 토요일 새 한국 문화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다음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둘째, 철저한 양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 - 뉴욕새교회의 양육체계는 새가족반 5주 과정, 성장반 13주 과정, 24주의 제자훈련 과정 그리고 28주 사역훈련과 소그룹 목장리더인 목자들 교육으로 이어진다.

<그림5>

셋째, 소그룹 나눔이 풍성한 교회 - 소그룹 모임이 기존의 구역, 다락방 개념에서 작은 교회인 목장체제로 각 목장에는 목자들이 모임을 인도하고 있다. 현재는 18개 목장이 있지만 점점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넷째,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 주일 KM예배 1.2부와 EM예배의 예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의 거룩한 장소 안팎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삶 속의 예배로 끌어오고 또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예배 행위 속에서 온전히 표현되고

있다.[5] 이는 교회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다듬어가려고 할 때 살아 있는 거룩한 공동체와의 생생한 접촉을 유지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잘 갖춰진 예전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축제와 섬김이 있는 교회 - 겨울가족찬양축제, 여름 가족수련회 및 봄과 가을소풍을 통해서 유기체인 공동체가 연합하여 축제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분기별로 할렘지역 노숙자를 위한 식탁공동체 섬김과 브라질 빈민촌을 위한 신숙펌프 설치 지원 등 아웃리치를 통해서 매년 선교사와 그 가정을 돕고 있다.

3) 이민 사회의 현황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의 "모든 도전에서 승리하는 민족만이 번영한다."는 이 말을 우리 한인 사회에 적용해 보면 시사(時事)하는 바가 크다. 1968년 이른바 케네디 신이민법이 발효됨으로써 한국인의 미국 이민의 길이 넓어지게 되어 한인 이민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한인교회도 부흥의 물결을 타게 되었다. 하지만 한인 사회는 준거의 틀[6](Frame of Reference)을 제대로 형성하지 않아 이 미국사회 안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하며, 또한 한인교회와 한인커뮤니티가 그 역할을 보다 광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협의적인 측면에서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민사회 75%는 준거의 틀이 한국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사회에 머무르는 것이 한인

---

[5]Eugene Peterson, *영혼을 살리는 설교*, 이승진 역(서울: 좋은씨앗, 2008), 24.

[6]준거의 틀이란 개인과 집단이 진, 선, 미의 가치 판단을 해 나감에 있어서 방향성이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인식의 골격(epistemological frame)을 말한다. 이 인식의 틀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속한 집단의 문화, 가치 기준을 내면화하는데, 집단에 있어서는 축적된 전통과 사회의 통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민자들의 경향이다.[7] 이민 사회는 엄밀히 볼 때 미국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미국 사회라고는 볼 수는 없다. 대부분의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 은행에서 개인구좌(Account)를 열고, 미국 식품청과 상대하고, 히스패닉과 흑인들을 주 고객으로 상대하며 소규모 자영업(small business)을 하지만 한인사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몸은 미국에서 살지만, 정신과 정서는 미국 사회 안에 들지 못한 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이민 사회는 한인들만의 고립된 문화(Cultural ghetto)를 형성하며 살고 있다. 실례를 들어보면, 뉴욕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곳이 후러싱(Flushing)인데, 그곳에는 간판이 거의 한국어로 되어 있다. 어떤 Union Street의 한인커뮤니티센터가 있는 5층 건물 하나만 봐도 한국어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서울의 한 외곽지역으로 착각하게 한다. 달리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은 간판이나 여러 사업 형태가 한국과 별 다를 바가 없으며, 비즈니스를 해도 기본적인 영어나 생존에 필요한 언어만 습득하고 우리의 고정 관념은 미국을 중심에 두도록 옮겨져 있는 못한 것이다. 이러한 준거의 틀이 마련되지 못한 한인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75%가 교회를 출석 한다는 통계가 있다.[8] 적어도 한인 4명 중 3명은 주일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이민생활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쉽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선데이 크리스챤으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신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

[7]이학준, *다리를 놓는 사람들 "2 세 교육을 위한 1 세들의 사명"* (경기도 구리: 두레미디어, 2007), 15.

[8] http://ny.christianitydaily.com/news/pd_3116.htm/11.23.2005/박동진(심리학교수), *2 세 사역의 대안* – Generation to Generation Leadership.

안타까운 현실도 존재하고 있다. 한인교회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초반부터 3-40년이 흐르는 동안 한인교회의 숫자는 약3,500-4,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현재 약180개국에 5,000여개로 추산되는 전 세계 한인교회의 약 70-80%를 차지하는 숫자이다.[9]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한인교회는 한인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점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인교회가 이민사회에서 뿌리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은 초기이민 역사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한국 이민의 배출요인과 미국에서의 흡인요인을 연결시킨 의사인 호래스 앨런 (Dr. Horace Allen), 사업가 데이빗 데쉴러 (David Dashler), 그리고 목사 죠지 죤스 (Rev. George Jones)들이 있다. 앨런(Dr. Horace Allen)은 1884년 한국으로 의사선교사로 와서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고 한국의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려 하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하와이로의 한인이민을 권장하였다. 앨런의 권고에 따라 1902년 이민원이 생겨났고 Dashler가 책임자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한인들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꺼려하여서 어려움을 겪다가 인천에서 감리교 목사로 있던 죠지 죤스(Rev. George Jones)의 개입에 의해 그의 교회 신도들이 처음으로 이민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초기한인이민을 주도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하와이에서의 한인사회는 교회중심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었다. 하와이에서 온 한인 이민 개척자들의 80% 이상이 남자 성인이었으며, 한국에서의 직업은 농업 이외에 노동자, 군인, 기독교 교회의 종사자, 그리고 유학자였다. 상당한 수가(40% 정도) 기독교인이었으며 하와이 교포 중 대다수가 교회에 나갔다.[10]

---

[9] http://blog.naver.com/msj8112?Redirect=Log&logNo=40087558539/08.24.2009/이순근(벧엘교회담임), *07 유로비전포럼 – 북미주 이민교회의 건강한 목회와 과제.*

[10]민병갑, *미국의 소수민족*, (NY: 가나안인쇄, 1989), 156.

2. 연구의 목적과 목표

1) 목적(Goal)

다니엘 12:4에는 미래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현 시대가 정보화 시대이고, 속도의 시대이며, 지식이 급격히 왕래하는 하이테크 시대라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하이테크를 활용한 하이터치 접근이 효과적이다. 오늘날 하이테크(High Tech)[11]는 매우 수준 높고 선구적인 기술을 말하며, 고도의 공업기술 또는 고도첨단기술이라는 의미의 하이테크놀로지(high-technology)의 줄임말이다. 이는 기계적이고 대량생산이며 또한 이성적이며 인공적인 것으로 이제까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기능이나 형상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로봇, 통신기기, 바이오테크놀로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우주관련 기기, 반도체, 컴퓨터 등의 디지털 문화도 이에 속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고도첨단 기술인 하이테크에 힘쓰는 이유가 있다. 바로 부가가치가 높고 그 나라의 발전 정도를 재는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고도첨단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하이테크 파크나 테크노폴리스 등을 건설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이테크 틈바구니에서 기계의 차가운 금속성 소음과 짜릿한 전기 자극, 콧속을 자극하는 화학약품 냄새, 그 너머에 시냇물의 끊임없는 재잘거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이터치'라는 것이다.

하이터치(High Touch)[12]는 아날로그적이고 감성적이며 자연적이다. 그리고

[11] 하이테크란? 고도의 첨단과학을 적용하는 기술 형태인 위성통신, 광통신, 컴퓨터, 핸드폰, DMB. PDA, 닌텐도 등을 총망라한 ‘첨단기술’을 통틀어 말한다.

우리의 인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용, 미술, 시문학, 음악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 가족, 관계, 자연 및 이러한 개념들 사이의 균형을 통해 우리의 인간성을 찬미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하이터치는 감성 마케팅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오늘날의 감성마케팅에서는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고 기술력과 감성의 결합 즉 "하이테크, 하이터치"의 개념을 함께 활용한다.

존 나이스비트(J. Naisbitt)는 하이테크의 세계는 그가 '불멸의 엔진'으로 이름 붙일 만큼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게임기 '닌텐도'는 폭력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고, 비디오카메라는 우리의 관음 욕구를 부추겼다. 결국 '인간성을 저해하는 기술을 거부하자'는 존 나이스비트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는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를 인간렌즈라고 정의한다.[13] 이런 측면에서 새가족들은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현대문명의 이기에 기대고 살아가며,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려는 갈망이 기본적인 본능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새 가족들 역시 예술과 이야기, 연극, 종교, 자연, 그리고 마음에 자양분을 원하고 있고, 영혼의 갈망은 하이터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하이터치의 접근이란 인간다움을 표현하되, 더욱 효율적으로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며, 교회 안으로 깊이 끌어 들일 수 있는 터닝포인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유기체인 교회에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 최첨단 정보통신이 오프라인의 만남을 대신 할수록

---

[12] 아이들과 함께 장난하는 기쁨,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미는 사랑의 손길,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닥불 앞에서 밤새 나누는 대화, 친구와 몸을 부딪치고 땀을 흘리며 하는 운동,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며 읽는 좋은 책 등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하는 영혼의 터치를 말한다.

[13] J. Naisbitt, N. Naisbitt, D. Philips, *하이테크 하이터치*, 안진환 역(서울: 한국경제신문, 2000), 22.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하이터치는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이테크로 상징되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 세계와 개인적이고, 주체적이며 쌍방향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특징이 철저한 개인주의 문화와 감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가족 정착을 위한 하이터치 접근은 인간의 전인적인 지.정.의 요소를 다 포함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적인 감성터치에 중점을 둔다. 특히 고독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친밀감으로 나아가 소속감을 갖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목표(Objective)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현대목회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자세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하이터치 목회가 요구된다. 마가복음 16:15에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나온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지금 하이테크 시대를 살아가는 새 가족들에게 하이터치의 접근은 효과적인 선교적 전략이 될 수 있다. 복음전파는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된다.[14] 또한 언어는 단순히 설교자의 생각을 담아 전달하는 것 이상의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의 실체에 이르도록 도와주며, 사람들의 세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적절하게 사용된 언어가 인지 기관과 영성을 터치할 때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다.[15] 그러므로 새가족 정착을 위한 소그룹 하이터치 접근 방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가 이뤄

---

[14]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361.

[15]Ibid., 391.

질것으로 기대한다.

(1) 하이터치 감성접근 - 내러티브 성경공부

게리 스몰리(Gary Smalley)와 존 트렌드(John Trend)는 그림언어를 사용할 때 청중의 감정과 지성을 동시에 활용하기에 단순히 말을 들을 뿐 아니라 그 상황을 실제 경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터치한다는 것이다.[16] 그림언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하며, 성경의 진리들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시는 주요한 방법이 되며, 복음 전도에 강력한 도구가 된다. 존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는 "종교란 철학적 상징이나 상징적 언어나 시를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으며, 읽혀지기보다는 노래로 불러져야 하고, 믿어지기보다는 춤춰져야 한다. 말로 되기보다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한다."

성경공부에 있어서도 그림언어 성경공부가 효과적인 방법이다. 달리 말하면 이야기식 성경공부(Narrative Bible Study)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17] 이연길 목사는 이야기식 성경공부를 5 단계로 나눠서 첫째, 그림으로 보기. 둘째, 사건으로 겪어내기. 셋째, 가슴으로 이해하기. 넷째, 영혼에 새기기. 다섯째, 삶에 옮겨 내기 방법으로 인간의 오관(五官)을 다 활용한다. 감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적인 데로, 그리고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야 마지막에는 삶의 차원으로 옮겨져서 생활에서 이루어진다. 장영규 교수는『The water rite and conversion: The significance of the Naaman Story in 2 Kings 5:1-27 for Christian Baptism』논문에서 "내러티브 구조로 세 부분을 나눠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문둥병을 고침 받은 사건을 통해 구약의 이방인 개종과 세례사건으로 해석"을

---

[16]Gary Smalley . John Trend, *사랑언어 그림언어*, 서원교 역(서울: 요단출판사, 1996), 36.

[17]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서울: 쿰란출판사, 2002). 184-185.

전개하고 있다.[18] 하이터치 감성접근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식 성경공부 접근은 교육팀의 주관으로 새가족들과 기존 성도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5 주 과정의 성경공부이다. 다양한 감성터치 아이템(item)을 동원하여 내러티브 성경공부로 진행되고, 새가족들은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소그룹 목장 탐방을 통한 감성적인 하이터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 하이터치 영성접근 - Encounter 전인적 치유 세미나

영성하면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 가는 어떤 침울한 고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쁨이 이 접근의 기조(基調)이기 때문이다. 영성접근의 목적은 죄의 매임으로부터 심령의 자유 함을 얻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노래와 춤과 외침으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영적 훈련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지식부터 쌓아야 할 필요도 없기에 새 가족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19]

영성훈련을 통해서 새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혼을 바라보면서, 혹은 훌륭한 교향곡에 감동을 느끼면서, 혹은 영감이 가득한 시구를 읊으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싶어 한다. 적지 않은 새 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겁지만 교회에 대해선 냉랭한 것도 비종교성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그 반대다. 교회가 마치 순수한 종교를 오염시키는 발암물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영성 접근이 더없이 좋은 것이다.[20]

---

[18] 장영규, *The water rite and conversion: The significance of the Naaman Story in 2 Kings 5:1-27 for Christian Baptism*(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Doctor of Theology, 2002). 46-52.

[19]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 황을호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30-31.

[20] Eugene H. Peterson,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홍병룡 역(서울: IVP, 2009), 77.

하이터치 영성접근은 심방팀과 영접팀의 주관으로 교회등록을 한 새가족들과 새가족 교육을 마친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5주간 인물별 Encounter 세미나를 하게 된다. 얍복 강가의 야곱을 통해서 브니엘의 아침을, 아버지 품속의 탕자를 통해서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열등감과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던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해서 거절감정으로부터 치유됨을, 치명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서 신분과 사명 회복을, 갈대처럼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모든 사역팀이 준비하여 1박2일 새가족 수련회로 이어지며, 삶의 간증과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서로에게 목마른 영혼을 터치하게 된다.

(3) 하이터치 문화접근 - 문화교실

하이테크는 감성적 인간관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 유형, 즉 영상문화의 등장을 의미한다. 활자매체 세대가 중요하게 간직하여 왔던 가치기준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있었다면, 영상매체 세대가 주로 관심을 갖는 가치 기준은 '어떤 것이 좋고 싫은가?'이다.[21] 현대사회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을 말한다면 당연히 컴퓨터를 비롯한 멀티미디어이다. 이러한 하이테크는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창1:28)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결과로 나타난 21세기 산물이다. 사람들은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에 그 옛날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동철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듯이(창4:21-22) 멀티미디어를 만들 수 있었다.[22] 타락한 인간은 수금과 퉁소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만 사용하기도 했다. 또 사람의 고통을 줄이는데 기계를

---

[21]오세인, *영상매체란 무엇인가*(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70-74.

[22]방선기, *대중문화도 거룩해 질수 있는가*(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110.

사용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데도 사용했다. 하이테크 문화 역시 인간에게 행복을 증진시키기도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죄악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양면성을 가진 문화접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의 변혁자로서 복음의 도구로 전환해야 함을 동시에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접근은 소그룹을 중심으로 기존 성도와 새 가족이 함께 어울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문화교실을 통해서 유대관계가 깊이 뿌리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좋은 영화 가운데 DVD를 선정하여 멀티미디어(빔 프로젝트, 노트북, 음향)활용을 통한 영화감상을 교회나 가정에서 함께 감상하고 나누는 영화교실, 추천도서를 함께 읽고 나누며 삶에 적용하는 독서교실, 계절 혹은 정서에 맞는 노래를 선정하여 함께 배우고 부르는 노래교실,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게임을 통한 놀이교실 등으로 새 가족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하이터치 감성접근, 영성접근, 문화접근으로 새 가족들의 정착을 돕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Ⅱ. 새가족에 대한 정의와 이해

1. 새가족의 정의

새가족이라 함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과 ‘이사하여 새로이 등록한 전입교인’ ‘교회에 등록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영적 유아상태에 있는 신자’ 모두를 ‘새신자’ 또는 ‘새가족’이라 한다.[23]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며 혼용하고 있는 것이 ‘새신자’와 ‘새가족’인데 이 또한 엄밀히 말해 다른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다. ‘새신자’는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갖게 된 사람’ ‘교회에 처음 등록한 사람’을 지칭한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여 교회에 처음 나왔다는 의미에서 쓰이는 것이 새신자이다.[24]

반면 ‘새가족(New Christian's)’이라고 할 때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처음 나온 자’라는 의미를 가진 초신자(New-believer, New-comer)와 개종자, 낙심자, 영적 미숙자,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전입해온 신자까지 포함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새가족을 나누어 살펴보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으로 ‘완전 초신자’, 어릴 때라든지 청소년시절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신앙을 찾은 이들을 ‘회심자’, 어떤 일로 인해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낙심과 좌절로 고민하다 돌아온 ‘낙심자’, 불교나 천주교, 이단집단 등을 믿었다가 다시 신앙을 찾은 이들을 ‘회심자’, 불교나 천주교, 이단집단 등을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 개종한 ‘개종자’, 직장과 사업, 학교로 인해

---

[23]이용남,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목회*(서울: 도서출판 그린, 1992), 80.

[24]명성훈, *뒷문을 막아라*(서울: 크레도, 2000), 227-235.

지역을 이동했건, 시대가 점점 핵가족이 되면서 신도시로 이사 온 '이동자'라 한다.[25]
본 연구에서는 초신자의 범위를 넘어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 전체를 위한 교수방법론이기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신자라는 말은 지양하고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하고 교회에 적응해 나아가야 하는 '새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새가족에 대한 이해

새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새가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을 이해함으로서 보다 깊이 새가족을 알아갈 수 있고, 새가족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가족에 대한 성서적인 이해, 현대적 이해를 새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성서적으로 본 구조적 이해

새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16절 말씀처럼 성경은 새가족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하는 책이며 새가족을 위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26]
성경은 새가족을 영적인 어린 아이로 말한다(요 3:3; 고전 3:1; 벧전 2:2; 요일 2:12-14). 사랑, 보호, 양식, 훈련 등이 어린 아이에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25]박원영, *새가족탄생교실*(서울: 한국강애설교출판부, 2003), 3.

[26]박상진, *새신자를 위한 교회교육과정연구*(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3), 12.

필요하다. 성서적으로 바라본 구조적인 새가족 이해로 신약 요한 1 서 2:12-14 에서는 아이단계, 청년단계, 아비단계로 구분하여 새가족은 양육을 통한 다음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다. 게리 쿠네(Gary W. Kuhne)는 새가족이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지나야 한다고 말한다. 1 단계, 새신자에게 어떤 사람을 양육하도록 가르친다. 2 단계, 새신자로부터 양육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한다. 3 단계, 또 양육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한다.[27]

딤후 2:2 "또 네가 많은 증인(1 단계)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2 단계) 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3 단계)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의 새가족 교육 또한 신약성서에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2) 예수님의 공동체 이해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새가족 이해를 발견할 수 있다. 그중에 마가복음 1:15 내용 속에 예수님의 새가족 이해가 들어 있다. 즉 새가족은 회개해야 하는 존재이며, 복음을 믿어야 할 존재이다. 이것이 사실 새가족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으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구체적으로 전도(Kerygma)와 교육(Didache)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역은 분명히 구별해 낼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얽혀 있다.[28] 교사(랍비)로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

[27]Gary W. Kuhne,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서울: 요단출판사, 1995), 30.

[28]J. D. Smart,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1990), 19.

하셨다(마가복음 1장 15절).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새가족들을 가르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셨다(마태복음 26장 55절).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사역의 확장이 훈련받은 제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들을 사도(apostolos)라 칭하여 복음전선으로 파송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에 가르침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교사로서의 표현이 적합하다.[29]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가족 교육의 하이터치 방법적 요소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이 되는 교육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따르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면서 당신의 삶 그 자체를 보여줌으로 가르치셨다(마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13장 15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이 방법은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교육방법이다.

(2) 생활현장을 활용한 자유로운 교육

4복음서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어떤 곳에 있든지 교육사역과 깊은 관계를 갖고 계셨다. 예수님의 교육방법은 공식적이며 정규적인 것보다는 언제나 비공식적이며 비정규적인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길가, 해변, 광야, 산, 집, 우물곁에서 그리고 회당과 성전, 그 어떠한 곳에서도 친밀하게 거닐고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리를 가르쳤다.[30]

(3)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육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교육방법은 형식적이기보다는 비형식적이며 자연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면,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질의응답을 통해서, 면담과

---

[29]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 역(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2), 113.

[30]Ibid., 114-115.

대화를 통해서, 시청각적인 실물교육을 통해서 알기 쉽게 가르치셨다.[31]

(4) 생활 속 경험을 통한 교육

예수님의 가르침은 막연한 이론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생활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생활에서 부딪쳐오는 시선을 토대로 해서 말씀의 이해와 도움을 얻도록 했다.

(5)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함께 생활하심으로 교육했다.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의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다.[32] 또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시고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시므로 개인접촉을 통하여 신앙을 지도하셨다.[33]

(6) 개인의 영혼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교육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고려의 대상은 개인이었다. 그는 개인적인 접촉을 강조하셨고 한 영혼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셨고 한 영혼이 바로 서는 것에 영구한 가치를 두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고, 한 영혼이 양심에 따라 행하며, 한 영혼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한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가르치셨다.[34]

(7) 개인상담을 통한 교육

예수님은 개인의 문제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 가시어서 그들과 상담하심으로

---

[31]Ibid., 116.

[32]김영규, *기독교교육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56.

[33]Waylon. B. Moore, *신약성서적 새가족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서울: 요단출판사, 1982), 38-40.

[34]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 역(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2), 117.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문제해결을 얻게 했다. 수가성 여인이나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나 세리장 삭개오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35]

(8) 제자화를 통한 교육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셨다.[36] 예수님의 교육은 언제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르치셨다. 첫째, 예수님의 궁극적인 교육목표는 십자가나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었다.[37]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종말론적 영역이었다. 둘째, 예수님의 교육목표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38]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자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을 보여주셨고, 인간의 태도, 생각,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3) 현대인의 종교적 이해

현대에 있어서 새가족을 이해하려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교회는 두 가지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와 인간의 필요이다. 하나님의 필요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교회는 전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 사명이며 본질이다. 그래서

---

[35]Ibid., 115.

[36]Ibid., 113.

[37]김영규, 57.

[38]Ibid., 113.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연구로서의 신학연구와 함께 철저히 인간도 연구해야 하는데 새가족 목회를 위해서는 현대인간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H. Maslow)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요약한바 있다. 신체적 필요, 안정감과 보호에 대한 필요,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필요, 자존감에 대한 필요, 자아실현의 필요, 예술과 문화에 대한 필요, 세계관과 종교에 대한 필요가 그것이다.[39] 이러한 이해 가운데 현대 교회는 현대인의 근본적인 욕구를 잘 분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교회는 성장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 나아가서 한국 현대인의 의식에 대한 특징들도 유념해야 하는데, 경제적 물질주의, 개인적 이기주의, 종교적 상대주의, 문화적 쾌락주의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특징을 기초로 해서 한국교회가 잠재적 새가족인 비신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세속화된 현대인의 특징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다시 열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40]

> 첫째, 현대인은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교회도 많고 복음전파가 일반화 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기독교 기본진리나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새가족 정착에 성공하려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 둘째, 현대인은 내세보다는 현세에 더 관심이 많다. 현대인은 죽은 후의 일보다는 현재 사는 일에 더 신경을 쓴다. 현대인은 죽음 중심의 인생관이 아니라 생명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 현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현대인은 죄책보다는 불안과 의심을 더 의식하는 편이다. 도덕적 가치관이 절대적이던 시대는 가고 지금은 모든 면에서 상대적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지배하는

---

[39]http://blog.naver.com/yuyonho/20109892907/04.20.2012.

[40]명성훈, 33-37.

시대가 되었다. 상대적 가치관은 내가 좋으면 무조건 좋다는 것으로 그 결과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는 내가 안전 한가 아닌가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러므로 현대인에게는 죄책감을 자극하는 것 보다는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키는 접근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대인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정적이다. 그들은 교회와 신자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는 거부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높은 윤리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얻기 위해서는 삶의 영성, 생활전도에 입각한 그들의 삶의 필요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다섯째, 현대인은 복합적 소외(multiple alienation)에 시달린다. 현대 세속인은 현대화와 세속화로 인해 과거에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만큼 깊은 공허감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다. 자연과의 소외, 이웃과의 소외, 사회와의 소외, 그리고 직업에서의 소외로 고통을 겪는다. 이러한 현대인에게 교회는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긍정적인 소속감을 심어주는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준비해야 한다.

여섯째, 현대인은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인간은 믿음보다는 불신을 배운다. 세상은 긍정적인 믿음을 약화시키고 부정적인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다. 현대인에게 있어 죄란 신뢰의 결핍으로 이해되어진다.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빼앗아 가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자기 자신까지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이다. 이러한 현대인에게 교회는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다가가야 한다.

일곱째, 현대인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복음은 현대인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실재적인 능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현대인은 역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역사는 어떤 안전된 힘에 의해 진행된다는 생각보다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의 연속으로 본다. 이러한 역사관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 대신 비현실적인 기대와 놀라운 충격이나 위협의 가능성으로 보게 만든다. 오늘의 교회는 이러한 역사적 불안 심리를 희망의 메시지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현대인은 역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통제하지 못하고 대신에 각종 약물이나 나쁜 습관에 중독되거나 어떤 사물이나 사건 혹은 사람에게 삶의 중심점을 두는 이른바 '상호의존성'(co-dependency) 증세에 시달린다. 교회는 이들을 위한 회복목회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열 번째, 현대인은 자신만의 힘으로는 인생의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 아무리

자신만만한 사람일지라도 스스로는 신이나 궁극적인 실재, 구원을 찾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절대 절망적 상황은 오히려 교회에 희망을 준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생명의 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인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현대인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오늘날 새가족에 대한 교육과 사역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참 진리와 생명이 필요하며 죄, 소외, 불안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현대인은 교회를 해답으로 찾아오게 된다.[41] 이런 상황가운데 교회가 새가족에게 올바른 인간이해를 근거로 한 소그룹 하이터치 접근을 통한 교육과 돌봄으로 정착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3. 새가족 유형

본 연구자가 미국한인교회에서 살펴본 새가족 유형의 대부분이 타교회에서 이동한 중직자와 타교회에서 나온 오래되지 않은 새신자, 처음 교회를 나오는 태신자, 과거에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돌아온 회심자 등이 대표적인 새가족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새가족 유형을 찾다가 위의 네 가지 유형에 잘 맞는 용어를 인터넷에서 찾았다.[42] 그 용어는 'O(Old Member)형, N(New Member)형, S(Seeker)형, V(Vacation Member)형'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유형들이다.

1) O형(Old Member)

오랫동안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입된 직분 있는 교인으로 이들을 위한 아래와 같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41] 윤진우, *새가족 교육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7-17 참조.

[42] http://cafe.naver.com/ds8na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2&/06.10.2011.

첫째, 전입 동기나 배경을 파악

둘째, 과거 신앙 이력을 존중, 너무 새 신자 취급하지 말라

셋째, 더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분위기 파악을 위해 양육에 참여케 함

넷째, 우리 교회의 행정 절차(직분) 및 특성들 소개

2) N형(New Member)

타 교회에서 전입된 어린 신자들로 이들 역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검과 파악이 필요하다.

첫째, 전입 동기나 배경을 파악

둘째, 구원의 확신 점검 및 신앙의 성숙 단계 파악

셋째, 새 신자 양육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하며 점검

넷째, 교회 생활 안내 (예배, 헌금)

3) S형(Seeker)

한 번도 교회를 다녀 본 적이 없는 오리지널 새 신자들(초신자)로 이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맞이해야 한다.

첫째, 교회 등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결단을 격려

둘째, 일대일 멘토링을 통한 세심한 돌봄과 교회 생활 안내

셋째, 이들의 문화 충격을 이해하고 사전에 잘 설명

넷째, 주위에 신뢰할 만한 3명의 사람을 연결해 준다.

4) V형(Vacation Member)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 후 다시 나온 신자들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기에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첫째, 등록 동기와 배경을 파악

둘째,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중단했는지 파악하고 격려해줌

셋째, 신앙의 갈등이나 위기 요소를 파악

넷째, 새로운 삶 과정을 소개하고 목장을 통한 정착을 도움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유형에 따라 새가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본 연구와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새가족 섬김이들과 논문 사이트 팀이 하이터치 접근의 중요한 변수로 바로 새가족 유형을 꼽았다. 그런 이유로 유형에 따라 처음 접근하는 방식부터 달리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Ⅲ. 소그룹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1. 소그룹 중심의 의식변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은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갖는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 모이거나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이며, 혹 어떤 모임은 그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이기도 한다.[43] 나아가서 새가족뿐만 아니라 기존성도들도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말씀 나눔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고, 도울 수 있기에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된다. 가정마다 다니면서 모이는 소그룹 목장[44] 모임은 코이노니아(koinonia는 "교제"라는 뜻) 성격이 강한 모임으로 음식을 나누며, 찬양과 기도와 주일말씀 나눔과 삶의 간증을 통하여 소그룹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함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뼈대가 된다.[45] 그런 이유로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에 소그룹 중심의 목회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1) 소그룹의 필요성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는 새들백교회,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 등과 함께 소위 주목받는 차세대 교회 가운데 하나이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데일

---

[43]Ron Nicholas 외 4 인,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서울: IVP, 2005), 15.

[44] 뉴욕새교회는 18 개 목장에 리더인 목자와 섬김이가 있고, 매주 혹은 격주로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모임.

[45]Ron Nicholas 외 4 인, 17.

겔러웨이(Dale Galloway)는 TLC 그룹(Tender Loving Care,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 그룹) 사역을 직무그룹이나 지원 혹은 회복그룹, 예능그룹 등으로 확대 실천함으로써 뉴 호프 교회를 북미지역에서 명실상부한 소그룹 중심, 평신도 목회 중심의 대교회로 성장시켰다. Dale Galloway는 모든 교회들이 왜 소그룹들이 필요한지 다섯 가지를 기술한다.[46]

첫째, 소그룹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출입구를 제공한다.

둘째, 소그룹은 아주 효과적인 전도방법이다.

셋째, 소그룹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넷째, 소그룹은 개인과 교회의 영적 성장을 촉진한다.

다섯째, 소그룹은 교회의 일을 사람들에게 적절히 나누어 주어 엡4장을 실현한다.

오늘날 전통적인 소그룹 모임인 구역에서 탈피하여 셀, G12, D12, 목장 등 왜 소그룹 모임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는가? 성경 마28:18-20에서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재생산을 하라는 것이다. 제자는 재생산을 통하여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뉴 호프 교회에서 미래의 리더를 훈련하고 가르치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소그룹이라고 판단하여 새 가족들이 등록할 경우, 가능하면 빨리 소그룹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소그룹에서 그들의 ‘가족의식’이 생겨나고,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들이 충족되며, 그들의 잠재적인 목회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게리 쿠네(Gary W. Kuhne)는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47]

---

[46]Dale Galloway,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이야기*, 전의우 역(서울: 요단 출판사, 1999), 11.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새가족을 돕는다.

둘째, 신앙이 성장하도록 새가족을 돕는다.

셋째, 풍성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가족을 돕는다.

넷째, 새가족이 교회생활에서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새가족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배우도록 돕는다.

이런 배경에서 접근해 보면, 뉴욕새교회에는 등록하지 않고, 1년 넘게 주일예배를 참석했지만 소그룹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새가족들이 교회 내에서 연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교회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다양한 필요를 신속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메타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변형교회라고도 불리는 메타 교회는 교회의 규모와 관계없이 교회 운영 방법이 평신도 지도자 중심의 소그룹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를 가리킨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제도와 조직과 의식을 가진 교회로서 시대의 변화를 예상하고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교회이다.[48]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현대사회가 다원화, 전문화됨에 따라 성직자 혼자서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없게 된 사회 상황이 중요하다. 사회의 다원화와 직업의 세분화는 교회 운영의 구조와 형태에서 근본적으로부터의 변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소그룹 활동 참여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의사소통이 언어보다는 얼굴 표정이나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매개로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된다.[49] 사람들은 서로 도움 주기를 기대하고 소그룹에

[47]Gary W. Kuhne,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서울: 요단출판사, 1995), 20.

[48]Carl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New York: F. H. Revell, 1992) 참조.

[49]정재영, *소그룹의 사회학*(서울: 한들출판사, 2010), 22-23.

들어오지만, 또한 스스로 지원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감독교회 평신도인 조지 갤럽(George Gallup)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섯 가지를 가장 많이 답했다.

첫째, 삶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믿는 것

둘째, 공동체 의식과 더 깊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

셋째,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넷째,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

다섯째, 믿음이 성장하는 것

여섯째, 성숙한 신앙형성을 위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은 회심자가 제자가 되는 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필요들이다. 이 여섯 가지 필요는 모두 소그룹목회에서 충족된다.[50]

2) 소그룹 적정인원과 소통

소그룹 모임에서 인원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명에서 12명을 데일 겔러웨이(Dale Galloway) 목사는 이상적인 소그룹인원으로 보고 있다. 1940년에 미국남침례교는 '플레이크 공식'(Flake formula)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다. 이 플레이크 공식은 남침례교인들의 신념을 가리킨다. 그것은 하나의 교회가 새로운 교사를 모집하고, 훈련시켜 내 보낼 때마다 교회학교는 10명씩 늘어가는데, 10명은 교회학교 한 반의 평균적인 최대크기라는 것이다.

이 플레이크 공식'(Flake formula)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끌어낸 '이드로 원칙'이다. 이드로 원칙에서는 리더들이 각각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구성된 그룹들에 지명된다. 연구자들은 한 사람이 다루고,

[50]Dale Galloway, 21.

양육하며, 보살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이 10명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10대 1이라는 비율이 되는 것이다.[51]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그룹 안에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아래의 <표1>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룹에 두 사람이 있다면 각 사람은 상대방에게 하나의 신호를 보내면 신호는 모두 2개가 된다. 그러나 세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나머지 두 사람에게 각각 하나씩의 신호를 보내고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의 신호를 보낸다(한 사람이 3개의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전체 신호는 9개가 된다. 사람들이 그룹에 점점 더 많이 몰려들면, 의사소통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나의 그룹에 열 사람이 있다면, 그 신호의 숫자는 5,110개가 된다.

<표1> 소그룹 내에서의 신호 숫자[52]

사람		발신		신호
2사람	------------------	발신	---------------	2 신호들
3사람	------------------	발신	---------------	9 신호들
4사람	------------------	발신	---------------	28 신호들
5사람	------------------	발신	---------------	75 신호들
6사람	------------------	발신	--------------	186 신호들
7사람	------------------	발신	--------------	441 신호들
8사람	------------------	발신	-------------	1,016 신호들
9사람	------------------	발신	-------------	2,295 신호들
10사람	-----------------	발신	-------------	5,110 신호들

[51]Ibid., 60.

[52] 커크패트릭(Kirkpatrick)의 「휴먼 스케일」(Human Scale)을 변형한 것으로, 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서울: 요단출판사, 1997)에서 재인용.

그룹의 크기가 커질수록 리더가 그룹 안에서 의사소통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게다가 대부분의 집은 열두 사람 이상이 편안히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지 못할 것이다. 개인주택의 제한된 주차공간도 그룹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제한요인 중 하나이다. 오늘날 교회들은 점점 더 대형화 되고, 대그룹 예배에 엄청난 투자와 관심을 집중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큰 종교 집회가 제공하지 못하는 강렬하고 친밀한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토론하기를 원하고 진정한 돌봄을 실제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성을 키워나갈 장소를 원한다.

엘리스 넬슨(Ellis Nelson)은 신앙은 신앙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역사를 통해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53] 그러므로 신앙 형성은 공동체의 존재를 전재로 한다. 또한 신앙은 신앙공동체에 의해 전수되는 것이며, 신앙공동체는 역사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사건과 상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넬슨과 함께 종교 사회화를 주창한 존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는 종교를 역사속의 개인들과 공동체의 삶과 행위 안에서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루는 제도로 된 믿음의 공동체 표현이라고 정의한다.[54] 무엇보다 교회의 동력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성에 있으며, 새가족이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 지식 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경험을 통한 전인적인 교육으로 발전된다.

---

[53]Ellis Nelson, "Christian Education in a Secular Society", *The Presbyterian outlook*, 176 권 16 호(1994 년 4 월), 6. 김도일, “엘리스 넬슨과 존 웨스터호프의 사회화접근”, *교육인가 신앙공동체인가?*(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12.

[54]John Westerhoff Ⅲ, "A Changing Focus, Toward an Understanding of Religions Socialization", Andover Newton Quarterly, 14 권(1973 년), 120. 김도일, “엘리스 넬슨과 존 웨스터호프의 사회화접근”, *교육인가 신앙공동체인가?*(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20.

3) 소그룹의 활동과 공동체 의식

소그룹의 정기 모임 및 여러 활동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효과 있는 방법이다. 소그룹에서의 활동은, 소그룹 참여자들 사이의 친밀한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환경을 제공한다. 과거의 공동체와 달리, 모든 개인 생활이 집단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모여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현대의 개인주의화된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재영의 소그룹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자주 모이는 것과 공동체 응집력 사이에는 직접 관련이 있다.”[55]는 것이다. 교회 소그룹 활동은 대개 네 가지의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한 양육, 경배와 기도, 공동체 교제, 전도와 봉사를 내용으로 하는 선교이다.[56] 각각의 활동 내용이 종교사회학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경공부를 통한 공동체 의식

교회 소그룹에서는 양육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성서와 인도자의 모범을 통하여 구성원들을 성숙한 기독교인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맞춰 나간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변화된 삶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57] 이런 변화와 성숙을 이끄는데 소그룹 성경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그룹에서 성서를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공통으로 귀납의 방법을 사용한다. 신학자들은 성서 연구의 귀납법은 성서의 특수하고 상세한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에 근거를 두고 결론을

---

[55]정재영, 81.

[56]한국기독학생회 자료개발부 엮음, *소그룹 리더 핸드북*(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5), 42.

[57]Bill Donohue,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송영선 역(서울: 디모데출판사, 2004), 24.

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고 공평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방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은 성서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전자 매체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수직의 논리를 가지고 전개시켜 나가는 성서 연구는 호소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동원 목사는 말한다.[58] 이 방법이 소그룹 활동에 적합한 이유는 권위자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모두 진리의 발굴자가 되어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발견하고 느낀 점을 자기 경험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59]

따라서 소그룹에서는 모든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성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들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따로 연구할 필요는 없다. 성서의 이야기는 다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의 해석은 다른 사람의 해석만큼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소그룹에서의 성경공부는 성서 자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기보다는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지향한다.

귀납의 방법과 함께 사용되면서 귀납법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이 이야기식 방법(Narrative method 또는 Story telling)이다. 이야기식 방법은 성서 자체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에 주로 설교학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이야기의 힘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야기식 방법의 핵심은 내용의 재구성에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순히 성서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재구성해서 말함으로써 공동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

[58]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서울: 요단출판사, 1990), 138.

[59]이연길, *이야기식 소그룹 성경공부 방법: 성서발견 인도자 지침서*(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46.

그곳에서 공동의 해석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60]

(2)기도를 통한 공동체 의식

소그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소그룹 참여자들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들 중의 하나이다. 프랭크 바이올라(Frank Viola)는 “교회는 영적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교제하는 친밀한 공동체”[61] 라고 말한다. 의해 태어난 유기적 교 사람들은 자주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요소이고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지원 집단(support group)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고 느낀다. 기도는 소그룹의 가장 강력한 성장의 도구 중 하나다.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서로 간에 교제한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 합심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하나되며 그분과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에서 하나된다. 헨리 클라우드 & 존 타운센드(Henry Cloud . John Townsend)는 “소그룹 안에서의 합심기도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우리를 가까워지게 한다.”고 말한다.[62] 소그룹은 상호 기도와 고백이 용서와 치료로 발전될 수 있는 공간이다. 구성원들에게 자신들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내면의 문제와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개방의 태도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용서와 치료는 구성원들을 안으로

---

[60]Ibid., 48-49.

[61]Frank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이남하 역(대전: 대장간, 2010), 26.

[62]Henry Cloud . John Townsend,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윤종석 역(서울: 좋은씨앗, 2004), 99.

결속하게 하고 인격으로 교섭하게 함으로써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한다.

또한 소그룹(Small Group)에서 기도와 더불어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요소 중 하나가 경배하는 것이다. 함께 노래하고 경배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집단으로 기억하고 묵상하고 배우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소그룹 안에서는 집단 기억의 성과로써 노래가 중요시된다. 성서의 초대 교회 공동체는 노래를 통해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고, 모임의 구성원들은 시, 기도, 그리고 노래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며, 과거를 현대의 삶에 더욱 능동으로 적용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소그룹 안에서의 활동은 철저하게 개인의 욕구에 집중하면서도 필요에 의해 서로 관심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소그룹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자세와 수용성이 있고, 격려와 자발성이 있는 곳이다.

(3) 교제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소그룹 안에서의 교제는 기독교인으로서 갖게 되는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룹 멤버들은 마음과 마음의 인격적 차원에서 서로 만난다. 교제는 소그룹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교제가 잘되는 그룹의 내용은 인격적이고 정서적이며 삶의 고충이 바탕을 이룬다. 때로 모험도 따르지만 기본적으로 멤버들은 서로 자기 마음과 삶을 열며, 그럴 때 교제가 이루어진다."[63] 소그룹 안에서의 교제는 '수용'이라는 소그룹의 암묵적인 규범을 통해서 가능하다. 수용은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서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는 것이다. 수용의 규범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해진 자존감에 대한 욕구를 소그룹이 인정하고 양성한다는 면에서

[63]Ibid., 91.

중요성을 갖는다. 강한 긍정의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적극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을 환경에 투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적다.[64] 소그룹 교제의 한 방법으로 소그룹 운동가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현대인들이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리는 까닭은 개인의 독립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함께 식사하고 함께 놀이를 즐김으로써 서로의 사사로운 모습을 개방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되는 친밀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 주고, 함께 고민하는 삶의 방식을 나타낸다.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소그룹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소그룹 운동이 성공하게 한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권위주의 종교와 같이 한 방향만을 고집하거나 하나의 주의, 주장만 옳다고 하지 않고, 소그룹 자체를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라도 들어와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소그룹 모임의 특징이다. 소그룹 안에서의 교제는 피상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으로 서로에게 개입해 가는 관계이다. 이로써 각 개인의 삶과 내면에 교정과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65] 소그룹 참여자들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폭넓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갖기 쉬운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그룹을 통한 심리 치료의 효과는 결국 소그룹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사회생활에도 더 많은

---

[64]Ruch C. Wylie, *The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9), 43.

[65]한국기독학생회 자료개발부 엮음, 44.

확산된 의미를 낳는다. 따라서 소그룹 안에서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사회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교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순간순간 자주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점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룹 내 친밀함은 시간과 모험과 경험으로만 개발된다.

2. 소그룹 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교회는 21 세기를 시작하는 2000 년 이후부터 미래교회와 미래목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장신대 노영상교수는『미래교회와 미래신학』이라는 책에서 '셀과 소그룹, G12 와 알파코스, 밴드 미니스트리' 등 소그룹 목회에 주목하고 있다.[66] 소그룹 활동은 큰 교회일수록 소홀해지기 쉬운 성도 간의 교제를 활성화한다. 본 연구자는 소그룹 하이터치 접근을 위해 소그룹 참여자들의 인식조사를 찾다가 정재영 교수의 『소그룹 사회학』이라는 책에서 원하는 통계자료를 찾았다. 물론 이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 개최되었던 2002 년을 전후로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굳이 10 년이 지난 자료를 미국한인교회에 적용하여 인용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교회 양육시스템과 소그룹 활동이 미국한인교회보다 대략 10 년 정도 앞서 있고, 다음은 대부분의 미국 한인교회가 한국교회의 시스템을 따라하는데 주목했기 때문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가 한류바람을 타고 이민사회에 강하게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소그룹 참여자들의 경험인식

---

[66]노영상, *미래교회와 미래신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159-168 참조.

소그룹 활동에 대하여 실제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들의 인식 조사를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 종교사회학)에 의하면, “교회 소그룹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회 소그룹은 하나의 교회 제도와 같이 운영되어서 자신의 의사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권유를 받아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67] 고 말한다.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한국의 예능교회와 미국의 뉴욕새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이와 비슷한 형태로 참여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존의 구역 제도가 소그룹 활동으로 변형되거나 형태면에서 구역 제도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다. 예능교회는 전통교회에서 셀교회로 전환했을 때 셀모임 참석율이 50%를 넘지 못했고, 뉴욕새교회 역시 소그룹 가정목장 참여에 40%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참여 동기는 교회 지도자나 주위 아는 사람들의 권유가 많이 있었고,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소그룹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참여한 경우였다. 다음은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인용한다.

<표2>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68]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시간이 없어서	75	58.1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35	27.1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11	8.5
마음에 드는 소그룹이 없어서	6	4.7
기타	2	1.6
사례수	129	100.0

[67]정재영, *현대 사회에서 교회 소그룹의 사회학적 의미*(서울: 한들출판사, 2010), 93.

[68]Ibid, 94.

위의 조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의 58.1%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27.1%는 "구속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는 8.5%였다. 다음은 소그룹 참여도에 대한 인식조사로 교회성장, 신앙성장, 소그룹 활성화 정도를 세 그룹 적극참여자, 비적극 참여자, 전체 참여자로 구분하여 다섯개의 대답으로 나타낸 표다.

<표3> 소그룹 참여도와 소그룹에 대한 인식[69]

		소그룹 참여도		
		적극 참여자	비적극 참여자	전체 참여자
교회 성장	아주 중요	81.1%	62.2%	74.5%
	조금 중요	16.4%	33.3%	22.5%
	보통	1.8%	3.2%	2.5%
	별로	0%	0.6%	0.2%
	전혀	0%	0.6%	0.2%
	사례 수	275명	157명	444명
신앙 성장	매우	62.6%	37.3%	54.8%
	조금	33.5%	52.4%	39.3%
	보통	3.1%	6.3%	4.1%
	별로	0.8%	2.4%	1.3%
	전혀	0%	1.6%	0.5%
	사례 수	271명	126명	387명
활성화 정도	매우	26.4%	23.5%	25.5%
	조금	51.8%	46.8%	49.0%
	보통	15.6%	20.9%	17.9%
	별로	4.7%	7.0%	6.5%
	전혀	1.4%	0%	1.1%
	사례 수	271명	158명	438명

<표3>는 응답자들이 소그룹 활동과 교회 성장, 자신의 신앙성장, 그리고 소그룹

[69]Ibid., 96.

활동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74.5%가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는데, 적극 참여자들은 81.8%가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비적극 참여자들은 62.2%가 그렇게 응답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소그룹 활동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54.8%가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는데, 적극 참여자의 37.3%만이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두 집단 사이에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소그룹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25.5%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응답했는데, 비적극 참여자들은 25.3%가 그렇게 응답하여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전체로는 74.5%가 "매우"또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위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그룹 활성화가 개인성장 보다는 교회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댈러스 신학교 래리 모이어(R. Larry Moyer) 목회학 교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동참하여 그 가족이 되는 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열심도 내지 않는 것은 양육, 더 정확히 말하면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성장케 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70] 다음은 참여빈도, 모임시간, 참여인원, 참여정도를 알아보는 소그룹 활동의 특성에 관한 설문자료이다.

<표4> 소그룹 활동의 특성[71]

	주2회 이상	주1회	격주 1회	월1회	사례수
참여빈도	25.8%	66.7%	3.6%	3.9%	387명
	1시간 이하	1-2시간	2-3시간	3시간 이상	사례수
모임시간	12.8%	56.2%	22.3%	8.7%	390명
	5명 이하	6-10명	11-15명	16명 이상	사례수

[70]Roy B. Zuck, *미래목회 비전리더십*, 조계광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306.

[71]정재영, 97.

참여인원	49.4%	35.7%	10.1%	4.9%	387명

	모두 매번 참석	대부분 매번 참석	절반 매번 참석	사례수
참여정도	10.4%	65.0%	24.6%	386명

<표4>에서 소그룹 활동에 대한 참여 빈도는 1주일에 한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6.7%이었고, 1주일에 두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5.8%나 되었다. 소그룹의 정기 모임 시간은 1-2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3시간으로 22.3%이었다.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5명 이하가 4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6-10명으로 35.7%이었다. 소그룹 구성원들의 참여도에 대해서는 65.0%가 대부분 매번 참석한다고 답했으나 모두 매번 참석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0.4%에 불과했고, 반 정도만 매번 참석한다는 응답도 24.6%나 되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주일예배 외에 소그룹 활동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그룹 활동을 위한 운영의 원리가 필요하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견고한 그룹이 되는 방법은 자신의 영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그룹을 운영해 나간다면 문제는 달다질 수 있다.[72] 소그룹 하이터치 접근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 내러티브 성경공부와 인카운터 세미나, 문화교실 등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한 사람도 소외 됨이 없이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나눔과 적용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다음은 소그룹에서 하는 활동의 빈도를 확인하는 자료로 이 또한 다양한 용도로 소그룹 접근에 용이한 설문 자료이다.

<표5> 소그룹에서 하는 활동[73]

	빈도(복수응답)	백분율

[72]채이석.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기독신문사, 2000), 115.

[73]정재영, 98.

함께 기도	331	18.8
성경 공부	310	17.6
함께 식사	281	15.9
각자의 문제를 나눔	261	14.8
함께 찬양	194	11.0
기독교에 대해 토론	96	5.4
봉사 활동	88	5.0
전도 활동	86	4.9
공동 작업	35	2.0
파티	34	1.9
취미나 운동	25	1.4
사회 . 정치 문제를 토론	23	1.3
계	1764	100.0

<표5>는 소그룹에서 하는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소그룹 활동 내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제일 많이 골랐고(18.8%), 다음이 성경공부(17.6%), 함께 식사(15.9), 서로의 문제를 나눔(14.8%), 함께 찬양(11.0%)의 순으로 이 다섯 가지 활동이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이 밖에 기독교에 대한 토론은 5.4%가 응답했고, 봉사활동이 5.0%, 전도 활동이 4.9%, 공동 작업이 2.0%, 파티 1.9%, 취미나 운동 1.4%, 그리고 사회 정치 문제 토론에는 1.3%만이 응답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는 교회 안의 소그룹 활동이 일차로 신앙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 있고, 대체로 지성보다는 감성위주의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소그룹은 교회 내의 새로움을 위한 은사의 발견과 사용에 대한 최대의 희망을 제공하여 준다. 그 안에서 진정한 인간성에 의하여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74]고 말한다.

[74]Howard Snyder, *새 포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169.

<표6> 소그룹에서 받은 도움[75]

질문내용	백분율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	22.0%
여러 사람과 사귈 수 있다	17.8%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16.9%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다	15.8%
성경에 따라 생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14.3%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13.2%
사례 수(복수 응답)	382명

"소그룹 활동이 특히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22.0%)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여러 사람과 사귈 수 있다"(17.8%),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16.9%)순이었다.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다"는 15.8%이었으며, "성경에 따라 생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14.3%,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잘 알 수 있다"는 13.2%로 가장 적은 응답을 받았다.

실제로 소그룹에서 받는 도움은 성서에 대한 지식보다는 소그룹 안에서의 사랑과 돌봄이라는 정적인 부분임을 잘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성미경의 논문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은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성경공부(51.1%)라고 응답했지만, 평신도는 교제(47.7%)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76] 곧 흔히 소그룹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소그룹 모임이 단순히 성경 공부를 통해 성서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소그룹 구성원들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구성원들 사이에 친교 곧 친밀한 교섭을 하게

[75] 정재영, 99.

[76] 성미경, *소그룹 사역을 위한 통전적 인간 이해에 대한 연구: D. W. Winnicott 의 이론을 중심으로*(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70.

되고, 그 결과 일반 사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인간 상호간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정서의 안정 등 측면의 지원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위의 자료를 통해서도 소그룹 하이터치 접근이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갖게 한다.

<표7> 소그룹 활동 중에 주고받은 영향[77]

질문 내용	사례 수 (복수응답)	백분율
잘 참석하지 않는 회원을 소그룹에 참석하도록 독려	242명	28.0%
아는 사람을 소그룹이나 교회에 참석하도록 독려	203명	23.5%
가족을 소그룹 활동이나 교회에 참석하도록 독려	139명	16.1%
다른 일 때문에 소그룹에 참석하는 것을 고민	85명	9.8%
잘 참석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실망감	73명	8.4%
새로운 소그룹이 시작하도록 도움	67명	7.7%
소그룹에서 자신만 열심히 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	28명	3.2%
소그룹 활동에 대한 가족이나 친구의 반대	28명	3.2%
사례 수	129명	100.0%

소그룹 활동 중의 경험을 통하여 소그룹 안팎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표7>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잘 참석하지 않는 회원을 소그룹에 참석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친구나 아는 사람을 소그룹 활동이나 교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순으로, 절반 이상이 긍정의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다음은 “친구나 아는 사람을 소그룹 활동이나 교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고, “가족을 소그룹 활동이나 교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순으로, 절반 이상이 긍정의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다른 일 때문에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고민”하거나, “잘 참석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실망감”, “소그룹 활동에 대한 가족이나 친구의 반대”, “소그룹에서 자신만 열심히 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등의 부정의 영향은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그룹 활동은 친밀하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통하여 집단

[77]정재영, 123.

개개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학 이해하게 하며, 나아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78]

2) 소그룹 활동을 통한 욕구의 통합 및 충족

인간은 사랑과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모든 부분을 수용하고 경험하고 통합할 장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활동은 안전한 포구처럼 새가족들이 따뜻함과 친밀감을 느낄 때, 욕구의 통합과 충족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통합이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면을 수용하고 경험하고 처리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통합된 사람은 현실의 일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자각하며 산다. 성경은 통합의 반대가 우리 삶에 불안정을 가져 온다고 가르친다. 통합의 반대를 야고보는 '두 마음'(약1:8)이라 표현했는데 이는 헬라어로 '두 영'이라는 뜻이다.[79] 소그룹 공동체 의식의 하위 차원으로서 욕구의 통합과 충족은 참여자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 받고 있는 모든 종류의 보상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소그룹 활동을 통한 경제의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참여자들은 많은 심리의 보상을 받는다. 이러한 심리의 만족은 참여 동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자존감의 강화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참여자들은 심리의 욕구를 다양한 만남들을 통해서 제공받는다.[80] 사람들이 소그룹 안에서 발견하는 가장 공통된 종류의 정서 지원은 감정이입과 격려이다.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상황 속에 들어가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다른 것에 비해 공급하기 쉬운 형태의 지원이다. 격려는 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더 적극성 있는 반응이다.

---

[78]홍종관, *자기성장을 위한 집단 상담*(대구: 대구교대학생생활연구소, 1996), 11.

[79]Henry Cloud . John Townsend,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윤종석 역(서울: 좋은씨앗, 2004), 76.

[80]정재영, 125.

격려는 주로 자기 발견 과정에 기인하는 집단 교섭의 부산물 중 하나이다. 아래의 설문조사는 소그룹 활동이 정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재영 교수의 '정서 안정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이다.

> 아래 <표8>은 정서 안정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이다. 종속 변수는 모두 5점 척도로 구성했는데, 외로움과 우울증은 "큰 고민거리이다, 조금 고민거리이다, 그저 그렇다, 별로 고민거리가 아니다,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다"로 구분했다.
> 먼저 외로움이 얼마나 큰 고민거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나이와 소그룹 참여도가 유의도 0.01 수준에서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곧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그룹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우울증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는 유의도 0.01 수준에서 소그룹 참여가 의미 있는 변수였고, 유의도 0.05 수준에서 신앙 연수가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소그룹 적극 참여자들은 43.1%가 "3-5명"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비적극 참여자들은 50.9%가 "1-2명"이라고 응답했다. "없다"고 응답한 경우(18.4%)를 포함하면, 69.3%가 2명 이하의 친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회귀 분석에서는 소그룹 참여도만이 의미 있는 변수로 드러났다.[81]

<표8> 정서 안정에 대한 회귀 분석

	외로움	우울증	친구 수
나이	-.259**	-.160	-.027
학력	.001	-.070	-.084
월소득	-.080	-.108	-.016
신앙연수	-.063	-.130*	.028
소그룹 참여도	-.284**	-.345**	.327**
소그룹 활동연수	-.034	.032	.058
상수항	2.683	3.028	3.368
R2	.354	.382	.349
Durbin-Watson	1.965	1.969	2.056

*p<.05 **p<.01

[81] Ibid., 129-130.

이 결과는 소그룹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사사로운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교회 안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친구들은 대부분 같은 소그룹 안에 있는 구성원일 수도 있지만, 소그룹 참여자들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계발된 인간관계의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을 더 쉽게 사귀게 됨으로써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폭넓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기 어려우며, 소그룹 활동을 통한 심리 치료의 효과는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줄여주는 것이다.

헨리 클라우드 & 존 타운센트(Henry Cloud . John Townsend)는 "좋은 그룹의 모든 멤버들이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소그룹 앞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임하면서 그들은 고통이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멤버들의 보편적 현상임을 배운다."[82] 고 말한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실수와 고통과 실패까지도 삶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어 가고 조직에 대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회 환경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공공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다원화되고 파편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이웃이 된 사람보다는 자신들과 감정을 나누는 사람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신뢰의 의미가 감정 차원으로 해석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해와 상한 감정은 매우 나쁜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감정을 치유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표9>는 소그룹 참여자들의 정서 연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설문 조사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동일시 감정을 알아보기 위해 동질감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응답자의 19.4%가 아주 강하게 느낀다고 응답했고, 59.4%가 강하게 느낀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 중 78.8%가 강한 동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82]Henry Cloud . John Townsend, 80.

서로간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8%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56.7%가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의 64.7%가 강한 신뢰감을 표시했다.[83]

또한 친밀감에 대해서도, 소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가깝다는 응답(21.5%)을 포함하여, 67.7%가 소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깝다고 응답했다. 리스 브릭맨(Leslie Brickman)은 "전체 기독교 공동체에서 자비와 구제의 은사를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평화의 복음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인의 자세로 섬기는 봉사의 사역에 참여하라."[84] 고 한다. 특히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새가족 섬김이나 사역자들은 동질감, 신뢰감, 친밀감으로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표9> 소그룹 참여자의 정서의 연계[85]

	아주강하다	조금강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전혀	사례 수
동질감	19.4%	59.4%	12.8%	5.8%	2.6%	382명
	완전히 신뢰	매우 신뢰	그저 그렇다	별로	전혀	사례 수
신뢰도	8.0%	56.7%	33.8%	1.5%	0%	388명
	아주 가깝다	조금 가깝다	보통으로	별로	전혀	사례 수
친밀감	21.5%	46.2%	24.9%	7.3%	0%	381명

3) 소그룹 밖으로의 공동체성

소그룹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규범이 소그룹과 교회 밖의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또한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규범의 실천이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83]정재영, 137.

[84]Leslie Brickman, *셀교회와 자연적 교회성장*, NCD편집부 역(성남: 도서출판NCD, 2003), 173.

[85]정재영, 138.

것이다. 이것은 소그룹 활동이 기독교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함이다. 소그룹 공동체가 외부와는 단절된 채, 안으로의 결속에만 집중한다면, 일종의 동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그룹은 '끼리끼리'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변질될 것이다. 존 스토트(John R. W. Stott)는 "각 교회는 특정한 동네에 위치하고 있다. 교회의 가장 첫째 되는 책임은 교회가 속한 지역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교인들은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전략적인 전초기지다."[86] 고 말한다. 교회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밖을 향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0> 소그룹 참여자의 이웃돕기[87]

		소그룹 참여도		
		적극 참여자	비적극 참여자	전체 참여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준 경험	없다	6.5%	14.4%	8.9%
	가끔 있다	75.8%	75.2%	75.3%
	자주 있다	15.3%	8.0%	13.1%
	항상 돕는다	2.4%	2.4%	2.6%
	사례 수	248명	125명	381명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5.7%가 "항상 또는 자주 도와준다"고 응답했다. 이중 소그룹 적극 참여자들은 17.7%가 "항상 또는 자주 도와준다"고 응답한 반면, 비적극 참여자들은 10.4%만이 그렇게 응답했다. "도와 준 적이 없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각각 6.5%과 14.4%로 차이가 났다. 적극 참여자들이 비적극 참여자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경험이 많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86]Roy B. Zuck, *미래목회 비전리더십*, 조계광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82.

[87]정재영, 162.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비적극 참여자들은 같은 교회나 소그룹 참여자들보다 교회 밖의 이웃들을 더 자주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그룹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가 더 많고, 소그룹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88]

<표11> 남을 돕는 이유[89]

	빈도(복수응답)	백분율(%)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235	57.9
인간으로서의 동정심에서	82	20.2
언젠가는 나도 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2	12.8
내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37	9.1
계	406	100.0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의 57.9%가 "성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했고, 20.2%는 "동정심에서"라고 응답했다. 남을 돕는 동기는 자신과 자신의 가치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웃돕기와 같은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은 공동체 정신의 사회에 대한 표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사랑과 돌봄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이타성의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교회 밖의 일반 사회에 대하여 그 정신을 실천하게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표12> 소그룹 활동의 결과[90]

	빈도(복수응답)	백분율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	279	52.0
봉사 단체에 참여	66	12.3

[88]Ibid., 161.

[89]Ibid., 163.

[90]Ibid., 164.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	62	11.5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	48	8.9
헌금을 더 많이 냄	43	8.0
사회 단체에 후원금 기부	26	4.8
시민 단체 활동	13	2.4
합계	537	100.0

설문조사 결과, 소그룹의 활동 내용은 주로 소그룹 자체의 유지와 소그룹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그룹 외부와 관련된 활동은 대부분 소그룹이 속해 있는 교회와 관련된 활동들이었다.[91] 이것은 설문 조사에서 소그룹 참여자들이 소그룹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소그룹 활동의 결과는 대부분 "교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봉사단체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소그룹 활동의 결과로서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은 각각 11.5%와 8.9%가 응답했으며, 그것의 실천에 대해서는 각각4.8%과 2.4%만이 "사회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되었거나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게 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의 결과밖에 낳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조사에서 볼 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와 소그룹 활동에서 하는 사회 참여는 사회봉사 범주에 속하는 활동들을 지향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 활동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는 소그룹 활동의 사회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신자들과의 접촉점을 많이 가지게 되고, 결국 새가족들을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 새가족들이 소그룹 활동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해 졌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에

[91]정재영, *한국교회 소그룹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 134-146.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는 도덕의 차원을 다시 공공 영역으로 들여옴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Ⅳ. 연구 조사 질문(Research questions)

1. 성서적 접근(Biblical component)

1) 정착하지 못하는 새가족

일반적으로 미국한인교회의 공통된 고민 중 하나는 꾸준히 등록카드를 내는 반가운 새가족들을 주일마다 확인하지만 돌아서면 등록카드는 어느새 잃은 양 명부가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인교회 새가족은 철새처럼 이동하면서 교회의 생리를너무나 잘 아는 기존 신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뉴욕새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새가족 중에는 초신자 보다는 전입신자 비율이 훨씬 많다는 사실 또한 새가족반 교육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92]

2009년 11월 / 13기 새가족반 수료자: 아래 왼쪽부터 권정란, 황제니, 이재용목사, 이미자, 박동원(초신자)
뒷줄 오른쪽부터 김수희, 성시용, 이홍정, 양승구 담임목사, 고종완, 권진현(초신자), 최미영(사진에 없음)

---

[92]2009 년 9 월 27 일~11 월 1 일(5 주) *새가족반 13 기* 수료자 10 명 중 8 명은 타교인, 나머지 2 명만 초신자.

이런 상황에서 새가족 정착의 열쇠는 얼마나 빨리 교회의 한 가족으로 소속감을 갖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동하는 교인들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못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새가족들로 인해 전반적인 교회분위기가 흐려지고 기존교인들 간에도 갈등이 생긴다.[93] 사실 뉴욕새교회는 새가족 관리와 양육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족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장학일 목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이웃사랑의 열정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고 간략하게 말한다. 사도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잘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94] 새가족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양육시스템 이전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적인 아비로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역자가 있느냐가 문제다. 달리 말하면 새가족에 대한 사역자들의 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돌봄에 대한 성서의 용어 가운데 '돌보다'인 히브리어 '다라쉬'(שָׁרַד;찾다, 구하다; seek)는 행위를 강조하는데 상대방 혹은 가족들의 안식을 위해서 일거리를 찾고 구하며 그들의 생활을 돌보는 것(잠31:13)이지만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다라쉬'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잊지 않의시고 항시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필요한

[93]송인규, *"이민교회 이야기" 빛과 소금, 제 59 호*(서울: 두란노서원, 1990), 225.

[94]개역한글, 고린도전서 4:15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의미한다.[95] 민6:24-26 '아론의 축복'에서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이 말씀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명하게 밝힌 말씀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돌보다'는 의미로 사용된 희랍어는 '프로노에오'(pronoeo)와 '프로이스테미'(proistemi)이다. '프로노에오'는 '앞장서다, 다스리다. 능가하다, 인도하다, 돕다, 보호하다'이다. '프로이스테미'는 신약에서 8회 나타나며 대체로 '인도하다, 보살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96] 예수께서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이 예수에게 끌려 왔을 때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재생의 길을 열어 주셨다(요8:3-11). 예수께서 백성들을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셨다(마6:34). 그리고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 선포하셨으며(요10:11), 병아리를 품에 안은 암탉으로 묘사하셨다(눅13:34). 또한 마25장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에서도 병자, 가난한 자, 주리고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이테크 시대에는 돌봄이라는 용어가 영어로는 '케어'(Care)이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수발, 보호, 돌봄'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돌봄이라는 단어를 선별한 것도 하이터치 접근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달리 '돌봄(Care)'이라는 것은 곤란한 사람, 무엇인가 번거롭고 성가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주시하고, 감사하고, 주의 깊게 취급하므로 돌보고 돕는 것을 말한다.[97]

---

[95]강병훈, *주제별 종합자료*(서울: 성서연구사, 1990), 192.

[96]Ibid., 193.

본 회퍼(D. Bonhoffer)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돌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며 최후에 받을 것을 은총으로 미리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98] 스톤(H.W. Stone)은『위기상담』에서 “교회 회중은 하나님의 사랑이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기에 적절하다”[99]고 하여 교회의 돌보는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본 연구자는 정착하지 못하는 새가족의 원인으로 돌봄 사역의 어려움에서 찾았다. 이는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다음에서 다루고자 한다.

2) 구조적인 문제

위에서 살펴본 대로 새가족 정착이 잘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새가족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며, 주요원인으로서 교회 구조적인 문제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새가족 사역자를 배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버리 덜레스(Avery Dulles)는 교회의 모델(Models of the Church)에서 전통적인 다섯 가지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성도의 신비적 교제로서의 교회를 지적하였다.[100] 성도의 신비적 교제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

[97]김경수, *돌봄*(서울: 서로 사랑출판사, 2006), 14.

[98]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서울: 기독교서회, 1990), 22-23.

[99]H. W. Stone, *위기상담*, 오성춘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89.

[100]Avery Cardinal Dulles, *교회의 모델*, 김기철 역(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3), 53.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신비한 역사를 이루신다.

쿨리(C. H. Cooley)는 공식적으로 구조화된 사회관계(Gesellschaft)와는 다른 대인관계적 교제관계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교제의 다섯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얼굴과 얼굴의 대면 둘째, 특정한 제도적 규범 없는 유동적인 관계 유지 셋째, 상대적인 지속성 넷째, 소그룹 중심 다섯째, 참여자들의 상호 친밀관계 형성 등이다. 이러한 대인관계적 교제는 새가족 정착을 위한 중요한 수평적 교제 요인이다. 여기에 해머(Jerome Hamer)는 수평적 교제와 수직적 교제로 나누고 수평적 교제로서의 교회는 대인 관계적 교제 관계 위에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수직적 교제가 있어야 함을 제시한다.[101] 사도바울은 고전 12:12-31 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이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몸이다". 롬 12:5 에 의하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말하며 엡 1:23 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묘사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성육신, 죽음, 부활에 의해 그의 몸 안에서 인류 전체에 대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에 동참했기 때문에(고전 1:16-18)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윌리(R Worley)는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사람들의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

[101]오성춘, *신학영성 목회*(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79-81.

사명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서로 분리되어 소외감을 느낀다면 살아 움직이는 집단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102]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포도나무 비유'(요 15:5)에서 나타난다. 이종성 박사는 『교회론』에서 교회는 분열해서는 안되고, 또한 분열할 수 없는 지체이며, 교회 구성원인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다.[103]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생명의 원리 가운데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새가족은 이제 지체로서 한 몸이 된 존재이다. 따라서 새가족도 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생명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도록 돌보고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새교회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교회들이 조직상에서 새가족을 위한 사역자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고 있음을 쉽게 목회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역자들에게는 새가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돌볼 수 있는 자질이 요구된다. 마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었던 그런 자질을 통해서 새가족 정착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새가족 사역자들은 교회 중직을 맡고 있거나 오래된 교인들로 채워져 있다. 이유는 누구보다 교인들의 형편을 잘 알고, 처음 오는 새가족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핵심멤버들로 여러 부서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기에 새가족들에게 집중하여 돌아볼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역 구조는 마치 달팽이 모양을 하고 있어 교회 중직이나 개척멤버들이 원심력의 핵심에 있고, 그 다음부터

---

[102]Robert C. Worley, *교회의 조직*, 박근원 역(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7), 45.

[103]이종성, *교회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21.

거기에 엉겨 붙어 있는 구조이다. 이 원심구조에 잘 적응하면 그 교회에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104] 참고로 아래의 2008/2009년 새가족 사역자들의 현황표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표13> 2008/2009년 뉴욕새교회 새가족(바나바) 사역자 현황[105]

구분	뉴욕새교회 바나바 사역자(*남.여 선교회명칭)
부부 (22명)	조동주명예장로(32년생, *엘리야) / 안병은명예권사(36년생, *사라) 김주명 장로(43년생, 여호수아) / 김은숙 권사(50년생, 한나) 황달연 장로(43년생, 여호수아) / 윤양옥 권사(51년생, 한나) 신안균 장로(49년생, 여호수아) / 신학선 권사(52년생, 한나) 장석근 집사(52년생, 갈렙) / 장미자 집사(57년생, 루디아) 성기복 안수집사(53년생, 갈렙) / 이봉자 집사(54년생, 한나) 김영수 집사(59년생, 스데반) / 김선혜 집사(65년생, 리브가) 박진두 집사(61년생, 스데반) / 박희순 집사(64년생, 리브가) 김성기 집사(62년생, 디모데) / 임복재 집사(64년생, 리브가) 이성경 집사(63년생, 디모데) / 박정윤 집사(65년생, 리브가) 정용일 집사(73년생, 디도) / 나혜린 집사(73년생, 마리아)
남 (3명)	김길두 집사(60년생, 스데반), 정종권 집사(66년생, 디모데) 김지현 집사(69년생, 디도)
여 (8명)	배정애 권사(39년생, 사라), 박경수 협동장로(46년생, 에스더) 방명희 권사(47년생, 에스더), 엄미라 권사(48년생, 에스더) 김영옥 집사(52년생, 한나), 유숙자 권사(57년생, 루디아) 공희숙 집사(61년생, 다비다), 오숙희 집사(61년생, 다비다)

이것은 고린도교회 분쟁의 불씨가 된 것처럼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104]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서울: 쿰란출판사, 2002), 106.

[105]2008 년부터 새가족(바나바) 사역자 명단에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새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자는 거의없으며, 대부분 교회 중직자이거나 교회 핵심멤버들로 보통 3-4 개의 부서에서 바쁘게 봉사하고 있다.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106] 목회자를 비롯한 중직자와 모든 기존성도들은 새가족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야 하는 사역자임을 말씀하고 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새가족들이 목사와도 관계가 좋아야 하지만, 교인들과도 관계가 좋아야 쉽게 적응을 한다. 이 두 요소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곧 교회를 떠나고 만다.[107] 이런 이유로 뉴욕새교회는 새가족(바나바)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사역부서에 배치를 했지만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못함이 원인이었다. 사역자들끼리도 서로 네트워크 제대로 되지 않고, 조직이 방대해서 한 번 모이기에도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새가족 정착을 위한 헌신적인 돌봄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진단한다. 성서에서 새가족 사역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나바로 사도행전 9:26-28에 나오는 새 신자 사울을 사랑과 친절로 만났고, 그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새 가족으로 정착시킨 인물이다. 바나바사역(Barnabas Ministry)[108]는 단순히 새가족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훈련된 사역자들을 헌신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역자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고민은 세워진 새가족 사역자는 많은데, 정작 사울을 정착시킨 바나바와 같은 준비된 사역자가 없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3) 은사 중심의 사역자

---

[106]개역한글, 고린도전서 3:4-5.

[107]이연길, 102-103.

[108]http://www.bmc153.com/06.25.2011/ Barnabas Ministry는 하나님의 성회 시카고 교회를 담임 및 바나바교육원장인 김명남 목사가 1995 년 미국에서 연구,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 새신자 정착을 위한 사역이다.

새가족 사역에 은사를 가진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전담 사역자를 세우는 작업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교육하여 역할을 맡겨야 한다.

(1) 선택 - 새가족 사역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품과 신앙이 성숙하여 공동체에 덕을 세우며, 삶에 열매가 있는 성도를 목회자가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 존재하는 '악', 즉 교회에 좋지 않은 비(非)본질(Un-Wesen)이 나타난다. 이는 교회의 본질과 비본질이 분리될 수 없는 모순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교회를 관념적이며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비판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래적인 것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109]

(2) 양성 - 새가족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은 단순히 새가족을 교육시키고 규칙을 강요하는 것 이상으로 양육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가족을 효과적으로 양육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110] 이것은 새가족 사역자들을 통해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에서 "인격"이라는 용어는 personality, 즉 지 . 정 . 의를 행사하는 주체(Individuality)라는 개념을 의미하기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관계를 하기 때문이다.[111]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

[109]Hans Küng, *교회*, 정지련 역(서울: 한들출판사, 2007), 35-37.

[110]Gary W. Kuhne,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서울: 요단출판사, 1995), 65.

[111]이형기 외, *기독교 사상사 1*(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81.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행9:26-28) 이 말씀은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교회에 정착하는 한 과정을 잘 제시하고 있다. 새가족 양성을 위한 방법은 바나바 사역자 세미나 참석과 일대일 16주 과정[112] 혹은 자체적인 양육 자료를 통해서 훈련이 가능하다.

(3) 역할 - 훈련받은 새가족 사역자의 역할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가족 심방이다. 새가족이 등록한 다음 주간 동안에 교역자 & 목장(구역) 리더와 연계하여 심방하고, 전화심방은 수시로 한다.

둘째, 새가족 환영이다. 교회입구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와 커피를 마시고, 교인들에게 인사시키며 교회를 소개한다.

셋째, 새가족 돌봄이다.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반 교육을 받기 전까지 사역자 한 사람 혹은 소그룹 중심으로 만남을 연계해 나간다. 특히 만남 가운데 교회에서 제공하는 4주 과정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나눠도 좋고, 마음을 터치 할 수 있는 간증을 통해서 진행하면 더욱 좋다. 사도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에서 세 번씩이나 간증[113]하는 사건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 형식으로 전하면 특별한 저항 없이 신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새가족 돌봄에 헌신할 수 있는 소그룹 중심의 사역자를 구성할 때, 첫째, 소수 정예를 통해서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사역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소그룹 중심으로 매주 모여서 사역자 간의 풍성한 나눔을 새가족과 함께 가질 수 있다.

---

[112]두란노편집부,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소(서울: 두란노, 2002), 참조.

[113]사도행전 9:1−19; 22:6−16; 26:12−18.

<표14> 2010년 뉴욕새교회 새가족 사역자 역할과 위치

월	도우미 / 예배실(영접부실)	섬김이 / 친교실
1월	이홍정 . 이미자	신동순(신은정), 박진두(박희순), 이경학(김경민)
2월	신동순 . 신은정	이홍정(이미자), 박진두(박희순), 이경학(김경민)
3월	박진두 . 박희순	이홍정(이미자), 신동순(신은정), 이경학(김경민)
4월	이경학 . 김경민	이홍정(이미자), 신동순(신은정), 박진두(박희순)
5월	이홍정 . 이미자	신동순(신은정), 박진두(박희순), 이경학(김경민)
6월	신동순 . 신은정	이홍정(이미자), 박진두(박희순), 이경학(김경민)
7월	박진두 . 박희순	이홍정(이미자), 신동순(신은정), 이경학(김경민)
8월	이경학 . 김경민	이홍정(이미자), 신동순(신은정), 박진두(박희순)
9월	이홍정 . 이미자	신동순(신은정), 박진두(박희순), 이경학(김경민)
10월	신동순 . 신은정	이홍정(이미자), 박진두(박희순), 이경학(김경민)
11월	박진두 . 박희순	이홍정(이미자), 신동순(신은정), 이경학(김경민)
12월	이경학 . 김경민	이홍정(이미자), 신동순(신은정), 박진두(박희순)

위의 자료는 기존의 달팽이 구조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은사 중심의 새가족 전담사역자를 소수라도 세울 때, 새가족 정착에 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114]

2. 신학적 접근(Theological component)

1) 빵을 찾아 헤매는 새가족

교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교회가 예배당을 사용하고 소유할 수는 있어도 예배당 자체가 교회가 될 수는 없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고, 교회는 사람들 그

---

[114] 2010 사역자 명단 : 문경일, 박진두(박희순), 신동순(신은정), 이경학(김경민), 이홍정(이미자), 정현정 10명으로 조정한 후 매월 역할을 바꿔가며, 새가족 돌봄에 집중하게 되었다.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115] 초대교회를 살펴봐도 예배당 건축에 대한 언급보다는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116] 초대교회는 성령강림 사건 이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새가족들이 늘어났다.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는 새로운 동역자들이 필요했다. 사도들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웠고,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준 것이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집사들에게는 구제와 각종 봉사하는 일을 맡긴 것이다.

바클레이(W. Barclay)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배움과 교제가 있으며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통용하는 교회로서 당시 교인들은 상호간에 타인에 대한 두터운 책임감이 있었고 교회가 일단의 형제가 될 때에만 참 교회가 된다고 하였다.[117] 그 결과 새가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려진 사역은 역시 빵에 관한 것인데, 영적인 양식인 말씀 전하는 것과 육신의 양식인 떡을 떼는 것이었다. 나일스 박사(Dr. T. Niles)는 복음 전파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해주는 것이다.”고 아주 쉽게 정의하고 있다.[118] 먼저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거지라고 규정하고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

[115]정성욱, *스피드 조직신학*(서울: 홍성사, 2007), 167-168.

[116]개혁개정판, 사도행전 2:46-47.

[117]William Barclay, *사도행전*, 정혁조 역(서울: 기독교문사, 1994), 49-52.

[118]John Mackay, *에큐메닉스-세계교회운동원론*, 민경배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89.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냄새나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신자는 불신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빵을 찾았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119] 기록하고 있다. 신자는 값없이 불려간 그 잔치에서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맛보아 알고 영혼의 근원적인 굶주림을 해결 받은 자들이다. 물론 여전히 스스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는 거지이지만 동시에 주님 안에서 생명과 죄사함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브루스(F. F. Bruce)에 따르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와 함께 함께 거하며 메시아 안에서 하나라는 깊은 의식 아래 개인의 소유를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였으며, 성도들의 모임은 교제의 만찬(The Communal meal)을 특징으로 하는 '하부라'(haburah)라 불리는 자치적인 모임이었다. 그 모임 내부에서는 기쁨을 갖고 서로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대했으며 밖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선행을 행하였다. 여기서 브루스는 순전한 마음은 '관대한 마음'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하면서 주께서 받으신 자들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은 그 모임에 속한 자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밝혔다(롬15:7).[120]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풍성한 만찬으로 인해서 영육간의 채워짐을 날마다 늘어나는 새가족들에게 누구나 관대함으로 환영하며,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뉴욕새교회는

Dr. T. Niles 는 세일른 출신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한 동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총무를 역임.

[119]요한복음 6:35.

[120]F. F. Bruce, *사도행전 상*, 이용복.장동민 역(서울: 아가페출판사, 1986), 103.

어느 면에서나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양육시스템과 조직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다. 기존 성도들에게는 주일 말씀 또한 풍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바라본 입장에서 새가족들에게는 결코 만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가족들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섬김과 나눔을 위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새가족들은 여전히 빵을 찾아서 교회 안팎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2) 채워지지 않는 말씀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동시에 교제 공동체이다. 첫째,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이다. 구약성경에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속박과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을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출3:12)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출8:1)고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사건으로 육체적으로 속박에서 벗어난 것 뿐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공동체로 변화되었다.[121]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Ecclesia)라 하는데 그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 부활에 응답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

[121] 박준서, “구약에 있어서의 예배의 의미” *기독교 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380-381.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공동체를 의미한다.[122] 한스 큉(Hans Küng)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를 나타내는 용어로 정착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일 특히 예배의 모임이 거듭 되풀이됨으로써 집회, 공동체, 교회라는 의미로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정착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교회를 나타내는 독일어 Kirche나 영어의 Church가 의미하는 것도 바로 예배라는 공동체의 현실적인 집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123] 개혁교회의 중심적인 신앙 지침서 중의 하나였던 제2스위스 신앙고백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교회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의 동참자들이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며 예배하는 무리들의 공동체"라고 답하고 있다.[124]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로서 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라는 개념의 공동체가 곧 교회임을 충분히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별히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는 예배 예전의 순서 속에서 성례전을 통하여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으며 성경에 기록되어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변함없이 사역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가족이라는 면에서 더 이상 이견이 없다.[125]

둘째, 교회는 교제 공동체이어야 한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교인들은 먼저 식사를 통한 교제였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

[122]P. C. Hodgson, *교회론의 새 지평*, 박근원 역(서울: 진흥, 1996), 224.

[123]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왜관: 분도출판사, 1984), 88.

[124]박근원, *오늘의 예배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106.

[125]김소영, *현대예배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82.

먹고'(행2:46)라고 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어나는 새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다음은 영적인 친교였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2:42)라고 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며 서로 기도에 힘쓰는 영적인 교제가 활발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교제였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행2:44-45)라고 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였다.

에밀 부르너(Emil Bruner)는 "성서적 의미의 교회란 제도가 아니라 형제됨이며 사람들 사이의 순수한 교제"라고 하였다.[12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 속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패러다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다. 특히 제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즉 "생명과 사랑의 진리로 이루어지는 교제"로 기술되고 있다. 교회는 제도 또는 가시적으로 조직화된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내적이지만 신조, 예배, 교회적인 친교라는 외적인 끈들로 인하여 표면화되는 인간들의 교제라고 볼 수 있다.[127] 이 교제 공동체에로서의 교회를 결속시켜주는 끈은 성령의 내적 은총과 은사들이며 이러한 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 결속은 그 어떤 결합보다 강하고 더 깊고 친밀한 신비적인 결속이 되는 것이다. 믿는 무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을 중심으로 보이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귐은 이상(理想)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현실(現實)이고, 또한 이 현실은

---

[126]Emil Bruner, *The Misunderstaning of the Church*(London: Lutterworth, 1952), 17.

[127]Dulles, *교회의 모델*, 47-48.

심적(psychic)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pneumatic) 것이다.[128] 결국 새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영적인 누림을 가져야 한다. 영성은 마치 짓눌린 영혼을 펴주는 영적인 보톡스 주사와 같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식어져 갈 때, 다른 것에서 그것을 대신할 것을 찾는다. 특히 정착하지 못하는 새가족들은 은혜 받을 영적인 것들을 찾아서 방황하게 된다. 하지만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새가족을 비롯하여 십대, 청년, 노년,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교회가 영적인 배고픔을 찾아내어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Gary Thomas** 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29]

첫째,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나 계몽하거나 더 나아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려는 탐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려는 탐구이다. 이러한 탐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며,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하나님에 의해 가능해진다. St. Augustine 은 “그리스도께서는 지도자로서 우리를 이끄시며, 길로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이끄시고, 우리의 고향으로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achieve)이 아니라 ‘받는 것’(receive)이다. 우리의 잠재력과 행동은 전적으로 우리 삶보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취하는 사람’이 되려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

[128]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31.

[129]Gary Thomas,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전의우 역(서울: CUP, 2006), 25-35.

성취하는 자는 자신에게만 주의를 집중시킨다. 반면에 받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공급자에게로 돌린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한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안타깝게도 주관적이며 무섭고 난해하고 신비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란 말은 공중에 떠 있기 더 좋아하며, 논리나 이성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거나 교회 단체에서 표현되어지는 영성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개척자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개척자인 것은 우리보다 먼저 개척한 사람들의 깊은 바퀴자국을 따라간다는 의미일 뿐이다. 옛 영성가들도 우리와 똑 같은 유혹을 만났고,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타인 중심적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고통과 의심과 기쁨을 함께하는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 되라는 소명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바리새인의 다른 점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려 했던 반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해방되도록 도우려 하셨다는 점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재발견하는 첫번째 단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영적 성장은 우연의 결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분만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협력을 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움직임을 강요받으실 때, 성장은 위험에 처하며 필요 이상으로 느려진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세대를 통해 세운 많은 목표를 살펴보는 것은 유익이 된다.

이들 목표 가운데 몇몇은 전통적이며 복음주의적인 구조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목표들에 친숙해짐으로써 자신의 영적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John Climacus 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빠르게 용서 받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빠르게 냉정함을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시간과 갈망과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는 신자들을 '냉정함' 으로 인도하려 했다. 여기서 냉정함(dispassion)이란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열정을 천국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는 방향 전환을 말한다.[130]

16 세기 십자가의 요한(John of the Cross)은 '신적연합' (divine union)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이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 이라는 영적 어려움의 여러 단계를 통과한 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영적 결혼이다. '신적연합' 은 하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요한은 이 연합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연합은 평생의 섬김과 헌신을 요구하며, 그런 후에도 이 연합이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무지의 구름』(*The Cloud of Unknowing*, 바오로의 딸)을 쓴 익명의 작가는 하나님을 그대로(the naked being of God)보라고 말했다. 이 작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촉구한다. "큰 용기와 결단으로, 헌신적이며 유쾌한 사랑의 활동으로 '어둠' 을 넘어서고 당신 위에 있는 어둠을 뚫어야 한다. 당신은 간절한 사랑이라는 날카로운 창으로 두꺼운 무지의 구름을 찔러야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131]

---

[130]Ibid., 39-40.

[131]Anonymity, *The Cloud of Unknowing*, trans. Ira Progoff(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83), Ⅵ:4.

본 연구자는 하나의 목표를 전개하면서 예수님을 모델로 들 수 있다. 영적 진보는 훌륭한 목표이다. 그러나 영적 진보 자체에만 진중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일차적인 관심과는 전혀 동떨어져 보인다.

이것은 우리를 ‘행동’대 ‘생각’이라는 해묵은 논쟁으로 되돌린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목표를 설정할 때, 내적 성장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사회적 행동보다 우월해 보일 때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광야로 들어가거나 수도원을 세우기 위해 세상을 버린다는 개념이 성장했다. Gary Thomas 는 “삶에서 우리의 정거장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변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 현실을 무시할 때 우리는 위험에 처한다.”[132]고 삶에 뿌리 박은 영성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Richard J. Foster 는 “진정한 기도는 생활을 변화시키고 또 생활을 창조한다."[133]라고 한다. 영적 훈련이 숨은 비결이나 비밀스러운 주문, 정신운동이나 환각적 초월의식을 행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꽂 피우실 은혜의 통로와 같다.

예수님은 행동하셨지만, 서른이 될 때를 기다리셨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행동하실 때 결코 자신의 영적 중심을 잃지 않으셨으며,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우리 목표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것은 사색과 공적사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은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관계이다.

---

[132]Gary Thomas,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전의우 역(서울: CUP, 2006), 264.

[133]Richard J. Foster, *영적훈련과 성장*, 권달천.황을호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56.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번째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정의되는 것을 본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의 배타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하시듯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마 22:36-40)고 대답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분을 향한 그의 사랑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내 양을 치라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였다.(요 21:16) 양을 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야 한다. 새가족들이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 머물지 않게 된다.

NCD(Natural Church Development)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등록한 새가족이 본 교회를 다니기로 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34]

<표15> 등록한 새가족이 본 교회를 다니기로 한 이유 참석인원 = 160명

내용	백분율	응답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44.4%	71명
교회가 집에서 가까워서	22.5%	36명
기타(무응답)	18.1%	29명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5.6%	9명

그리고 새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134]http://blog.daum.net/lee_ys/16062908/07.16.2008./NCD 에서 수영로교회 새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표16> 새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 참석인원 = 160명

질문	내용	백분율	응답자
1	좀 더 바르게 살고 싶어서	39.4%	63명
2	진리를 알고 싶어서	17.5%	28명
3	어린 시절 다녀서	12.5%	20명
4	왠지 불안해서	10.6%	17명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등록하는 계기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라고 44.4%가 응답했고, 교회를 출석하게 된 동기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56.9%이다. 이는 새가족들이 교회를 나오고, 등록하는 것이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새가족의 이동과 정착의 주원인이 주일 설교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새가족을 향한 돌봄과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양육이다. 게리 쿠네(Gary W. Kuhne)는 "새가족 양육은 실제로 생명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135] 고 말한다. 문제는 설교와 양육이 잘 되어 있어도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좋은 예로, 타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중직자나 기존신자라도 전입한 이상 새가족으로 분류되어 교회의 양육과 훈련에는 바로 참여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새가족을 위해 개설하는 새가족반 성경공부가 있지만 초신자에게는 여전히 난해하고 어려운 반면, 전입교인에게는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새가족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결국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원인이 된다.

[135] Gary W. Kuhne, 44.

3) 내러티브(Narrative, 이야기체) 성경공부

본 연구자는 새가족들을 위한 성경공부로 초신자나 전입교인 모두를 충족시킬 수 방법으로 내러티브(Narrative) 성경공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초신자들에게는 쉽고 재미있게 빵을 찾을 수 있고, 전입교인들에게는 영적인 굶주림으로부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고독한 이민생활에서 새가족들은 인정받기를 원한다. 특히 개인주의가 발달된 미국생활에서는 친구를 잃어버리고, 대화를 잃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연길 목사는 『이야기식 성경공부방법』에서 내러티브 성경공부의 효과적인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136]

첫째, 본문 위주의 성경공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며, 토의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지식 위주가 아닌 인격의 변화를 추구한다.

넷째, 대화식 성경공부를 통해서 공동체의 친밀함을 더해 준다.

다섯째, 본문의 의미를 오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여섯째, 소그룹을 통한 전교인 학습이 이뤄질 수 있다.

내러티브 성경공부를 준비하는 새가족 사역자들이 풍성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아래의 분위기 조성과 주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책상을 치워야 한다. 그래서 필기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게 중요하다.

둘째, 의자를 둥글게 해서 대화 하기에 편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언제든지 성경의 내용을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야 한다.

---

[136]이연길, *이야기식 성경공부방법*(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54-56.

다섯째, 정답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거나, 정답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오늘날 아무리 멀티미디어 시대라 해도 말씀 전달에 있어서 언어 사용은 필수적이다. 말씀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른 비언어적인 요소의 영향력도 배제할 수 없지만 말씀 사역에 있어서 언어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이다.[137] 바로 이 시대에 내러티브 성경공부는 새가족들에게 하이터치 접근으로 다가 갈 수 있는 성경공부 방법으로 오관(五官)을 다 활용한다.[138] 무엇보다 소그룹 리더가 그림언어와 비유적인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새가족교육에 참석하여 훈련하고, 학습해야 한다.

첫째, 그림으로 보기 : 본문을 그림을 그리면서, 내용을 상상하면서 읽고 질문을 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본문의 윤곽을 그려가는 작업과정이다.

둘째, 사건으로 겪어내기 : 본문에 나 자신이 직접 들어가 체험해 보거나, 아니면 이미 체험한 사건을 이야기하므로 본문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도록 하는 단계이다. 소위 객관적 말씀의 주관적 이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슴으로 이해하기 : 성경공부가 항상 지성적인 작업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가슴(heart)으로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느껴보도록 하려는 과정이다.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생활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영혼에 새기기 : 묵상의 과정으로 본문이 내 영혼에 들려주는 말씀을 듣기고 하고, 영혼으로 보여 지는 환상을 보기도 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삶에 옮겨 내기 : 생활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단계이다.

---

[137]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 361.

[138]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서울: 쿰란출판사, 2002), 185-187.

이처럼 5단계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성경공부는 감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인 대로, 그리고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야 마지막에는 삶의 차원으로 옮겨져서 생활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목적을 이루는 성경공부를 하려면 어떤 내용을 공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에 무엇보다 말씀의 언어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그룹 중심의 나눔도 말씀의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고 보면 언어야말로 인간의 삶과 존재에 뗄 수 없을 만큼 깊이 관여하고 있다. 언어는 존재를 형성하며, 창조하며, 변화시킨다. 언어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도구이며, 복음 증언의 가장 중심적인 도구이다. 언어는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생각을 담아 전달하는 것 이상의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의 실체에 이르도록 도와주며, 사람들의 세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적절하게 사용된 언어가 인지 기관과 영성을 터치할 때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다.[139] 그러므로 말씀에 있어서 어떠한 언어가 사용되어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언어가 말씀양육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1) 그림언어의 사용

Gary Smalley와 John Trend는 그림언어에 대해 “그림언어란 대화의 도구로, 내용이나 대상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감정과 지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단순히 들을 뿐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40] 오늘날 멀티미디어 시대의 회중은 메시지를 인쇄물이나 말로

---

[139]김운용, 391.

[140]Gary Smalley. John Trend, *사랑 언어 그림언어, 서원교 역*(서울: 요단출판사, 1996), 36.

표현되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림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전달받고 있기에, 말씀양육자는 이미지가 풍부한 그림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회중으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말은 양육자가 더 이상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언어보다는 회중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림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게리 스멜리(Gary Smalley)와 존 트렌드(John Trend)는 이런 그림언어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림언어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하며, 성경의 진리들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시는 주요한 방법이 되며, 복음 전도에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141]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육자는 회중에게 그림을 그리듯 언어를 묘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양육자가 이렇게 회중의 마음 속 깊이 파고드는 그림 언어를 사용할 때, 소그룹 모임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을 것이다.

(2) 비유적인 언어의 사용

우리가 비유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면 할수록 영상세대인 멀티미디어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청중들과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다. 비유가 무엇인가? “비유법은 두 개 이상의 개념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기법이다. 비유는 잘 알려진 것으로부터 미지의 것으로 나아가는 왕도”이다.[142] 그러므로 비유적 언어는 이미 그 안에 귀납법적인 움직임을 내재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 양육에 있어서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의 이유에서다. 첫째, 원래 언어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

[141]Ibid., 223.

[142]김지찬, *언어의 직공이 되라*(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105.

비유적이기 때문이다. 즉 언어는 사실만의 언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유의 옷을 입고 있는 있다는 말이다. 둘째, 성경 자체가 비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비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방식이며, “성경에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언어 역시 모두 비유적이다.”[143]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언제나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 “비유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먼저 사건이 있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함이 요청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연길 목사는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로 보자”[144]고 제안한다. 즉 성경을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된 하나의 드라마로 바라 본 것이다.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과 신약성경의 복음서 역시도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 360개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내러티브(Narrative) 접근은 상상이 담긴 이야기와 이미지 그리고 비유들을 통해서 성경공부를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새가족들에게 흥미진진한 말씀여행이 가능하게 한다. 특히 소그룹 중심의 내러티브 성경공부는 새가족 섬김이들의 돌봄과 말씀 나눔이 동시에 이뤄지기에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 지는 계기를 제공한다.

3. 심리적 접근(Psychological component)

1) 고독을 경험하는 새가족

21세기 특징인 포스트모드니즘은 상대주의, 해체주의, 다원주의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가정이 급속히 핵 가족화되거나 가족 분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 상실로 인해 정신적인 피로와 외로움, 불안감과 절망감은 이전보다 더 크게

---

[143]Ibid., 107.

[144]이연길, *이야기식 성경공부 방법*(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26.

느끼게 된다.[145] 이민사회에서 한인들에게 고독은 무서운 실존이다. 많은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다. 티나 켈러(Tina Keller) 박사는 "사람은 점점 더 고립 된다"고 말하고 있다. 고독이라는 감정이 신경질적이고 위축된 사람에게만 생긴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독감은 특별한 개인적 사건이 될 뿐이다. 그러나 고독은 만연되어 있으며 그것은 우리 시대의 정신이 낳은 결과물이다.[146] 그런 이유로 현대인의 고독감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 예민한 사람, 신경과민인 사람들만의 증세라고는 할 수 없으며,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된다. 대부분의 인간은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를 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나이테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발견하게 된다.[147] 이것은 고통과 분노를 동반하며 엄청난 파괴력으로 삶의 영향력을 끼치며, 다시금 고독이라는 깊은 내면의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특히 낯선 이민생활에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은 바로 고독감이다.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회를 찾는 내제적인 목적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교회를 찾는 새가족들의 바램은 가족과 같이 따뜻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기대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둘씩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성경에 보면 초대 교회의 사도들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

[145]임종석, *생동하는 구역, 부흥하는 교회*(서울: 두란노, 2003), 19.

[146]Paul Tournier, *고독*, 윤경남 역(서울: IVP, 1999), 21.

[147]David A. Seamnds, *상한 감정의 치유*(서울: 두란노, 2009), 20.

사용했다.”[148]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현대 사회를 향해 친교 하는 방법을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의 공로만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 신자들은 서로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며, 기존 성도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은 그들만의 여러 가지 모임으로 높은 울타리를 만들어 새가족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목회자는 새가족들이 소외 된 사역을 펼치고 있고, 그들의 신앙과는 괴리가 있는 설교로 그들의 마음은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결국 새가족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시 자신이 마음 둘 교회를 찾아 헤매게 된다. 물론 뉴욕새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을 이 지면을 통해 언급한다. 등록하고 처음 몇 주는 새가족으로 관심을 받고 출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관심 밖으로 밀려나며,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됨을 출석하지 않는 새가족들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149] 이는 정착하지 못하는 새가족들의 문제의 상당수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2) 변화를 통한 심리 불안감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기사에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발전돼 있는 지금 오히려 어느 때보다 미국인들은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며 “미국은 외로운 행성(Lonely Planet)”이라고 보도했다.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리서치(Research) 팀에 따르면 미국에선 지난 1985~2004년 20년 사이에 “자신의 고민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1명도 없다”고 호소한 사람이 무려 세 배나 늘어난 것으로

---

[148]사도행전 4:32; 2:44.

[149]2009 년 11 월 뉴욕새교회 13 기 새가족반 성경공부를 수료한 10 명의 성도들 중에서 출석하지 않는 박동원 성도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나타났다.[150] 사회적 고립감은 모든 성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수면 장애, 고혈압, 우울증 등을 초래하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자극한다. 결국 외로움이 사람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고독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고,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 실례로 오늘날 가장 많이 소비되는 약품 중 신경안정제, 위장약, 고혈압 약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약 모두가 개인의 스트레스와 연결된 것으로 월리스 크리프트(Wallace B. Clift)는 제시하고 있다.[151]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미래쇼크(Future Shock, 1970)에서 현대사회의 지나치게 빠른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의해 심리적 혼란과 고통이 따르게 되며, 이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인간의 적응은 더욱 힘들어지고, 이에 따라 스트레스가 커짐을 진단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일시적인 욕구 충족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에 의하면 교회는 오늘날 인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하며, 신(神)은 심리적 실재로써 인격적인 신의 이미지(God-image)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152] 이는 인간의 리비도(libido) 또는 정신적 에너지인 원형이라는 정신적 구조를 통하여 모든 에너지의 핵인 자기(self)로 통합되는 "심리적

---

[15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2842760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 144 호 / 01.09.2009.

[151]이재창 외 5 인, 391.

[152]Wallace B. Clift,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이기춘.김성민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235.

인간”(homo psychicus)[153]으로 무한한 것을 향한 원형적 성향(archetypal predisposition)이 있다. 이 성향은 인간을 초월해 있는 어떤 힘을 지향하고 있으며, 신의 힘과의 조화 속에서 인간의 자기(self)가 치유와 평안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디이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많은 사람들은 고독이 무서워서 사귐을 찾고, 홀로 있을 수 없어서 사람들 사이에 끼이기를 갈망한다.”[154]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회를 처음 나왔건 오래 다녔건 새가족으로 교회에 온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것이 낮설고 외로운 법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론 고독하고, 두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끼여 있는 참 힘든 삶이다. 빌1:23-24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망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육신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새가족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완전히 맡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께 올인(all in) 하며 살 수 없는 그런 어정쩡한 존재들이기에 심리적인 갈등을 많이 겪는다. 머레이(Edward J.Murray)는 “갈등이란 둘 이상의 상호 대립되는 행위에 종사하도록 동기가 부여된 상황을 의미한다.”[155] 고 정의 했다. 이런 심리적 갈등은 불안감을 불러 온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바로 변화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

[153]Ibid., 232.

[154]Dietrich Bonhoeffer, 97.

[155]최향순, *행정조직론*(서울: 동성, 1997), 432.

경험하기 때문이다.

3) 인카운터(Encounter) 세미나[156]

홀로 있는 시간은 유익하고 인간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좋은 선물로부터 단절된 시간일 수도 있다. 그 선물이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다. 마이클 스펜서(Michael Spencer)는 "인간은 고독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157] 고독과 관계 사이의 균형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늘 혼자만 있는 사람이나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균형을 잃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균형이 예수님의 영성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영성을 지닌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과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이 모두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를 먼저 떠나 보내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에서 잘 볼 수 있다.(마14:23)
하나님과 연관시키려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 하는 것이다. 루스 헤일리 바턴(Ruth Haley Barton)은 "고독은 일종의 장소적 개념이며, 그것은 하나님 만을 위곳이다. 고독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다." 고 말한다.[158]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 혼자만의 시간을 추구하면서도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이다. 그런데 새가족들이 혼자만의 깊은

---

[156]인카운터 세미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련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의하고 소그룹 나눔으로 체험적인 신앙과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훈련이다.

[157]Michael Spencer, *순전한 교회로 돌아가자*, 정성묵 역(서울: 두란노, 2011), 204.

[158]Ruth Haley Barton, *영적성장을 위한 발돋음*, 황의무(파주: 살림출판사. 2007), 47.

고독을 경험하고도 인간관계나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부재나 인간 이해의 부족과 함께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 영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삶과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성이 필요하다. 폴 트루니에(Paul Tournier)는 "개인의 내적 사고를 남에게 완전히 보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159]고 말한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고독과 암흑에서 자유 하도록 부르고 계시며, 이웃에게 진실 되게 가까이 접근하는 모든 사람은 비록 그가 신자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유별나다고 핀잔 받는 괴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전한 인간, '충만'에 이른 인간이 되는 것이다.[160]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는 것이다. 특히 관계는 기도나 대화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진솔한 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깊은 관계에 실패를 가져온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작용하는 장애물로는 자신의 두려움과 정반대되는 말을 함으로 자신을 숨기려고 하며, 화를 내거나 고집스런 침묵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결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자신만의 동굴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고자 함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페르조나(persona) 즉,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그만 두고, 자신이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들조차도 교회

---

[159]Paul Tournier,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한정건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37.

[160]John Stott,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양혜원 역(서울: IVP, 2004), 113.

공동체에서 상담전문가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솔직하게 드려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새가족들을 대하는 사역자는 상담가로서 자질을 갖춰야 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약함을 알면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자신의 단점에 대해 비판을 받을 때에 매우 예민해지기 때문이다.[161] 이런 이유로 충고보다는 자신 스스로 내면을 들춰내기 전에는 성급하게 건드리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들을 찾아내고, 동굴 문을 나서서 교회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마치 울면서 엄마의 무릎으로 뛰어드는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한마디도 안 하지만 어느새 눈물을 멈추고 아이는 다시 뛰놀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는 것처럼 교회는 어린 아이를 품에 안는 어머니처럼 포근히 감싸주는 곳이어야 한다. 새 가족와의 첫 만남에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도록 밝은 미소와 한마디 말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사랑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당한 환경과 필요한 대화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관계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다. 새 가족은 편안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162]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인카운터 세미나이다. 강의 후에 사역시간(소그룹 나눔)에 하이터치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는 하이터치 영성접근을 통해서 마음 속 깊은 것을 터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면의 깊숙이 숨겨진 고통을 새가족들이 쉽게 드려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뉴욕새교회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분열과 아픔의 상처들을 간직한

---

[161]Paul Tournier,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42.

[162]Gary W. Kuhne, 69.

채 치유와 회복 없이, 새로운 담임목회자의 시스템 속에 적응해 가고 있음을 사역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속은 골마 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몸에 병을 지니고도 어느새 훌쩍 자라는 것처럼, 건강할 때도 성장하지만 아파도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외형적인 몸은 성장했지만 체력이 약해서 쉽게 지치고 피로해진다. 몸집은 크지만 약한 체력 때문에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단연히 성장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건강이고, 건강하면 자연히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다. 월트 래리모어(Walt Larimore)는 "매우 건강한 사람들의 10가지 요소" 라는 저서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은 다양한 면을 가진 개념이라고 말한다.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샬롬(shalom)은 단순하게 질병이 없는 상태나 심리적인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원래의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며, 완벽하며, 총제적인 행복(well-being)을 의미한다는 것이다.[163]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아픈 환부를 감추고 과거의 행복했던 추억을 더듬어가며 시름을 달래고 있다. 실제로 뉴욕새교회는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Encounter 세미나(수양회)를 통해 소그룹 중심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고,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찾아가기에 군중 속의 고독을 해소할 수 있다.

4. 문화사회적 접근(Culture Sociological component)

1) 문화 속에 갈등하는 새가족

교회는 세상 밖의 그리고 세상 속의 교회이어야 한다. 어느 시대나 그

[163] http://www.samil.org/zbxe/3348/주제토론방 "성경적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05.30.2009.

시대의 문화 속에서 교회의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그 형태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고, 또한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64] 달리 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같은 문화를 공유하지만 세상 밖의 현존하는 미래를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추론하고 행동하여 기독교인으로서의 해답을 제시할 때, 우리는 부분적이고 조각난 신앙의 근거 위에서 여전히 행동한다. 우리의 해답 안에는 지극히 적은 기독교성(性)밖에 들어 있지 않다.[165] 성도는 특정 개인으로 태어나서 살고 죽지만 인류라는 보편적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에 개인의 특정성은 인류 전체의 보편성(universality)에 기여되고 한 지체로써 전체의 몸에 유기적(organically)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상대적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를 대치하게 될 때에 상대적 정의는 상대주의적으로 되는 것이다.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166] 한 여호수아의 말을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할 것인가는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세상 문화를 등지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살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회의 담은 여리고 성처럼 견고해 보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하이테크(High Tech)라는 정보통신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 최대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사이트인 페이스북 사용자가 2010년 10월 기준으로 5억 명을

---

[164]Hans Küng, 32.

[165]H. 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94.

[166]개역한글판, 여호수아 24:15.

돌파했다. 세계 인구의 8%, 인터넷 사용자의 27%에 달하는 수치다.[167]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SNS의 온라인의 만남이 오프라인의 만남을 대신하고 있다. 디지털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IT 분야만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디지털과 함께 자라나는 세대, 그중에서도 인터넷과 함께 자라온 세대를 웹 세대라 할 수 있다. 웹 세대는 디지털 웹의 발전에 따라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 2007년 3월 12일 MIT테크놀로지리뷰지는 웹3.0의 도래를 알렸다.[168] 웹1.0은 주로 1세대 인터넷이고, 웹2.0은 블로그, 댓글, 네트워킹, UCC가 가능하고, 상호소통하고 협동하는 플리커, 딜리시어스, 위키피디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웹3.0은 다양한 광대역 초고속망 핸드폰 화상대화 기술을 접목시킨 것이며, 종래의 웹서비스와 달리, 즉 온라인상에서 연구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 블로그나 기업인들이 웹에 들어와서 모든 회의나 컨퍼런스 포럼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웹 서비스인데 곧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오늘날 하이테크 시대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서로 다른 두 세대가 함께 사회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을 이어줄 새로운 대안으로 디지로그(Digilog)[169]가 등장했다. ‘디지로그’는 서로 다른 두 세대가 공존하며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이다. 21세기 첨단문명과

---

[167]http://news.hankooki.com/1page/economy/201010/h2010101521030021500.htm/04.20.2012.

[168]박영숙, *2020 미래교육보고서*(서울: 경향미디어, 2010), 188.

[169]이어령의 디지로그란 책에서 Digital+Analog 를 합친 신조어이다.

인간다움을 동시에 펼쳐갈 수 있는 '디지로그 선언'[170]은 세상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대는 점점 최첨단의 정보통신, 유전공학 기술이 삶의 자리를 지배하고 있어, 문명의 이기(利器)에 기대어 살면서 끊임없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움켜지고 또한 손에서 모바일을 놓지 않으며, 대인 관계 양상에 있어서도 동호회나 채팅과 사이버 공동체를 통한 비대면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관계 형성이 가능하며, 여가와 소비도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기에 세상 문화 속에서 사회적 접근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3-40년 전에만 해도 대한민국은 적어도 교회문화가 세상문화를 앞섰다. 하지만 오늘날은 세상 문화와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daily progress and monthly advance) 하는데 교회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고용수는 문화사회학자들의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19세기 사회의 중심 화두가 '자유'였고, 20세기가 '평등'이었다면, 21세기는 '공동체'라고 말한다.[171] 인간이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 속에서 양육되고 성장한다면, 교육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맥락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자가 뉴욕새교회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요소들 가운데 문화사회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와 교회의 모임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둘째, 새가족의 비율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데 이는 남편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여성들로 하여금 새가족으로 정착하는데 장애요소가 된다.

셋째, 이민생활의 특징상 주중에는 부부가 맞벌이로 일하고 주말에 시간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과 여행이나 취미활동 등이 장애물이 된다.

---

[170]이어령, *디지로그 선언*(서울: 생각의 나무, 2006), 32.

[171]고용수, *하나님나라와 교육목회*(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43.

이러한 문화사회적인 장애 요소들로 인해서 뉴욕새교회를 비롯하여 한인교회 대부분의 새가족들이 교회와 문화 사이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새가족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2) 문화와의 긴장관계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이 세상 변화하지 않는 것은 진리이고 본질이다.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시대마다 문화사회적 형태를 입고 존재해 왔다. 사실 문화의 개념은 사회의 개념과 더불어 사회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에 속한다. 물론 문화는 개념적으로 '사회'와 구분되지만 이들 개념 간에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는 주어진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방식 즉, 그들의 관습, 그들이 생산한 물질적 재원과 관련되며, '사회'는 공통의 문화를 공유한 개인들 상호간을 연계시키는 상호 관계의 체계를 가리킨다. 어떠한 문화도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회도 문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172] 오늘날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단절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더욱이 이민교회 안에서도 KM과 EM 간의 갈등은 다름과 틀림의 관점에서 오는 소통의 문제라고 본 연구자는 바라본다. 신 . 구세대 간의 평행선을 달리며 조화보다는 일종의 보호막을 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DMZ(demilitarized zone)을 암묵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는 서로 다른 것들이 상반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의 '이중 고리' 또는 '이중종소리'는 머리와 가슴, 이성과 감정, 목회자와 성도, 신세대와 기성세대 등이 서로 통해야 함을 기술한다. 이는 교회 안에서 본질 속의 비본질의 보호막을 걷어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학

[172]Anthony Giddens,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6 인 역(서울: 을유문화사, 1993), 50.

이론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신성한 것(sacred)과 세속적인 것(profane) 간의 구분을 통하여 종교를 정의했는데, 신성한 물체나 상징은 존재의 일상적인 측면인 세속의 영역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발달로 종교의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믿었고, 과학적 사고가 점차 종교적 설명을 대체하고 행사와 종교 의식들은 개인의 생활에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고 예견했다.[173] 포스트모던 시대에 교회가 문화사회적 접근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본질과 비본질 그리고 참과 거짓 등 옳고 그름에 판단을 잣대를 가하는데 익숙해 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절대적으로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고 나쁨으로 표현되며, 다름이 곧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른 것이기에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종교가 '혁명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에 기독교는 죄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포함했고 또한 기존의 질서에 대한 반항을 촉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존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것으로 재해석하고 있다.[174] 지금까지 교회는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변혁하며 생명의 불꽃을 피워왔다.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는 그리스도는 인간과 그 문화의 갱신자라는 사상운동을 수립했고, 사회복음의 정신면에 대한 사회과학 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나아가서 돼지죽의 품질을 개량함으로써 탕자인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폴 마셜(Paul Marshall)은 영국의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영향이 쇠퇴하면서부터라고 말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급변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

[173]Ibid., 434.

[174]Anthony Giddens, 436.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의 메시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와 상관없다고 느끼고 교회를 떠난 것이다.[175]

여가시간이 많아질수록 인간의 문화 욕구는 점점 증가하지만 주일예배를 위해서 주말을 경건하게 보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에 고착되어 있다면 새가족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다. 뉴욕새교회 역시 이런 범주에서 문화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끈을 늦추지 않는 한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갈등공동체의 실마리가 된다.

3) 문화교실

돈 탭스콧(Don Tapscott)은 신세대를 N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그에 의하면 N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통신망을 통해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세대라고 정의하였다.[176] 즉, 이들은 인터넷과 컴퓨터 뿐 아니라 디지털 매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977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자기 의존적인 독립심을 지니며 자기를 표현하는 데에 능숙하며,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관심 있는 사회의 여러 현상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무례한 기독교(IVP, 2004)의 저자 리처드 마우(Richard Mouw)는"세계교회는 싱가포르의 콩히 목사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로부터 세계교회의 부흥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콩히(Kong Hee) 목사는 싱가포르 최대인 시티하비스트(City Harvest Church) 교회의 담임이다. 20년 전, 그의 나이 25세에 20여명의 청년과 함께 시작한 CHC는 현재 출석성도가 2만7000여명에 달하는 메가 교회로 성장했다. 물론 등록 성도는 이보다 훨씬 많다. 싱가포르 인구가 550여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CHC가 얼마나 큰

---

[175]Paul Marshall, *정의로운 정치*, 진웅희 역(서울: IVP, 1997), 116-117.

[176]Don Tapscott, *N 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허운나 역(경기 안양: 도서풀판 물푸레, 2000), 49.

규모인지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CHC에는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교인 평균 연령은 26세, 콩히 목사는 그들을 매료시킨 성장의 동력이 비전과 열정 때문이라고 답했다.[177]

그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단순하게 비전에 몸을 던지고 열정에 환호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비전을 열정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전해야 하며, 기독교의 열정이 MTV(음악전문 채널)보다 더욱 짜릿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날 때 목회자는 스스로 점검해야 할 부분은 교회에 비전과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사회운동이 기존의 제도권 외부에서 집합 행위를 통하여 공통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합적인 시도로 정의하는 것[178]이라면 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운동이 조용한 혁명처럼 일어나야 한다. 21 세기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한 비전을 통해 열정적인 영성에 불을 지피며, 문화의 변혁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정신을 불신앙과 자기 봉사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봉사로 변화시키는 이 나라는 실재적이다.[179]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변혁된 문화이기 때문이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문화와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범주별로 나누어 분류하고 그 특징을 찾은 후 대안을 찾고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긴장을 가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실제보다 더 축소화하거나 삶을 이원화하는 경향 있다.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삶의 한 부분이며 완결되지 않은 삶에 참여하는

177국민일보 종교면 / 작성 이태형 선임기자 / 01.08. 2010.

178Anthony Giddens, 565.

179Richard H. Niebuhr, 281.

것이므로 단순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 세속에서의 분리 둘째, 세속과 동일시 셋째, 세속을 변혁시키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제시 한다.[180]

첫 번째, 분리 모델은 이 세상에서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할 필요성과 그럴 수 있다는 능력을 강조하는데 콘스탄티 이전교회와 재세례파와 기독교공동체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동일시 모델은 모든 피조계를 확언하며 , 모든 소명에 응답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며, 활동 할 수 있는 것으로 콘스탄틴 시대의 교회와 루터교, 국가 종교의 예가 있다.

세 번째, 변혁 모델은 문화에 대한 낙관주의적 입장을 기독교적 역사관과 인생관의 핵심으로 여기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해 간다는 입장으로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에서 제시하는 모습과 칼빈의 견해가 대표적이라고 본다. 여기서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 세 가지 문화 모델에 대해서 각기 단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적 생각을 도출한다. 먼저 분리 모델은 이단적인 데에 까지 나아 갈 수 있게 되고, 동일시 모델은 이 세상에 동화되어 기독교 메시지를 버릴 수 있고, 변혁 모델은 기독교 이상주의를 초래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세 가지 모델을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한 것이 성육신의 모델이다. 예수님은 성부의 계시로써 자연 질서나 사회질서에 자신을 맡기셨으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들로 부터는 분리하셨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변혁하신다. 복음주의자들은 분명

---

[180]Robert E Webber,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 역(서울: 토라, 2008).

사회적 책임을 가지며 성육신의 모델로 세상을 변혁해 가야한다는 주장 가운데 성육신적 교회관과 문화를 이 세대에 접목시키고 있다는 것이다.[181]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는 어떻게 포스트 모던 사회가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E-P-I-C”(Experientially, Participatory, Image-Driven, Connected)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참여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참여 문화의 시대에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를 더 원한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문화는 선택하는 문화이다. 이는 교회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고’ 만큼 ‘느낌’을 중요시하는 문화이다.[182] 이 시대 문화와 가치관 속에 살던 새가족들이 교회의 전통에 익숙한 기존성도들과의 소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동호회 같은 소그룹이다. 이런 모임들이 마련되어 관계적 자아로서의 인간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안정감을 누리고 공동체에 더욱 결속력이 생긴다.[183]

교인분포를 볼 때, 새신자 60%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만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이 개발보다는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성서의 이름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침묵과 인내와 희생을 강요해 왔다.[184] 여성신학자 엘리자베트 몰트만-벤델(Elisabeth Moltmann-Wendel)의 말처럼 ‘선하고 온전하며, 아름다운 인간성의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여성 새가족을 위한 동호회 모임으로는 독서모임(로뎀나무 아래),

---

[181]Ibid., 195.

[182]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서울: 좋은씨앗, 2002), 101.

[183]강남순, *현대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70.

[184]Ibid., 4.

비트공예(Crafts & art), 여성합창단(아줌마 합창단) 등으로 여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남성과 혼성을 위한 활동으로는 놀이교실, 기타교실, 하이테크를 활용한 하이터치 영화교실, 포토스쿨 등 건전하고 유익한 활동들이 다양한 동호회 모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그룹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실이 늘어날 때 문화의 긴장관계가 해소되고,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수용함으로써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게 된다.

Ⅴ. 과제시행(Project Enforcement)

인간의 자존감을 세워 주는 세 가지 감정은 소속감과 가치감, 그리고 자신감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소속감이다. 교인들의 소속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각 개인이 존중될 수 있는 소그룹에 속할 때이다. 반면 소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늘 손님처럼 어색하게 처신한다.[185] 고든 맥도날드(Gordon McDonald)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뒤통수나 쳐다보고 있는 한 친밀감은 생길 수 없다. 대형교회는 건강한 소그룹을 잘 혼합해 운용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은 대규모 집회만 가지고는 자라지 않는다. 믿음 안에서 자라고 싶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소그룹에 속해야 한다."이런 이유들로 인해 새가족 정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소그룹을 중심에 두고 하이터치 세 가지 영역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하이터치 감성접근으로 기존의 논리와 지성중심의 성경공부 방법을 탈피하여 이야기와 이미지 그리고 상상력이 담긴 비유 등을 통해서 말씀여행을 하는 방식이다.

둘째, 하이터치 영성접근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Encounter 세미나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과 자아상을 확립하는 영성훈련의 방식이다.

셋째, 하이터치 문화접근으로 교회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공동체적 소통을 갈구하는 새가족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실을 통하여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1. 하이터치 감성접근 - Narrative Bible Study

---

[185] 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139-140.

1) 변화와 닮음

뉴욕새교회를 비롯하여 미국 한인교회에서 명목상의 교인(nominality)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명목상의 신자들은 예배에도 참석하고, 헌금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상황이 변하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다. 이런 문제는 이민교회가 그 동안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줄기차게 노력해온 결과이다. 이제부터라도 명목상의 철새 교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이 신앙의 기초를 놓기 위해 성경공부나 다양한 양육과 훈련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대부분 하고 있다. 성경공부의 목적은 변화(transformation)와 닮음(imitation)이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경공부는 죽은 것이다.[186]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공부를 하기는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공부 방법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자는 이연길 목사가 연구한 이야기식 성경공부(Narrative Bible Study)를 도입하여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했다. 기존의 성경공부교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1)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인간의 두뇌는 크게 분류하면 우측 뇌와 좌측 뇌로 분류한다. 물론 사람의 뇌를 두 부분으로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될수록 우측 뇌와 좌측 뇌로 나누어진다는 주장이 더 강조되고 있다.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은 이 두 가지 뇌를 다 사용할 때 일어난다. 성경공부도 좌측 뇌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고, 섬세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러면 우측 뇌는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아주

---

[186]Ibid., 184-185.

특별한 진리들을 터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내용을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좌측 뇌가 분석해서 우측 뇌로 전달하는 과정을 디지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디지털은 어떤 사물을 작게 나누어서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7000분의 1로 나누어서 보냈다면 받는 사람이 그것을 합성하면 아주 정밀한 사진으로 만들어져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을 500분의 1로 나누어 보냈다면 정밀하지 못한 사진이 될 것이다.[187] 그러므로 성경공부를 할 때 먼저 섬세하게 그 본문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성경공부를 할 때 성경을 그림으로 보아야 한다. 성경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표 17> 양쪽 뇌의 역할 비교[188]

좌측 뇌	우측 뇌
언어기능(Verbal)	비언어기능(nonverbal)
분석적(analytic)	통합적(synthetic)
상징적(symbolic)	구체적(concrete)
추상적(abstract)	직관적(intuitive)
논리적(logical)	전체적(wholistic)
합리적(rational)	비합리적(nonrational)
일시적(temporal)	비일시적(nontemporal)
직선적(linear)	공간적(spatial)

예를 들어서 아브람에 대하여 먼저 좌측 뇌로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분석해 보자.

첫째,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왔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은 데라도 불렀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 데라와

[187]http://kr.blog.yahoo.com/pastorhahn/1009/06.25.2007./Narrative 이야기/06.11. 2011.

[188]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222.

함께 아브람이 하란으로 왔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살고 있는 아브람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신다.(창 12:1)

둘째,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정말 죽었는가? 여기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창 11:26에 데라는 아브람을 70세에 낳았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그러면 당시 데라의 나이는 145세이다. 데라는 몇 살에 죽었는가? 창 11:32에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살아 있었고 6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고 선택하신 섭리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함께 데라를 부르신다.

그러나 하란에서 다시 부르실 때 아브람과 조카 롯 만 따라 나선다.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게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축복의 통로로 나간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아무리 미술을 전공한 조각가라고 해도 실물을 한번 보고 조각을 할 수 있는가? 조각을 하다가 좀 더 자세히 모델을 다시보고 수정하고 그리기를 수십 번 해야 조각하나가 완성된다. 성경 본문을 그림 그리는 것은 한번 성경을 읽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반복해야만 그림을 섬세하게 그려나갈 수 있다.

(2) 재미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

성경공부는 재미있다. 현대인들은 재미(fun)를 즐긴다. 그래서 이제는 재미신학(fun theology)까지 나왔다. 재미도 여러 종류의 재미가 있다.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재미가 있는가 하면 무엇을 알아가(to know)는 재미도 있다. 그런가 하면 영적재미(spiritual fun)도 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도 대단하다.

그러나 알아가는 재미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저 아는 것을 즐길 뿐이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영적재미로 들어가야 한다.[189]

구약학자인 월터 브르그만(Walter Brueggemann)은 "Finally comes the Poet"에서 “딱딱한 윤리를 가르치려면 시적이고 예술적인 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듣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190] 했다. 인간에게 지식만으로 닿지 않는 곳도 이야기나 이미지가 마음에 작용할 때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터치를 통해 사람들은 영적 기쁨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이 ' 꿀 송이 보다 달다.'고 한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는 고백은 이런 경지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 그 부분이 터치되며, 변화될 수 있을까?

① 성경을 보는 데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가 있다.

책을 읽는 데 마음의 거리가 있다. 이것을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라고 말하는 데, 심리적 거리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객관적 거리(objective distance) 둘째, 근접 거리(close distance) 셋째, 동일화 거리(identifying distance) 속독을 '객관적 거리'라고 한다면, 지식을 위주로 하는 성경공부는 '근접 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식 성경공부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3번째인 '동일화 거리(identifying distance)'이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성경 속에 자신이 들어가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거리, 성경이야기에 나오는 인물과 자신을 동일화해서 생각하는 거리에서 성경을 보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성경이 자신에게 주시는

---

[189]http://kr.blog.yahoo.com/pastorhahn/1010/07.01.2011.

[190]Walter Brueggemann, *Finally Comes the Poet*(Minneapolis: Foetess), 85.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한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고 상당히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서 일어나는 법이다. 간단히 단계를 설명한다면, 변화란 알고 (knowledge), 이해하며(understanding),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feeling), 그 느낌을 통하여 하이터치(High touch)가 일어나고, 이 영적 터치를 통하여 결단(making decision) 할 때 일어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경공부에서 이 과정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본연구자는 아래 그림을 통해서 변화의 단계를 도식화했다.

<그림6> 변화의 단계도식화

② 깊이 있는 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성경공부 방법은 관주식 방법이다. 예를 들면, 영생이란 무엇인가고 묻고,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고 고백하는 식이다. 이 방법은 간단명료해서 대답하기 쉽고 암송하기 쉬운 점이 있다. 반면 약점도 많고 위험한 요소들도 많이 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나타난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은 변화의 첫 단계인 아는 것 (knowing)과 이해 (understanding) 단계에 멈추고 마는 약점이 있다. 그런 정도로는 영혼까지 말씀이 침투해 들어갈 수가 없다. 인간은 머리의 작업과 가슴의 작업이 분리되어 있어, 성경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가슴이 닫힐 수 있다.[191]

그러므로 성경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전체의 내용의 맥락 속에서 중심인물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motive)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동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의미(meaning)를 찾아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영혼의 터치는 단순한 사건의 진술이 아닌, 행동의 동기를 들려줄 때 일어난다.

③ 하나님의 마음을 발굴하기

본 연구자는 내러티브 성경공부 접근을 통해서 성경이 탁월한 언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이라는 사실이다. 성경이 소설과 분명히 다른 것은 성경은 fiction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문학적 작품이란 점이다. 표현 방법에도 놀라지만, 한마디 말 속에,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심오한 진리 때문에 더욱 놀라게 된다. 성경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문체와 내용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는 오랫동안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다가 기록된 형태이기에 이야기(Narrative)였음을 뜻한다.[192]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공부할 때, 이제까지 들어왔던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193] 그러나 그런

---

[191]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196.

[192]Ibid., 206.

[193]누가복음 10:25-37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내용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점은 사마리아 인이 강도만난 유대인을 도저히 사랑하고 도울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는 문제이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설명해 준다. 영어 표현으로 이 '컴패션'(compassion)은 함께 고통하며 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며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공감하시고 아파하실 수 있는 것이다.[194] 결국 불쌍히 여기다 는 말은 성경의 아가페와 통하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문화와 조건을 뛰어 넘어서 도와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다. 좀 더 깊이 다룬다면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이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사건을 통해서 보여 주고 있다. 사마리아 인이 한 행동을 닮으라고 할 때, 많은 조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행동의 동기를 다루었을 때는 그런 조건과 환경적인 장애가 극복되고, 행동으로 옮기기에 장애되는 모든 문제가 안개처럼 거친다.

(3) 변화와 이야기식 성경공부

변화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대화식이어야 한다. 소그룹 운동은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195]

---

[194]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1405419&cp=nv 국민일보 쿠기뉴스 / 11.08.2009.

[195] http://kr.blog.yahoo.com/pastorhahn/1013/07.01.2007.

수감자들을 소그룹으로 모아 놓고, 주제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고함치는 사람,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에 대한 고조된 감정들이 이야기되어지다가 후에는 자기 가족들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임을 계속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순화되고 가정을 생각하며, 가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깊어지면서 모범 죄수들이 되어 갔다. 교사가 가르치고 그룹원은 듣는 방법의 교육은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렵다. 변화를 위해서는 소그룹이어야 한다. 직접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말씀을 놓고 상상하기도 하고, 자기를 성경 안에 넣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자신이 주님 앞에 서 보기도 하고, 본문 안에 주인공이 되어 보기도 하면서, 거기서 느낀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의 마음에 결단과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삶의 고백이 이뤄져야 한다. 성경과 자기의 삶이 직접 부딪치지 않으면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체험한다. 또 자신의 현실을 내놓고 이야기하면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룹에 온다.

그러므로 성경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모두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것을 스테펜 패리스(Stephen Farris) 교수는 ' 아나로기(analogy)' 즉 감정이입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결국 성경에 인물과 자기를 동일화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든, 자기 이야기든지를 나누면서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을 교정하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한다. 마치 성경의 내용을 드라마처럼 생동감 있게 본 후에 그 속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긴다는 것이다.[196]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준 이야기도 사실은 무엇을 가르치려는 목적 보다는 바른 시각을 보여주므로 잘못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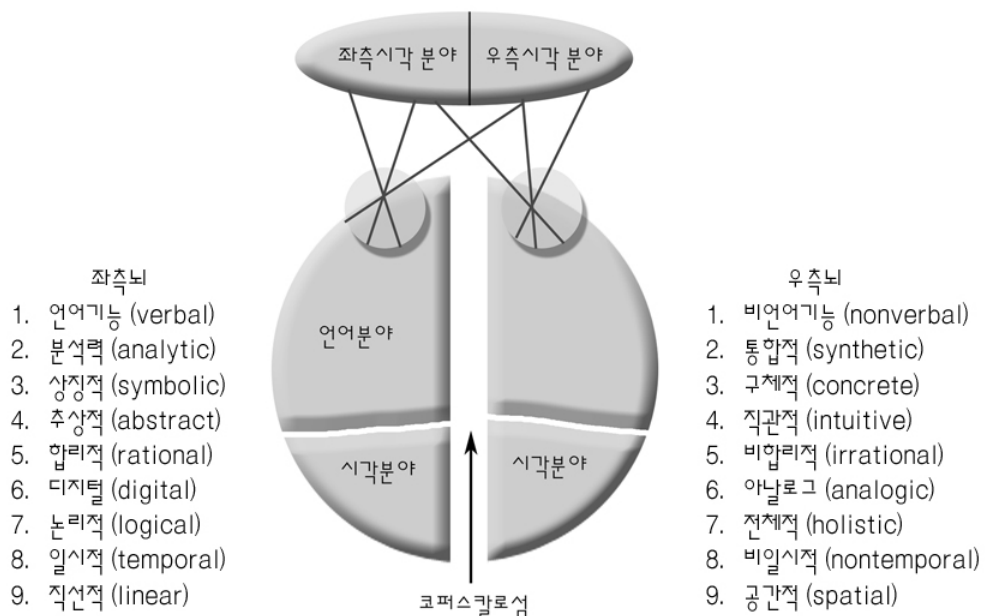
[196]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219.

시각을 바로 잡고, 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해주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룹에서도 그룹 원들은 동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교정하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결국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룹 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치 자기들이 성경의 인물과 동일화하면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럴 때 장난기가 나오고, 웃음이 터지고 즐거움이 고조되면 learning은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그룹이 모여 성경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서론에서 모은 많은 성경 내용의 파편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다음 단계는 그걸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것을 해석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하나를 맞추어 보면서, 그곳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2) 내러티브 성경공부의 원리

<그림7> 인간의 좌우 뇌의 기능

좌측뇌
1. 언어기능 (verbal)
2. 분석력 (analytic)
3. 상징적 (symbolic)
4. 추상적 (abstract)
5. 합리적 (rational)
6. 디지털 (digital)
7. 논리적 (logical)
8. 일시적 (temporal)
9. 직선적 (linear)

우측뇌
1. 비언어기능 (nonverbal)
2. 통합적 (synthetic)
3. 구체적 (concrete)
4. 직관적 (intuitive)
5. 비합리적 (irrational)
6. 아날로그 (analogic)
7. 전체적 (holistic)
8. 비일시적 (nontemporal)
9. 공간적 (spatial)

내러티브(Narrative) 성경공부는 7-12명 정도 구성된 학습자들이 한 사람의 훈련받은 지도자의 인도 아래 정해진 시간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4단계의 과정[197]을 통하여 문서로 고정되어 있는 성경본문의 내용을 문서화되기 이전상황의 이야기 또는 사건으로 상상 속에서 그려보고 재현해 봄으로써, 그룹 역학(dynamics)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 본문의 의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 메시지를 따라 전인적(지.정.의)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는 작업이다.

(1) 내러티브 성경공부의 실례1 <누가복음19:1-10 /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인도자와 학습자는 본문에서 생략된 내용을 상상해 낸다.

질문1, 당시 삭개오의 나이와 키가 얼마였는가?

질문2,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얼마나 컸을까?

질문3, 삭개오와 예수님은 여리고성의 어디쯤에서 만났을까?

질문4,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은 어떠했을까?

질문5, 삭개오의 집까지 걸어오는 도중에 두 사람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등을 묻고 대답해 봄으로써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의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

(2) 내러티브 성경공부의 실례12 <창세기2장>

질문1, 네 개의 강들이 발원하는 에덴동산의 규모는 얼마나 컸을까?

질문2, 에덴동산을 현대적 공원에 비교하여 상상해 볼 때 이 공원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었을까?

질문3,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결혼식의 주례는 누구였으며, 주례사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

[197]http://kr.blog.yahoo.com/pastorhahn/1014/07.01.2007.

등을 묻고 대답해 봄으로써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의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 성경본문을 내러티브 즉 이야기체 또는 대화체로 구성된(드라마 형식의)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쓰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이것이야 말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기 때문이다.[198]

본문을 그림을 그리면서, 내용을 상상하면서 읽고 질문을 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본문의 윤곽을 그려가는 작업과정이다.[199] 성경공부의 첫 번째 단계에서 성경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려는 동기는 성경에 대한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분명히(성서 원어이든 번역이든 간에) 문자로 기록된 하나의 문학이다. 이 문학의 문자화(또는 문서화) 되기 이전의 상태는 본래 어떤 구체적 사건을 묘사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었으나 문자화되는 과장에서 필연적으로 그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축소되거나 생략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문자화된 모든 성경 본문의 배후에는 예외 없이 이야기 형태로 전해진 어떤 사건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축소되거나 생략된 형태로 주로 간접화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성경 본문 배후에 본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성경본문의 문자 안에 들어있는 본래의 사건을 되살려 내어 이야기체 또는 대화체의 직접화법으로 구성된 소설이나 드라마로 재건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중요한 작업이 소그룹을 통해서 역동적이게 된다. 소그룹 중심으로 성경본문이 안고 있는 본래적 사건의 실제 생활을 대화를 통하여 이야기체로 재건할 수 있게 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성경본문이 학습자들에게 주는 생생한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게

---

[198]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219.

[199]Ibid.,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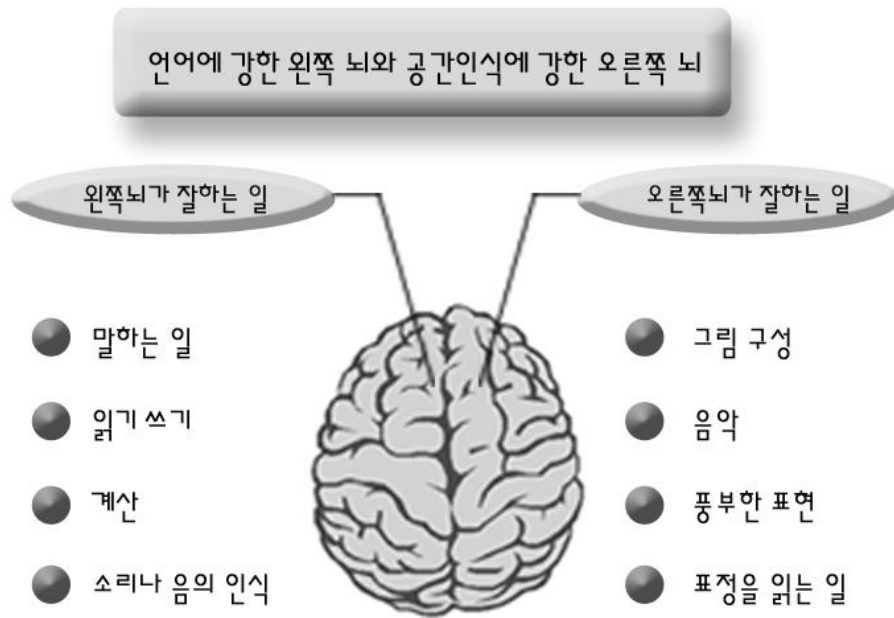
된다. 학습자가 그룹 Dynamics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름 아닌 대화이고, 이 대화는 인도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누가복음 10:25-37에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며, 진정한 자기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학적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 불리 우는 이야기(Narrative)를 들려주신다. 그 다음, 강도만난 사람 곁을 지나간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는가를 물음으로써 율법사를 가르치셨다. 마찬가지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은 어떤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진술보다는 이야기(Narrative)를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탕자의 비유"였다.

성경 본문을 이야기체로 바꾸어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학습자가 사건의 재현을 통하여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재미와 감동, 이를 통해 학습자가 본문의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다는 강력한 효과 때문이다. 소설은 아무리 읽어도 싫증나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고 감동적일뿐만 아니라 그 줄거리가 쉽게 잊혀 지지 않으며, TV 드라마나 영화도 이 점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이들 모두가 이야기식으로 독자 또는 시청자들에게 가슴을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이다.[200] 이야기식 성경공부 원리가 기존의 다른 어떤 성경공부 원리보다 새롭고 발전적이고 창의적임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요소 중 그 하나는 해부학적 관점이다.

<그림8> 언어에 강한 왼쪽 뇌와 공간인식에 강한 오른쪽 뇌

---

[200] http://www.brain21.kr/base/brainsc/brainsc_01.php?section=01/04.28.2008.

인간의 두뇌는 두 개의 뇌, 즉 지성을 관장하는 좌측 뇌와 감성을 관장하는 우측 뇌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성경공부가 좌측 뇌 중심의 방법이라면 이야기식 성경공부는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우측 뇌 중심의 방법이다. 가장 이상적인 성경공부는 좌측 뇌와 우측 뇌가 균등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현대인의 지성인들이 좌측 뇌 중심의(서양식) 교육환경에서 성장하여 좌측 뇌만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내러티브 성경공부를 통해서 우측 뇌를 계발하여 하이터치 접근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논리적인 글과 설명 보다는 더 많은 경우, 이야기와 그 이야기로 그려지는 그림과 행동으로 우측 뇌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는 재미있고, 보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배려한 예수님의 하이터치 접근이었다.

좌측 뇌가 주로 수학교수와 같은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발달되어 있음에 반하여 우측 뇌는 주로 예술가와 시인들에게서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가 주어진 명제를 이론으로 분석하고 증명하는 일에 숙달되어 있음에

비하여 후자는 머릿속에 상상과 영상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가슴으로 느낀 것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에 숙달되어 있으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뇌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교육방법은 분명히 우측 뇌 중심의 교육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신적인 방법이 발견된 이상 이 방법을 현대의 성경공부에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수님의 신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현상이나 하늘나라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위하여 저자가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 요한은 그림과 상징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황금길, 진주문, 유리 바다 등으로 접근하고 있다.[201]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지금까지 좌측 뇌 중심의 지능적 교육에만 길들여져 있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교육마저도 주로 이 방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성도들은 성경의 사건과 메시지를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은 성경의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연출하고 있다. 현대의 성도들에게 메마른 우측 뇌를 계발하여 좌측 뇌와의 균형을 맞춰주고,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통해서 전인적인 교육을 소그룹 내러티브 성경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1) 사건으로 겪어내기

성경본문의 내용 곧 과거의 이야기를 사건화 하여 그림으로 그려내는 작업이 첫 단계(그림으로 그려내기)에서의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 한다면, 두 번째 단계인 "사건으로 겪어내기"에서의 학습자의 과제는 앞서 그린 그림 속의 사건을 현재화 하여 그 사건 안으로 학습자가 직접 들어가 재연해 봄으로써 성경속의

[201]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223.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직접 겪어보는 것이다.[202]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이야기식 성경공부는 과거의 귀납적 성경공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 귀납적 성경공부에서는 성경속의 사건을 현재의 학습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지 일회적으로 끝나버린, 하나의 과거 사건으로 간주하여, 마치 해부학 교실의 의학도들이 수술대에 올려 진 시체를 분석하듯, 문학 평론가가 주어진 작품을 분석하듯,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성경 속의 사건이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는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식 성경공부 에서는 "사건으로 겪어내기" 작업을 통하여 학습자가 성경속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주인공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성경의 내용이 학습자와 상관없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학습자와 긴밀히 결속된 의미 있는 사건, 즉 학습자의 가슴을 터치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성경 속의 주인공이 되어 보기도 하고, 성경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직접 그 사건을 겪어보는 것이 중요하다.[203] 이때에 다음과 같은 과제 또는 질문이 주어지게 된다.

(2) 가슴으로 이해하기

가슴으로 이해하기는 이야기식 성경공부의 5단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다. 학습자는 여기에서 비로소 성경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 즉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느끼고 감동 가운데서 가슴에 새기게 된다. 성경공부가 항상 지성적인 작업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가슴(heart)으로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느껴보도록 하려는

---

[202]http://kr.blog.yahoo.com/pastorhahn/1015/07.10.2007.

[203]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187.

과정이다.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생활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이다.[204]

본문이 선악과를 다루는 본문 창세기3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묻고 대답하며 본문의 핵심 의미를 찾아 가슴에 새기게 된다.

첫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를 주고,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나?

둘째, 현대의 성도에게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나?

셋째, 선악과와 십계명 제 1계명은 어떤 관계가 있나?

(3) 삶에 옮겨내기

훌륭한 성경공부는 학습자에게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성경공부이다.[205] 이 단계 "삶으로 옮겨내기"는 학습자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변화된 자신의 신앙과 성품을 표현하고 고백하게 해 준다. 학습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고 터득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명상하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학습자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새롭게 결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206] 앞의 세 단계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가슴으로 느끼는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공책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자 결단한 내용을 기록해 놓도록 권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주어져 있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굳게 결심한 중요한 내용까지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결단을 돕기 위하여 제기되는 도전적 질문들을 창세기 2:4-25에서 두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204]Ibid., 187.

[205]http://kr.blog.yahoo.com/pastorhahn/1017/07.10.2007.

[206]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187.

첫째, 선악과는 개인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교회)를 지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의미상으로 볼 때 현대에도 선악과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며, 당신은 그 선악과를 지키고 있는가?

둘째, 에덴동산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 느낌을 말해보자.

3) 내러티브비평(Narrative Criticism)

내러티브비평(Narrative Criticism) 시작은[207] 1977년 데이비드 로즈 (David Rhodes) 의 복음서 단편 연구로 시작- Narrative Criticism 단어 사용 1982년 데이비드 로즈(David Rhodes), 돈 미첼(Don Michie), 마크(Mark) as Story 복음서를 문학작품으로 읽음 현대 시대 상황: Postmodernism(후현대주의) 해체주의와 비평주의에서 오게 되었다.(해석학) 특히 베이비부머(baby boomer, 1953-65년 출생)와 X세대와 그 이후 시대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주의: 논리와 이성보다는 느낌과 감정 중시

둘째,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음- 상대적인 적인 진리

셋째, 성경본문 무시- 성경에 의미가 없다.

오늘날 우리는 비평이전 시대와 비평시대를 지나서 비평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다원화된 세계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특수성과 성경의 계시성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들은 이제 역사 비평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성경의 통합성을 강조하는 문학적인 성격읽기를 그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러티브 비평해석은 비평학으로부터 자연스런 발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무엇보다

---

[207]http://kr.blog.yahoo.com/pastorhahn/1048.html?p=1&pm=l&tc=1&tt=1307894744/11.08.2009.

편집비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고, 발전한 것이 Narrative Criticism이다.

① 전체로서의 성경 본문을 인정(United, coherent text and literature)

② 이야기로서 성경인정(Narrative as the Bible)

③ 성경 그 자체로서 읽기(read as and within the world in itself)

④ 성경 스스로 보게 하고 말하게 하기(regard as autonomous)

⑤ 성경은 성경기자에 의해서 story(작은 단위)로서 말해 짐

내러티브 비평 강점을 마크 알렌 파웰(Mark Allen Powell)은 일곱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성경본문에 초점

둘째, 주어진 전체적인 이야기, 이야기를 이루는 본문들에 깊이 이해

셋째, 현재까지의 성서비평 방법을 모두 검증하고 균형 잡아 줌- 비평의 꽃

넷째, 학자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좁혀 줌

다섯째, 신앙공동체를 하나로 묶음 - 말씀으로 하나 됨

여섯째, 성경구절을 새롭게 해석

일곱째, 삶의 변화(개인/교회/사회)를 일으킨다.

마크 알렌 파웰(Mark Allan Powell)은 "내재된 독자(implied reader)가 안다고 전제하는 건 모두 알아야 한다. 독자가 모른다고 전제하는 것은 모두 잊어야 한다." 고 말한다.(What is Narrative Criticism?)

4) 내러티브 성경공부 실제

뉴욕새교회는 새가족이 등록하고 사역자(바나바)에 의해 돌봄을 받고, 처음 하게 되는 교회 양육이 새가족반 성경공부로 5주 동안 하게 된다. 교재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출판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그리스도”내용을 가지고 새가족 담당교역자가 양육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새가족 정착을 위한 소그룹 하이터치 접근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기존의 강의식 성경공부 방식에서 내러티브(Narrative) 성경공부 접근으로 바꿨다.[208] 인도자 중심의 일방적인 성경공부에서 쌍방향으로 각자의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감성접근을 하게 되었다. 내러티브 성경공부로 성장한 댈러스(dallas) 교회 이연길 담임목사는 이민목회 현장에서 효과적인 성경공부의 한 방법이라고 그의 저서 '말씀목회 패러다임'에서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새가족 성경공부는 감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성으로 그리고 영성으로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삶의 차원에서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209]

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자는 뉴욕새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반에 도입하여 내러티브 성경공부를 실제 진행하고, 연구한 자료 5과 중에서 1과 강의만 수록하고 나머지는 부록(Appendices)에 제시하였다.[210]

<표18> Narrative Bible Study1

1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도입 : 영상으로 보기 / 다시 집을 떠난 탕자 다시 집을 떠났던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나니아 연대기와 순전한 기독교의 저술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교수는 "나는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나는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의

[208] 본 연구자는 뉴욕새교회에서 사용하는 새가족성경공부 교재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국제제자훈련원) 내용을 내러티브성경공부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209] 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186.

[210] 표 18-22 는 뉴욕새교회에서 새가족반 성경공부를 위해 Narrative Bible Study 연구 결과물이다.

의미를 새가족반 성경공부 5 주 동안 경험할 것을 기대한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느끼고, 믿는 시간이 될 것이다.

▎본문 말씀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그림으로 접근하기

• 질문 1.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길의 종류를 한 가지씩 말해 보세요?

Road : 어원은 말이 달리다는 뜻의 RIDE. 즉, 말이나 마차를 타는 큰 길이다.

Street : 어원은 지층, 계층을 뜻하는 STRATA 이며, 포장된 도로라는 뜻이다.

Avenue : 양쪽에 가로수가 나란하게 있는 길이다.

Lane : 큰 차도의 한차선, 빌리지의 중앙선이 없는 작은 길을 의미한다.

Place : 동그란 광장 같은 도로 명에 사용한다.

~Way : 일반적으로 막히지 않고 뻥 뚫린 도로를 의미한다.

빗길, 눈길, 자갈길, 외길, 산길, 앞길, 뒷길, 갓길, 비탈길, 골목길, 흙탕길, 언덕길, 둑길, 샛길, 오솔길, 갈림길, 논길, 외딴길, 뒤안길, 꼬부랑길, 곧은길, 지름길, 황천길, 비단길...

사실 앞에 나열한 상당수 길은 지적도에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생긴 도로들이다. 오늘날 이런 도로를 현황도로 혹은 관습도로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니는 길을 용도에 따라서 참 많은 길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천국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길을 필요로 한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 질문 1. 자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 년 전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 언덕으로 걸어간다면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 질문 2. 구레네 시몬대신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성경에서 "길"이란 단어 앞에는 본래 정관사 The 가 붙어 있는데 이는 유일한 길, 그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길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당시에 아주 밝고 환한 큰 길을 말할 때 특별히 사용되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키는 것이 은혜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닦아놓으신 바로 그 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죄악의 수렁을 뛰어넘는 길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6:25 한평생 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걸었는데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판명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기도 하다.

▌가슴으로 이해하기

• 질문 1. 십자가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질문 2.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것인가? 혹시 다른 길이 있는가?

• 질문 3. 예수님은 자신을 왜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 가지는 연관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질문 4.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와 오늘날 액세서리 십자가는 어떻게 다른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언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행 4:12)

▪ 진리 -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정작 진리란 무엇인가? 물음에는 막막할 때가 많다.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예수그리스도는 이미 창세기 3 장 15 절(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에서 말씀하시는 '최초의 복음'이 있은 후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 장 8 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생명 -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 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 분을 믿을 이유가 없다.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죄를

가지고는 좋은 데 못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은 죄의 해결 방법이다. 모든 종교들은 죄를 가지고는 좋은 데 못 가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 값을 다 갚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죄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맞바꾸시는 신적교환이 이뤄진 것이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도덕'과 '생명'의 차이이다.

▍영혼에 새기기

• 질문 1.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상상해 봅시다. 만약 내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 질문 2. 오늘 성경공부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느껴지는가?

누가복음 7 장 11~17 절에는 '나인'이라는 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나온다.
그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청년이 된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상여를 따라가는 과부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했겠는가? 울면서 상여를 따라가고 있는 과부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상여를 멈추게 하고 죽은 그 청년을 향해 명령하셨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명령을 받자 죽은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어머니에게 갔고, 생명이 돌아 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 삶에 옮겨 내기

• 질문 1. 만일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그 증거(근거)가 무엇인가?

• 질문 2. 오늘 성경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감동 받은 것은 무엇인가?

지구상에는 230 여개의 나라가 있다. 이들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정해 놓은 법에 따라 입국할 수 있다. 어떤 나라는 비자 없이도 들어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나라가 정한 법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만일 천국에 가는 비자가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는 얻기가 쉽다.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얻는 방법은 이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도 비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찍어 주시는 천국 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오늘의 결단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하고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평생토록 내가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하이터치 영성접근 - Encounter Seminar

1) 인간과 영성

영성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는 중립적이다. 무엇보다 영성이라는 말은 인간의 총체적 차원에 있어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실체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되는데 유용하다. 그리고 영성이라는 용어는 신학적 논어에 있어서 오늘의 신학과 목회상화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중심개념이 되었다. 대부분의 종교적 영역에서 '영'(spirit)은 물질(matter)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으로 사용되는 이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어떤 규격화된 의미로 축소되는 것을 거부한다. 성서적 전통에서는 이 말이 바람 또는 호흡과 같은

개념으로 나타난다. 즉 사람의 호흡이 멎으면 그의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영의 반대 개념은 물질이 아니라 죽음이다. 호흡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하흐(רוּחַ)'에서는 인간의 영이 초월의 본질적인 역동성에 참여 또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영은 인간적 가능성의 최상의 의미에서 인간 존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이 곧 신적인 영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영은 우리들 없이도 가능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창조되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에밀 부르너(Emil Brunner)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의 창조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믿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그의 삶이 결정되며 그리고 바로 이점에서 그는 참된 인간임을 밝힌다. 인간의 영은 응답적인 영이요 실존이다."[211] 인간의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을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사실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영은 실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의 참된 의미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진다고 하는 인간존재의 근본적인 관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인간의 자연적 지식은 인간을 '자기 자신으로부터'이해하고 해석한다. 그러나 인간에 관한 성서적 이해는 자연적이고도 생물학적인 이해를 넘어서며, 인간의 영이 궁극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 살고 있는지를 묻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창조되었기

---

[211]Email Brunner, *Man in Revolt: A Christian Anthropology*(1939), 참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존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참된 인간이 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실존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인간의 응답능력을 의미하며 이로써 인간은 자신을 초월하는 실재를 체험하고 그 실재에 응답할 수 있다. 성서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응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한 그의 온전한 응답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참된 영이 비로소 온전히 실현된 것을 의미한다.[212]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교 영성의 모범이다. 산드라 슈나이더스(Sandra Schneiders)는 기독교의 영성은 "세례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이로써 믿는 자가 그의 신비에 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고 정의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10:10) 생명의 풍성함-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영성은 인간이 진리로 자유하게 되고 진리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1)영성의 시대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인간의 영은 생명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실체로서의 영(ruach -spirit)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는 의미에서,

---

[212]백상열, *목회.신학.영성-확신체험: 목회의 영성적기초*(충남: 은진영성, 2010), 135-136.

21세기는 진정으로 영성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213] 헨리나우웬(Henri J. M. Nouwen)은 그의 저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현대인에 대해서 핵 인간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하이테크 과학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상실했고,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하게 해주었던 바로 그 과학의 힘으로 인해 인간이 자멸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새로운 산업 단지들 덕분에 과거에는 수년이 걸려 생산했던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생산에 내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 산업들이 대기오염과 소음을 유발해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며, 핵 인간이 몸담고 살아가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전 세계가 최근 2011년을 기준으로 해일, 화산, 지진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대자연 앞의 인간의 한계와 문명의 무력함을 경험한 뒤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 거 아니냐"며 종말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은 2011년 3월 30-31일 양일간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634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대자의 존재와 종말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214]

<표23> 종말론 대화 경험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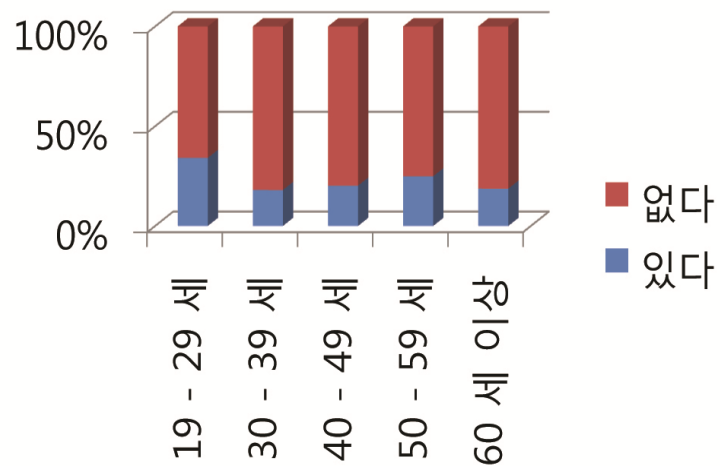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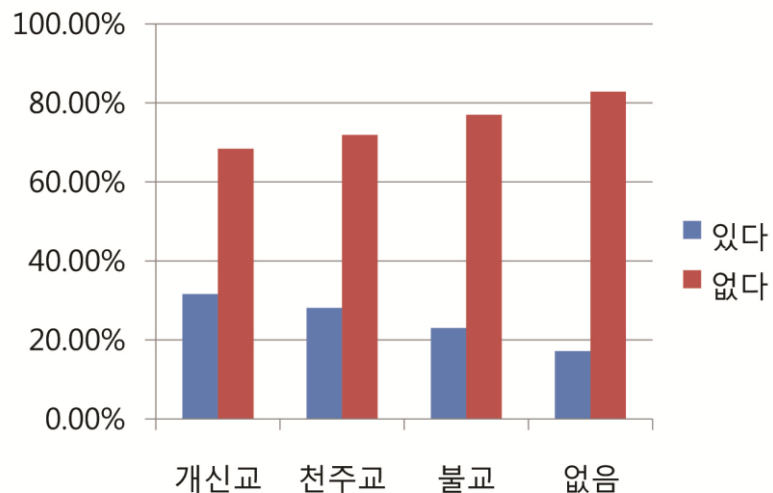
구 분	있다	없다
전 체	22.9	77.1

[213]Ibid.,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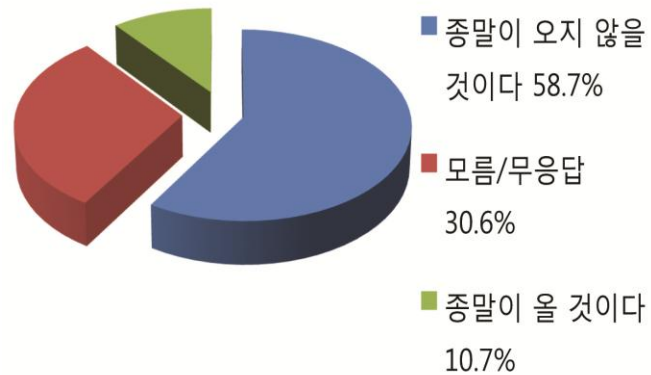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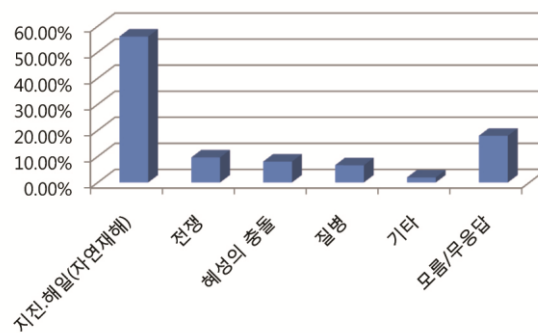
[214]http://panel.gallup.co.kr/Gate/Panel/F025.aspx?seq=15384&PageID=F023&date=Mon Jun 27 09:49:57 EDT 2011/한국갤럽/06.30.2011

성　　별		
남　　자	19.6	80.4
여　　자	26.2	73.8

<표23>에서 국민의 22.9%는 최근 지구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 '있다'고 답했고, 다음은 계층별로 살펴보면 여자 26.2%, <표24>에서 19-29세 젊은층 34.1%에서 상대적으로 종말론에 관심이 높았으며, <표25>에서 개신교 신자 31.6%를 비롯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 17.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24>

<표25>

그리고 21세기 안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10.7%이고,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은 58.7%, 모름/무응답 30.6%로 조사됐다.

<표26>

<표27>

만약 지구 종말이 온다면 무엇 때문에 종말이 올 것인지 물어본 결과,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를 꼽은 56.0%로 ‘전쟁’9.0%, ‘혜성의 충돌’8.0%, ‘질병’6.6% 등보다 많았다. 특히 21세기 내 종말이 올 것으로 예상한 집단에서 ‘자연재해’65.3%에 의한 종말을 높게 예상하였다. 하이테크가 발전할수록 분명 삶은 편리해지고, 이전에는 누리지 못하던 것을 풍족히 채우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 심리학자 로버트 리프튼(Robert J. Lifton)은 핵 인간이 처한 어려움의 성격을 몇 가지 탁월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역사적 단절, 단편화된 이데올로기, 새로운 불멸에 대한 추구 등으로 핵 인간을 특징지을 수 있다.[215]

첫째, 역사적 단절(Historical dislocation)

왜 인간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아가야 하는가? 왜 인간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하는가? 인간이 노력한 결과의 가치가 미래에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핵 인간에게는 창조적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인 연속의식(a sense of continuity)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핵 인간은 자신을 비역사의 일부로 여겨, ‘지금 여기(the here and now)'라는 바로 그 순간만을 중요시한다.

둘째, 단편화된 이데올로기(Fragmented ideology)

우리 시대의 가장 현저한 현상들 중 하나는 다양하고도 상반된 사상, 전통, 종교적 확신, 그리고 생활양식 등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 매체를 통하여 사람들은 인간이 겪는 가장 역설적인 경험들에 직면하게 된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심장 이식 수술처럼 가장 정교하고 값비싼 일이

---

[215]Henri J.M. Nouwen, *상처 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서울: 두란노, 2000), 19~28.

이루어지는 것을 접하는가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 가는데도 그들을 돕지 못하는 이 세상의 무력함을 본다. “포스트모던 문화의 이례적 만연(The extraordinary flow of post-modern cultural influences)”은 핵 인간에게 좀 더 융통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216] 다시 말해 핵 인간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해 최상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사상적 단편들을 언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갖추고, 그에 따라 살도록 요구 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핵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순간적인 인상에 전적으로 자신을 몰입시킴으로써 커다란 흥분과 환희를 체험하게 된다. 핵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고 타당한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다만 순간적이며,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임기응변적 삶을 살아간다.

셋째, 새로운 불멸에 대한 추구(A search for new immortality)

불멸하기 위한 전통적 방편들의 연계 능력이 핵 인간에게는 효력이 없다. 핵 인간은, “자기 파괴적인 이 세상에 자녀들을 낳고 싶지 않다.”고 종종 말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자녀를 통해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이 역사 종말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다는 것이다.[217] ‘지금 여기(here)’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내세(hereafter)’에 대한 믿음이 불멸의 추구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는가? 죽음 이후의 삶이란 죽음 이전의 삶을 근거로 해서만 생각할 수 있고, 이 땅에 자연재해 등으로 언제 어떻게 재앙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불멸에 대한 추구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2) 현대인들의 상처

[216]Ibid., 23.

[217]Ibid., 27.

예수님처럼 해방을 선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뿐 아니라 남의 상처도 돌보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상처를 치유능력의 주된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인의 상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목소리로 얘기해 왔다. '소외', '단절', '고독' 그리고 '외로움' 같은 단어들이 바로 상처 입은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외로움'이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우리의 실패를 적절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일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다. 태어난 직후부터 우리 삶에 만연하며 점점 심해지는 경쟁으로 인해 우리는 고독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고,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렬히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사랑과 우정, 형제애가 어떻게 그들의 외로움에서 해방시키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친밀감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새로이 제기하게 되었다. 로렌스 크랩(Lawrence J. Crabb, Jr)은 "하나님만이 채워 주실 수 있는 깊은 만족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의존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고 한다.[218] 기독교적 삶의 방식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보호하여 값진 선물로 소중히 간직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때로 우리는 인간이 느끼는 기본적인 외로움과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며, 빠른 만족과 빠른 위안을 약속하는 거짓 신들의 덫에 걸린다. 그러나 외로움에 대한 뼈아픈 인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라고 로렌스 형제(Brother Lawrenc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숙달하는 데에는 많은

---

[218]Lawrence J. Crabb, *인간이해와 상담*, 윤종석 역(서울: 두란노, 2001), 222.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므로 한두 번의 실패에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기에 몸에 배기까지는 쉽지 않지만 한번 습득되고 나면 거룩한 기쁨의 원천이 된다."[219]고 했고,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베풀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이기에 자신의 정서적, 정신적, 영적 가면들 뒤에 숨을 때가 많다. "[220]는 것이다. 이는 '환대(歡待, hospitality)'라는 또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반응이 본질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좀 더 깊은 통찰력을 주기 때문이다. 환대라는 미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두려움이 만들어 내는 편협한 마음을 깨뜨리고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구원이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안다. 환대를 통해,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을 힘 있는 증인이 되고, 의심 많은 주인들은 관대하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고, 닫힌 마음의 분파주의자는 새로운 사상과 의견을 흥미를 가지고 받아들이게 된다.

환대가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주인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두 번째로 주인은 예상치 못했던 방문자가 두려움 없이 편히 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대에는 두 가지, 즉 집중(concentration)과 공동체(community)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221]

그러므로 외로움이 상처라면, 환대는 그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 특히 소그룹 하이터치 접근은 공동체와 집중에 지향점을 두고 있기에

---

[219]Brother Lawrence, *하나님의 임재연습*, 윤종석 역(서울: 두란노, 2009), 90.

[220]Henri J.M. Nouwen, *영성수업*, 윤종석 역(서울: 두란노, 2010), 26-27.

[221]Henri J.M. Nouwen, *상처 입은 치유자*, 119-120.

외로움의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3) 통전적 영성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회개, 믿음, 기도 및 순종)에 의해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영성이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에 대한 제의적(성례전적) 영성과 예언자적(행동적) 영성의 조화 또는 통전으로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책임적인 존재로 참여하는 영성을 지니게 된다.[222]

참된 예배는 한 시간의 의식 예배와 나머지 시간의 삶이 일치하는 예배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시간과 아울러 생활 속에서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사실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가정, 학교, 회사 등 직장, 시장-이다. 고로 한 시간의 의식 예배의 자세와 몸가짐이 삶 속에서도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휘튼 대학의 신학 교수인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참여적인 예배(Participatory Worship)를 강조하면서, "모든 삶은 예배"라고 주장하였다.[223]

찬양과 축제의 예배가 절실하다. 성 프란시스(St. Francis)는 새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창조주를 찬양할 위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로써 그 분을 영원토록 찬양할 책무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과 재림하실 주님을 기억, 기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축하하며

---

[222]홍성주, *21 세기 영성신학*, (서울: 은성, 1995), 45.

[223]Robert E. Webber, Worship is a Verb(Nashiville: Abbott Martyn, 1992), 20.

증언해야 할 것이다.[224]

2) 영적훈련

뉴욕새교회의 성장이 주춤하고 있어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위기는 하나님과 교감 없이 사는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우리 쪽에서는 실락원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와 교제하는 법, 세상을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를 체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왔다. 축적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된다. 국제 레노바레 대표이자 영성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은 영적 훈련에 관한 종합 교본을 제시한다. 묵상과 기도, 금식, 학습의 내적 훈련을 비롯해 단순성, 홀로 있기, 복종, 섬김 등의 외적 훈련과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 취해야 할 고백과 예배, 기뻐하는 것 등의 내용을 총망라한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제시하는 영적 훈련의 노하우는 고독한 현대인들에게 묵상과 기도를 드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생활의 최전방에 서게 한다. 모든 영적 훈련 중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우리를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이다. 묵상은 우리를 내적 삶으로 인도한다. 금식은 하나의 부수적 수단이다. 공부는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 심령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행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기도 훈련이다. 진정한 기도는 생활을 변화시키고 또 생활을 창조한다.[225] Richard J. Foster는 영적 훈련이 숨은 비결이나 비밀스러운 주문,

---

[224]홍성주, 150.

[225]Richard J. Foster, *영적훈련과 성장*, 권달천.황을호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56.

정신운동이나 환각적 초월의식을 행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꽂피우실 은혜의 통로와 같다고 말한다. 훈련 자체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그래서 영적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고후 4:6)에 몸과 마음, 감정과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영적 훈련은 율법주의로 치우치기 때문이다.

(1) 묵상훈련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은 진정한 묵상은 심리학적 수법이 아니라 신학적인 은총이라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대적은 소란함과 조급함 그리고 혼잡함을 통하여 주로 역사한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물량주의'에 빠지게 했을 때 만족한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Carl G. Jung)은 이렇게 말했다.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이다."[226] 우리가 우리 문화의 피상성(superficiality)을 넘어서기 원한다면 재창조의 침묵 속, 묵상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묵상은 성경 저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성경은 묵상이라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두 가지의 히브리어(הָגָה,שִׂיחַ)를 쓰고 있는데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약58회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하가(Haga)'인데 "말하다. 신음하다. 묵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연계에서 이 단어는 비둘기가 아침에 반복적으로 내는 소리나 사자의 울음소리를 연상시킨다. 두 번째 단어는 '시하(Sihah)'인데 이것은 "숙고하다. 암기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어의 어근을 볼 때, 묵상이란 영원한 진리에 대해 깊고 반복적인 숙고를 의미하는 뜻이다. 어느 경우든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인 변화된 행위를

---

[226]Morton T. Kelsey, *The Other of Silence : A Guide to Christian Meditation* (New York: Paulist Press, 1976), 83.

강조한다. 묵상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어느 것이든 회개와 순종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

기독교의 묵상 개념을 중요시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을 동양 종교의 명상 개념과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두 가지 개념이 세상을 나누어 놓는다. 동양의 명상은 마음을 비우기 위한 노력이다. 반면에 기독교의 묵상은 마음을 채우기 위한 시도이다. 이 두 개념은 이처럼 전혀 다르다.[227] 동양의 명상에서는 세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강조한다. 개성과 자아를 버리고 범아와의 일치를 강조한다.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비인격의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경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상실된다. 실제로 개성은 궁극적 환상으로 간주된다. 다만 비참한 존재의 바퀴로부터 도피가 있을 뿐이다. 매달리거나 말씀을 들을 하나님은 없다. 초연이 동양 종교의 궁극적 목표이다.

기독교의 묵상은 초연의 개념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다. 물론 초연도 필요하다. 20세기 베네딕투스수도회(Benedictine Order) 수도승 피터(Peter)는 이것을 “사색의 안식”[228]이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초연함과 결부시켜서만 생각하면 위험하다. 악한 것을 비웠으나 선한 것을 채우지 않아 나중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준다. "더러운 귀신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눅11:24-26) 묵상은 흔히 아주 실제적이며, 거의 현실적인 통찰력을 낳는다. 묵상을

[227]Richard J. Foster, 55.

[228]Thomas Merton, Contemplative prayer(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69), 59.

통하여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얻는다. 또한 민감한 문제나 사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지침도 얻는다. 어떤 특별한 묵상이 황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안내를 받는다는 것은 훨씬 더 보편적이다. 묵상은 보다 훌륭한 시각과 균형을 갖고 일상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229]

(2) 기도 훈련

기도는 우리로 영적 생활의 최전방에 서게 한다. 모든 영적 훈련 중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이다. 묵상은 우리를 내적 삶으로 인도한다. 금식은 하나의 부수적인 수단이다. 공부는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인간 심령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행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다. 진정한 기도는 생활을 변화시키고 또 생활을 창조한다. 윌리엄 캐리(William Carrey)는 “기도-은밀하고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밑뿌리에 있다.”[230]고 말한다.

기도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 생활의 큰 특징인 기도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더 잘 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일치하기를 더욱 더 원하게 된다. 진정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며,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물을

---

[229]Richard J. Foster, 57.

[230]E.M. Bounds, *기도의 능력*, 이정윤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23.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231]

진정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눅11:1). 제자들은 항상 기도를 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질과 양은 기도에 관하여 그들이 아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했다. 그들의 기도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몇 가지 배워야 할 사항이 있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성령 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특정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적극적이어서 종종 '걸어라', '나아가', '일어서라'등 직접적이고도 권위 있는 명령 형태를 취했다.

기도하는 일이 배우는 과정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도를 거짓되다고 또는 비현실적이라고 포기해 버리는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도 화면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전파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우리는 화면을 전달하는 그 신비로운 힘의 흐름을 무엇이 차단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때까지 플러그나 스위치 등을 조사한다. 텔레비전이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대로 고쳐졌는지를 알 수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 사항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장'을 찾아야

[231]Richard J. Foster, 74.

한다. 우리는 기도를 그릇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 속에 무엇인가가 변화되어야 할 것과,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기도의 원리가 있는지도 모른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성공적인 중보기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3) 섬김 훈련

참된 섬김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온다. 이것은 어떻게 섬길지를 계산하고 계획하는데 막대한 힘을 소비한다. 반면 진정한 섬김은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에서 온다.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음성, 즉 신적 충동에 의하여 섬긴다. 힘이 소비되기는 하지만 그 힘은 육신의 격한 힘이 아니다. 토마스 켈리(Thomas Kelly)는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참을 수 없을 숨 가쁜 열기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232]

자기 의의 섬김은 거창한 것에 관심을 가지며 교회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데에 관심을 갖는다. 자기 의의 섬김은 특히 그 섬김이 거창한 것일 때 섬기기를 즐겨한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작은 섬김과 큰 섬김을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 혹시 구분이 될 경우에 진정한 종은 흔히 작은 섬김에 끌린다. 그것은 거짓된 겸손 때문이 아니라 작은 섬김을 중요한 섬김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232]Thomas R. Kelly, *A Testament of Devot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1), 124.

아무 차별 없이 환영한다. 자기 의의 섬김은 외적 보상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그 노력을 보고 칭찬하는 것을 알기 원한다. 자기 의의 섬김은 인간의 찬사를 추구한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숨은 섬김을 만족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주목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주목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진정한 섬김은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분의 지시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섬김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보답이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다린다.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가 기대 이하일 때는 미움을 갖는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결과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섬김 그 자체를 기뻐할 뿐이다. 진정한 섬김은 친구는 물론 원수들까지도 섬길 수 있다. 자기 의의 섬김은 누구를 섬길지 그 대상을 선택한다. 때로는 높은 지위에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만 섬긴다. 그렇게 할 때 이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낮은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섬기기도 한다. 그렇게 할 때 겸손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 진정한 섬김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막9:35)는 예수님의 명령을 청종한다. 앗시시의 성자 프랜시스(St. Francis of Assisi)는 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고 치료의 효험을 가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들어야 한다."[233] 자기 의의 섬김은 일시적이다. 이것은 특별한 섬김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만 섬긴다. 섬김을 마친 후에는 안이하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도울 기회를 요구한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자유롭게 섬길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다. 진정한

---

[233]St. Frandis of Assisi,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St. Frandis of Assisi*(Nashville: Upper Room Press, 1952), 25.

섬김은 행동하기 전에 온유한 마음과 인내를 가지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고요한 가운데 기다림으로써 섬길 수 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한다. 종교적 장식을 모두 제거하고 보면 그것은 결국 개인의 영광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의의 섬김은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또한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인 조종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반대로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든다. 진정한 섬김은 조용한 가운데 아무 가식 없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기를 힘쓴다. 진정한 섬김은 끌어 주고 싸매어 주며 치료해 주고 튼튼하게 해 준다.

3) 관계 훈련

(1) 홀로 있기 훈련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독에서 떠나 홀로 있을 것을 요청하신다.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사람들로 활기를 잃게 하고, 혼자 있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소음과 군중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고독과 소음 중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고독과 공포에서 자유하게 하는 '내적 홀로 있기'와 '고요함'을 개발할 수 있다. 고독은 내적 공허요, 홀로 있기는 '내적충만'이다.[234] 홀로 있다는 것은 장소라기보다는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마음의 홀로 있기를 할 수 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은 이 내적 주의 집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적 홀로 있기는 외적으로 나타난다. 내적 홀로 있기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보다 더 잘 듣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내적으로 홀로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 그분은 또한 외적으로도 홀로 있기를 자주 체험하셨다.

[234]Richard J. Foster, 163.

예수님은 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보내심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셨다.(마4:1-11) 또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홀로 하룻밤을 보내셨다.(눅6:12) 예수님은 5천 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후에 제자들ㄹ을 앞서 보내시고, 무리를 떠나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마14:23)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일을 준비하실 때 홀로 겟세마네 동산의 고요한 곳을 찾으셨다.(마26:36-46)

(2) 홀로 있기와 고요함

고요함이 없으면 홀로 있기도 없다. 고요함은 때때로 말이 없는 것과 연관되지만 듣는 행위와는 항상 연관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없이 단순히 말을 금한다는 것은 고요함이 아니다. 우리는 ‘내적 홀로 있기’와 ‘내적 고요함’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내면적인 생활에 특별히 뛰어난 모든 인물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은 맥락에서 말한다. 토마스 아켐피스(Thomas Kempis)는 그의 불허의 명작『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홀로 있기와 고요함을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라고 언급하고 있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 둘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았다.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도 역시 『혼자 있을 때의 상념』이란 책에서 그렇게 보았다.

우리가 홀로 있기를 알려면 변화시키는 고요함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고 알아야 한다. “입을 여는 사람은 눈을 감는다.”라는 서양격언이 있다. 고요함과 홀로 있기의 목적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위함에 있다. 고요함의 열쇠는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데에 있다. 야고보는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약3:1-12) ‘고요함과 홀로 있기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 말을 해야 되고, 언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배운다. 도미니크는 프랜시스를 방문하였는데 그 만남에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실로 고요함 가운데 있기를 터득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필요한 말을 필요할 때에 할 수 있게 된다.

(3) 영혼의 어두운 밤

홀로 있기의 훈련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어느 시점에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st. John of the Cross)이 생생하게 설명한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그가 우리를 불러 들어가게 한 그 어두운 밤은 불쾌하거나 혹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마치 병든 사람이 건강과 행복을 약속하는 수술을 환영해야 하는 것과 같이 환영해야 할 체험이다. 어두움의 목적은 우리를 벌하거나 괴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늘이 정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예로운 기회로 받아들였다. 그는 어두운 밤을 '순전한 은혜'라고 일컬으면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오 인도하는 밤이여! 새벽보다 더 좋은 밤이여! 사랑하는 분과 사랑받는 자를 연합시킨 밤이여! 사랑하는 분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변화되는 밤이여!"[235]

영혼의 어두운 밤은 어떤 것일까? 메마르고 침울하며 길을 잃은 것과 같은 느낌일 것이다. 감정적인 생활을 지나치게 의존할 수 없게 된다. 오늘날은 이와 같은 일을 피하고 평화롭고 즐거운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고는 현대인의 많은 체험이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 어두운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요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영혼에 내적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다.

[235]st. John of the Cross, *The collected Works of st. John of the Cross*, trans. Kieran Kavanaugh and Otilio Rodriguez(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64), 296.

일상생활에서 이 어두운 밤은 어떻게 나타날까? 홀로 있기를 진지하게 추구할 때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성공의 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반드시 실망이 따른다. 그 실망으로 인해 그 추구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감정은 메마르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나타난다.

어두움이 있는 동안에는 성경읽기, 설교, 지적 토의 등 이 모두가 감동이나 감격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우리의 내적 침체에 대한 책임을 다른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돌려서 그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자주 나타난다. 이때에는 목사도 아주 싫증나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주 약해진다. 이리하여 우리는 영적 자극을 주는 다른 교회나 혹은 새로운 체험을 찾기 시작하는 일이 있다.[236] 이것은 크게 잘못된 과오이다. 어두운 밤이 온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당신을 모든 산만한 상태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4) 적용과 실제

과정1. 내적 치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갖고자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일부분의 성격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또한 이 원인들을 성령이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또한 자신 안에 이런 원인이 되는 씨앗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내적 치유」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236]Richard J. Foster, 173-174.

적용케 하기 위함이다.[237]

넓은 의미의 내적 치유는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내적 치유 울타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집중적인 의미로는 세미나에서 말하는 내적 치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인간 창조 목표의 하나로 본다."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예정하신 목표이며 목적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구속의 목표는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기꺼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닮아가야 한다."[238]
신약성경 골1:5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창1:26~28 인간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잠재의식의 치유로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마음의 문제와 상처는 다 해결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나의 과거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외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것이 아님을 쉽게 볼 수 있다.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의 교수인 찰스 셀 (Charles M. Sell)은 "크리스천들은 공통적으로 거듭나면 유년기의 결함으로 인한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지도, 완전케 하지도 않으셨음을

---

[237]주서택.김선화,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서울: 순 출판사, 2000), 27.

[238] Antony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4), 45 이하.

곧 깨닫게 되었다.”[239]

그러나 일부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부정하며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으면 절대로 문제가 생길 수 없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식의 삶을 교인들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지도자가 아무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강조될수록 사람들에게 깊은 아픔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잠재의식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완전치 못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 대한 이해의 문제다. 우리가 인간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면 잠재의식이 가지는 영향력과 그 치유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상처받은 마음은 외부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삶 속에 그 상처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240]

첫째, 대인 관계의 어려움 -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보편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다. 이들 안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대인 관계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지나친 지배의 모습과 또한 지나친 의존의 모습이다.

둘째, 자신에 대한 자존감 결여 - 삶에 있어서 바른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데, 혹자는 전혀 반대의 매우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깎아내린다.

셋째, 삶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태도 -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른 사람, 부모

---

[239]Charles Sell,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정동섭 역(서울: 두란노, 2003), 52.

[240]주서택.김선화, 33-36.

혹은 세상의 모순 탓으로 돌리기에 누군가에 대해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에게는 서운하고 불공평한 분으로 인식된다.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분노는 매우 잔인한 성격으로 발전될 수 있다.

넷째,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방식 -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느낀다. 하지만 이유 없는 우울증은 없다. 원인이 있는 것이다. 강박적인 사고는 신경이 쇠약해지면서 심해진다. 신경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신경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다. 성경은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을 때 그 상태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241]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결여 -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의 눈이 바로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결코 바르게 이해되지 못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인상은 심히 부정적이다.

여섯째, 영적 삶의 굴곡과 침체 -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의 태도가 항상 주변의 상황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심한 굴곡 현상을 보인다. 신앙 연수가 오래 되었는데도 생활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근본적인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등등의 유아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1)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이유로 인간에게는 네

---

[241] 시편 32:3~4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가지 마음의 영역이 있다.[242]

첫째, 내가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나만이 알고 남은 모르는 부분이다.

셋째,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 지는 부분이 있다.

넷째,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일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잠재의식적인 영역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만큼 이 부분은 우리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끼치는 영향도 크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줄어들 때 고린도전서2:15에서 말하는 의미를 알게 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2)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243]

첫째, 인간의 내면 가운데 형성된 부정적인 잠재의식의 형성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그 영역은 자신이 인식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아시며, 쓴 뿌리의 씨앗을 아신다. 또한 그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다. 시편139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부모의 여러 영역이 유전되기도 한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인간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원조로까지 연결된다.

---

[242]주서택.김선화, 41.

[243]Ibid., 43~46.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요1:12)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에 적용하기 전에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셋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잠재의식 속의 문제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론하고 진단을 내렸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치료다. 지나간 내 인생의 과거 문제까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의식 속에서 과거의 문제를 잊을지라도 그 문제의 독은 없어지지 않고 다른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절대자의 능력이 아니고는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놓임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균형 잡히고 실천적이며, 효과적인 소그룹 전략을 개 교회들과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제공하는 레노바레(Renovare)는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rster)가 1989년에 세운 기관의 명칭이다.[244] 이 레노바레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스스로 변화되고, 이를 통해 교회와 이웃을 새롭게 하는 운동이다. 무엇보다 레노바레 훈련은 일종의 소그룹 양육 프로그램으로 전인적 치유를 위한 Encounter 세미나에 본 연구자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다음은 레노바레 영성형성 워크북(A Spiritual Formation Workbook)에 대한 분석표를 통해서 영성훈련의 흐름과 방향을 알 수 있다.

<표28> 영성형성 워크북(A Spiritual Formation Workbook)에 대한 분석[245]

---

[244] 레노바레는 라틴어로 ‘새롭게 하다(to renew)’라는 뜻을 갖는다.

[245] James Bryan Smith with Lynda Graybeal, *A Spiritual Formation Workbook* (Harper San Francisco : 1993), 참조.

구성요소	관상운동 contemplative(the prayer-filled life)	성결운동 holiness (the virtuous life)	카리스마운동 charismatic (the spirit-empowered life)	사회정의운동 social justice(the compassionate life)	복음전도운동 evangelical (the word-centered life)	성육신운동 incarnation(the sacramental life)
목표	하나님에 대한 헌신	사고와 말과 행동의 덕	성령에 의한 강화	타인을 위한 동정	복음의 복된 소식선포	신앙과 행함의 일치
핵심내용	기도	성결	성령충만	사회정의	말씀중심	성례전적
설명: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기도로 충만한 사람: 기도와 말씀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짐	죄에 대한 저항: 유혹을 극복하며, 순전한 사고와 말과 행동을 가지며, 사랑과 자비의 행동을 추구한다.	성령의 능력으로의 사역과 치유: 성령의 기쁨과 능력 안에 살면서, 영적인 은사들을 양육하고 행사하며, 성령을 받아들임	동정심을 나타내기: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구조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며, 나보다 덜 행복한 다른 사람들을 도움	성경을 읽고 복된 소식을 선포하기: 성경을 정규적으로 읽고 연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하나로 하기: 내가 존재하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냄
대표적 인물	Antony of Egypt	John Wesley	George Fox	Francis of Assisi	Martin Luther	Zinzendorf
단점	실재의 일을 하지 않기 쉽다.	사회정의 부분에 약하다.	복음 전도를 무시하기 쉽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쉽다.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쉽다.	세속화의 위험
핵심성구	막14:32-36 눅15:11-32	마4:1-11 마3:13-17	요14:15-17 요15:26-27	마25:31-46 마22:37-40	눅4:16-20 롬10:17	눅13:10-17
구체적 실천	①기도를 하루에 5-10분 할애 한다. ②침묵을 위해 하루 10분 할애한다. ③신앙서적을 읽는다. ④매일10분 동안 동일한 기도를 반복한다. ⑤하나님에게 편지	①마음과 정신을 정화하도록 성령께 기도하며 경청한다. ②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에 맞선다. ③24시간 동안 금식한다. ④혀를 길들이기 위한 훈련을 한다.	①성령의 사역에 복종한다. ②성령의 열매를 양육한다. ③자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한다. ④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읽는다. ⑤결단을 할 때 보혜사에 귀를 기울인다.	①친철하며 격려하는 편지를 쓴다. ②지역무료급식소 등에서의 봉사를 자원한다. ③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폄하하지 않는다. ④부정의를 찾아 그것을 드러낸다. ⑤자신의	①성구외우기 ②성경중의 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큰소리로 읽기 ③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짧은 구절을 묵상하기 ④예수의형제 중하나로서 자신을 상상하기 ⑤타인에게 자신의신앙에 대해 말하기	①자신의 일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지 1-10까지 점수매기기 ②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 치우기 ③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기 ④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솔제니친의

	쓰듯, 기도문을 쓴다.	(부정적인 말과 부정 직한 말을 하지 않음)		입장을 주장한다.	⑥행동을 통해 복음 선포하기	책읽기 ⑤성찬식참석
평가	위의 공부를 한 다음에는 매 번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공부한 내용들을 점검한다.					

과정2. Encounter Seminar

본 연구자는 뉴욕새교회에서 새가족과 기존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이터치 영성접근으로 5회에 걸쳐 인카운터 세미나를 실시하였다.[246] 원래는 인카운터 주말수련회로 1박2일 동안 9강의를 하지만 뉴욕한인교회의 토양에 맞게 5강의 압축하여 주중 1회씩 5주 동안 실시했다. 참가자 31여명을 5개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소그룹 단위로 새가족들을 1-2명씩 나눠서 참여하게 했다. 찬양과 기도, 하이터치 접근을 위한 이미지와 상상이 담긴 글들을 도입했다. 그리고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성경의 인물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영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강의 한 후에 소그룹 단위로 나누게 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과 새가족들의 내적치유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 모임에 참석했던 새가족 6명은 100% 정착과 함께 자신의 은사에 맞게 교회 내에서 잘 섬기고 있다. 다음은 뉴욕새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 정착의 두

---

[246]김삼성, Encounter Weekend Manual(서울: G12Korea), 참조.

번째 프로젝트인 Encounter Seminar의 실제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미나를 위한 기획과 진행 그리고 교재 제작까지 본 연구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이테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접목하고, 그들의 삶을 터치할 것인가에 포인트를 두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주제로 성경의 인물 야곱을 통해서 그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참가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데 목표를 둔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성적 사랑이란 주제로 성경의 인물 탕자를 통해서 죄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통한 삶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거절감정으로부터 치유라는 주제로 성경의 인물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해서 삶의 여정에서 생긴 거절감정의 원인을 스스로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와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유하게 하는데 목표를 둔다. 네 번째 나의 신분과 사명이란 주제로 성경의 인물 다윗을 통해서 자아상 회복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 창조된 존재로서 자신의 사명을 알게 하는데 목표를 둔다. 다섯 번째 성공으로 이끄는 비전이란 주제로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비전을 갖는데 목표를 둔다.

아래에 제시할 자료들은 뉴욕새교회에서 실제 진행했던 Encounter Seminar 일정과 참가자 그리고 소그룹 하이터치 영성접근에 맞게 만들었던 제1강의안이다.[247]

---

[247]본 연구자가 뉴욕새교회에서 하이터치 영성접근으로 실시한 인카운터(Encounter) 세미나는 5강의로 진행되었고, 전체 교안 자료는 첨부(Appendices)자료에 있다.

<표29> Encounter Seminar 일정

인물별 Encounter 일정

1. 개강 : 2010. 2. 25(수) 오후8:00 – 오후9:40
2. 장소 : 은혜 채플(인원에 따라 변동)
3. 회비 : $10(교제 및 악보, 간식)
4. 과정 : 5주(2월24일(수)~3월24일(수)
5. 운영 : 총무1인, 회계1인, 도우미1인 선정
   (교재, 출석부, 명찰, 간식, 자리배치, 강의실 세팅)
6. 준비물 : 신청서, 접수대, 주보간지, 교재
7. 일정

시간	내용	담당	준비물
08:00–08:15(15분)	찬양과 경배	이재용 목사	기타, 악보
08:15–09:15(1시간)	인물별 Encounter	이재용 목사	교재, 필기도구 빔프로젝트, 노트북
09:15–09:30(15분)	조별나눔	각 조별	잔잔한 음악
09:30–09:40(10분)	결단의 기도	이재용 목사	조명, 음악

8. 강의

순서	인물	주제	주제말씀
1강	야곱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창32:22–30
2강	탕자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눅15:11–24
3강	향유 부은 여인	거절감정으로부터 치유	잠15:13 눅7:36–50
4강	다윗	자아상 – 나의 신분과 사명	삼하12:7–14 시137:13–16
5강	아브라함	성공으로 이끄는 비전	창1:27–28 갈3:13–14

<표30> Encounter Seminar 참가자

인물별 Encounter 신청자

번호	이름	직분	비고
1	**이미자**	**새가족**	1조 조장 : 엄미라
2	이정우	권사	
3	정명숙	집사	
4	엄미라	권사	
5	신의철	집사	
6	김미리암	집사	
7	**이홍정**	**새가족**	2조 조장 : 황달연
8	황달연	장로	
9	윤양옥	권사	
10	이상순	집사	
11	이은숙	집사	
12	신은정	집사	
13	**김수희**	**새가족**	3조 조장 : 김헌자
14	김헌자	집사	
15	김민정	자매	
16	조진선	집사	
17	박진두	집사	
18	김경민	집사	
19	**권진현**	**새가족**	4조 조장 : 현죠앤
20	유인형	집사	
21	송영희	집사	
22	정종권	집사	
23	이연숙	집사	
24	현죠앤	집사	
25	**김은단**	**새가족**	5조 조장 : 김영옥
26	이종원	집사	
27	윤정심	집사	
28	김영옥	집사	
29	지동철	집사	
30	전혜란	집사	
31	**권정란**	**새가족**	

1강, 야곱 -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창32:22-30)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내가 주인 삼은, 전심으로 주 찬양
기도	찬양과 함께 자연스럽게 합심기도 후 인도자 마무리기도
하이터치 도입1 그림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 한 점이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경매되었는데,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293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팔렸다. 그 작품은 '황소머리' 라는 조형물이다. 1943년 어느 날 길을 가던 피카소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고, 안장과 핸들을 떼어낸 후, 그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는 이름을 '황소머리' 라고 하였다. 그것이 오늘날 고가의 작품이 된 것이다. 버려졌던 자전거가 피카소를 만난 후에는 값비싼 걸작품이 되었다. 사실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걸작품이기 때문이다.
하이터치 도입2 시	**기억은 끈끈이주걱** 한명희 **기억은 단단하다 손발을 옹송 거린** **호두껍질처럼 쉽게 무르지 않는다.** **끊어내려고 해도 이빨이 들어가지 않았다.** **기억은 싱싱하다 물을 뿌리면 되살아나는 배춧잎처럼 기억은 싱싱하다.** **뒤적거려도, 뒤적거려도 숨이 죽지 않았다.** **기억은 튼튼하다 튼튼한 신발을 신고** **뒤따라왔다 잠자리에서도 신발을 벗지 않았다.** **기억은 끈끈이주걱** **머릿속에 벌레가 바글거려도 끈끈한 주걱을 놓치지 않는 기억** **그것은 끈끈이주걱, 끈끈이주걱!** 야곱의 삶에 끈끈이주걱처럼 늘 따라 다닌, 속이고 속는 아픈 기억들은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므로 끝이 나고, 브니엘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표31-2> 1강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강. 야곱 -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 본문: 창32:22-30

❦ 목표: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질적인 죄를 깨닫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게 한다.

❦ 서론

❶ 자기의 힘으로만 살다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난을 당할 때가 온다.

❷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은 우리의 성품에 깊고 근본적 변화를 가져다준다.

❸ 야곱은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1. 야곱의 삶
   1) 선택받은 야곱:
   2) 벧엘의 야곱:
   3) 밧단 아람의 야곱:
   4) 브니엘의 야곱:
2.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 : 네 이름이 무엇이냐?

3. 만남의 결과 : 가면을 벗은 자유의 삶
   1) 성품의 근본적 변화(25절)
   2) 운명의 변화(28절)
   3) 잊을 수 없는 체험
   4) 참 권세의 사람(창47:7-10)

❦ 조별 나눔 : 자신을 돌아보기 + 물러서지 않는 태도

❶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❷ 조별 만남 후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야곱의 기도”를 드린다.

3. 하이터치 문화접근 - Culture Class

1) 이민교회의 문화적 게토(ghetto)

오늘날 이민교회는 크게는 미국사회로부터, 좁게는 소속된 지역사회로부터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고립을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다. 비록 이민교회가 미국의 교파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 교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직상으로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엄연한 문화의 장벽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 문화적 장벽을 제거하기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한인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문화 위의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무관한 게토(ghetto)식 종교집단으로 전략할 염려가 있다.[248] 미국에서의 한인교회의 위치는 동포 이민자들을 돕는 사회사업은 활발해도, 대체로 미국사회의 문제는 거의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미국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 가운데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을 제외하고는 교단의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

더구나 흑인사회의 문제를 미국 역사나 정치경제적인 틀과 관련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이민교회나 목회자들이 지극히 적으며 오히려 백인 문화우월주의에 더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몇 몇 대도시에 몰려 있는 한인들은 한국어TV와 방송, 신문을 보고 조국을 걱정하나, 실제로 미국에서 할 일들을 찾아나서는 교인과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상이 올라갈수록

---

[248] 송인규, *이민교회 이야기*, 빛과 소금, 제 59 호(서울: 두란노서원, 1990), p. 226.

한인사회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특히 한인교회 2세들을 중심으로 Korean-American(한국계 미국인)으로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교회 내에 한글학교 혹은 한국문화학교를 통해서 한글, 역사, 문화, 예절 등에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249]

2) 하이테크 문화의 양면성

오늘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과학의 발전, 급진적인 세계화 추세, 환경 파괴의 가속화, 포스트모던 문화로의 전환, 정치경제 질서의 재편에 따른 세계의 변화는 우리의 시야를 어지럽게 한다. 특히 물리학과 생명과학, 컴퓨터 분야 및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 전반을 바꾸고 있다.

오늘 이 같은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교회의 새가족 정착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인사회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또 하나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인교회이다. 기존 교인간의 깊은 유대관계는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이로 인해서 새가족들은 무의식적 배타성을 경험하게 된다.

(1) 다양성 -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회의 세계화 또한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같은 세계화는 인류에게 하나의 가능성이면서 위험임을 안식해야 한다. 특히 전 세계를 하나의 틀 속에 묶어 그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다른 인류의 바벨탑 쌓기일 수 있다. 세계를 완벽한 하나의 통제 하에 둔다는 것은 환상이며,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치 않으려는 소치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화의 틀을 만들며 그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용인해야 하지, 하나의 획일화된 전체를 만들려는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열린 자세로

---

[249] 본 연구자는 2009-2010 뉴욕새교회에서 새한국문화학교 교감으로 한인 2 세들에게 Korean-American 으로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노력하였다. (http://www.newchurchny.org /참조)

새가족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2) 쌍방향성 - 과학의 발전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세 분야에서 과학 분야의 발전이 인류의 미래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의한 변화이며, 마지막으로 물리학 발전에 의거한 영향이다. 무엇보다 멀티미디어 시대는 교회의 목회와 신학에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멀티미디어 기술이 가지는 통합성(integration), 영상성(visualization), 쌍방향성(interactivity) 등의 특징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성에 집중된 하나님의 접근방식이 이성, 감성, 의지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경험을 통한 하나님 접근방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멀티미디어의 이미지에 대한 강조는 우리의 예배와 설교에 있어서의 이매지네이션(상상력)에 대한 강조를 야기할 것이라고 장신대 노영상 교수는 기술하고 있다.[250] 아울러 쌍방향성으로서의 특징 또한 목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일방적 선포의 설교에서 청중들의 경험을 반영하는 대화적이며 내러티브(narrative)적 설교로 변환할 것이다. 일방적인 교리의 전수를 강조하던 선포적 양상들이 신자들의 종교적 체험과 그에 의거한 간증이 강조되는 형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는 각자의 쌍방향성을 중시하며, 소그룹 모임을 지향하게 된다.

(3) 감성 - 20세기 말과 21세기의 전반적 문화의 경향을 한 마디로 포스트 모던한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더니티로서의 근대성의 시대는 이성을 강조했던 문화의 시대다. 이 시대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이성적인 주체로서, 이 주체는 객관적 실재로서의 진리를 가질 수 있다는 주객도식의 인식구조를 강조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 전통적 권위와 억압에서 자유로운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

[250] 노영상, *미래교회와 미래신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11-13.

이에 비해 포스트모더니즘은 전체적으로 탈개인주의적이고(post-individual), 탈합리적이며(post-rational), 탈인식론(post-noeticentric)[251]이며, 종교적 영성을 강조하는 양상을 갖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 위주의 인간 이해에서 탈피해서 인간의 감성과 의지, 상상력(imagination)과 직관(intuition), 인간의 영성(spirituality) 등을 동시에 강조하는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인간 이해의 장을 활짝 열었던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문화구조에서 이성과 교리적 전수를 중심으로 한 신학이 퇴조하고, 인간의 정서와 상상력을 강조하는 신학이 대두되고 있다. 이성 위주의 하나님 접근방법에서 인간의 전 감각과 능력이 동원된 총체적 하나님 경험의 접근으로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252] 무엇보다도 개인주의적 신학에서 탈개인주의적 공동체신학(community theology)으로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4) 포괄성 - 모던한 사회는 주객도식에 따라 이성을 소유한 인간이 만물의 주인 됨을 강조했다. 더욱 이성적인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서열에 있었으며, 자연은 그보다 더 열등해서,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되어지곤 했다. 이러한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며, 오늘과 같은 생태계의 위기를 자초했다. 이전의 주객도식에 기초한 기계론적 우주관은 유기체적 우주관으로 바뀔 필요가 있었다. 인간과 자연은 대치할 수 있는 기계 부속품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유기체로서의 한 부분임이 부각되었다. 인간과 자연은 정복과 착취의 관계가 아니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공생의 관계에 있음이 파악되고 있다. 자연의 보전됨 없이 인간의 존속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으로의 전환은 기독교의

---

[251]Stanley J. Grenz, *A Primer on postmodernism*(Grand Rapids: Eerdmans, 1996), 167-174.

[252]노영상, 16.

신학과 구원관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창조의 보전 문제가 교회적 행동의 중심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전 자연을 하나님 구원의 행동 포괄하는 우주적 구원의 의미들이 논의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성을 소유한 인간에 대한 배타적인 구원이 아닌, 전 우주 만물의 변혁과 새로움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성례시의 빵과 포도주가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변혁되는 것, 종말 시에 나타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은유(metaphor) 등은 우리에게 이 같은 구원의 포괄성을 지적해 준다.[253]

3) 그리스도와 문화

존 브록만(John Brockman)은 '세계 지식의 지휘자'라는 표현이 그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석학들이 학문적 견해와 성과를 토론하기 위해 모여드는 엣지재단(Edge Foundation, Inc)의 회장이자, 웹사이트 포럼 엣지(www.edge.org)와 리얼리티 클럽(The Reality Club)의 설립자이다. 그는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 등 각 분야에서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세계적 석학들을 상아탑에서 끌어내 대중과 호흡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재탄생시키는 편집자로도 정평이 나 있다. 과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당대에는 사회적, 윤리적, 정서적으로 볼 때,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 발견들이 수두룩하다.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의 혁명은 가장 확실한 예다. 인간의 뇌는 문화의 산물이라고 말한 티모시 테일러(Timothy Taylor)[254]는 "우리는 뇌를 문화 하는 소프트웨어가 정착되는 하드웨어로 보는 대신, 또 성적 취향이나 수학적인 재능 같은 영역에서, 개개인이 가진 뇌의 능력이 거의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253]John Brockman, *위험한 생각들*, 이영기 역(서울: 갤리온, 2007), 17-18.

[254]영국 University of Bradford 교수이다.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고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현재 유럽의 선사시대의 사회상을 연구하고 있다.

능력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느냐,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는 해묵은 논쟁이기도 하다. 진화 생물학자인 Richard Dawkins는 문화는 유전자를 뒤집기도(바꾸기도)하고, 유전자에 의해서 문화가 가능해지기도 한다고 피임과 관련한 문제에서 지적하고 있다.[255] 이는 미성숙한 뇌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유전자에 새겨진 설계도도 영향을 미치지만, 뇌가 성장하는 당시의 환경과 수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힘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 현대 인간의 뇌가 유전자로 암호화되어 있다고 해서, 뇌들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간의 자기 인식이 문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촉이 부싯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샘 해리스(Sam Harris)[256]는 "과학은 종교를 파괴해야 하며, 종교와 과학 사이의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고, 제로섬 게임이다."고 한다. 이는 과학의 성공은 종교적 교의를 희생해야 가능하고, 종교적 교의는 언제나 과학을 희생함으로써 유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우리들 자신과 세계에 관한 합리적인 지식이다. 반면 신념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설명에 실패할 때, 그러한 명제를 믿기 위하여 서로에게 주는 면허증에 지나지 않다고 Sam Harris는 말한다.[257] 그렇다면 과학과 종교의 차이는, 새로운 증거와 주장을 냉정하게 고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가에서 생긴다. 종교는 떠오르는 세계 시민사회와 양립하지 못한 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차이를

---

[255] John Brockman, 80.

[256] UCLA 에서 신경과학 박사,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그는 동양과 서양 종교를 깊이 연구했다.

[257] John Brockman , 278-279.

벌리고 있다. 종교적 신념-자신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를 신경 쓰는 신(神)이 있다는 신념,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는 신념, 예수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고자 지구에 재림한다는 신념, 이슬람교 순교자는 바로 천국에 간다는 신념 등-은 확대일로에 있는 사상 전쟁에서 잘못된 편에 서 있다. 과학은 21세기에 인간이 탐구해서 얻은 성과를 개방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종교는 원리원칙에 매여 그러한 탐구 성과에 서둘러 귀를 막아버린다. 그래서 이성과 신앙 사이의 적대감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모든 문화에는 종교가 있다. 또한 종교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하지만 비슷한 영적 성취와 더 큰 존재와의 만남은 과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에너지에서 물질로, 소립자에서 DNA로, 미생물에서 호모사피엔스로, 빅뱅의 특이점에서 우주의 광대함으로 등 그 중에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멋진 것으로 과학자들은 드라마, 플롯, 아이콘, 스펙터클, 기적, 장엄함, 심지어 특수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고 한다.[258] 하지만 과학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의식(Ceremony)이다. 과학에는 종교적 의식이 적고, 세례식, 공동예배의 형제애가 결핍돼 있으며, 정다운 성직자 '신(神)'의 방식으로 신자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성직자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열렬한 선교사, 충성스러운 사도가 없으며, 모든 것을 보듬어 안는 신성한 포용,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예배의 초대가 없다. 그리고 소외감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친교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한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와 문화[259]는 집요하게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는 에른스트 트뢸취(Ernst Troeltsch)에게서

---

[258]Ibid., 283-284.

[259]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참조.

사사받은 유형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그리스도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역사적으로 분석, 비판하면서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상(像)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변혁된 문화이다."라는 것이 그의 신학적 이념이다. 특히 그의 사상은 상관적 보편주의요, 사회적 실존주의의 입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즉 타협인가, 혁명인가, 변화인가를 제시한다.

문화란 인간이 자연적인 것 위에 억지로 뒤집어씌운 인공적인, 제2의 환경, 언어, 관습, 이념, 신념, 전통, 사회조직, 전해 받은 공예품, 기술적 진전 그리고 가치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 설정이 허술한 탓에 Richard Niebuhr는 5유형을 제시함으로 문화는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스도와 문화는 상극의 관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반면에 그리스도와 문화를 거의 동일시 보는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는 문화 안에서, 문화를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260]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문화란 세상과 동의어로 이해하며 기독교 공동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문화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종합론자들의 경우 문화를 기원에 있어서 신적이고 동시에 인간적이며, 거룩하면서도 범죄적이고, 필연과 자유를 함께 가진 영역이며, 이성과 계시가 함께 적용되는 장소로 본다. 반면 이원론자들은 문화를 소극적 기능으로서만 인정하고 비악덕의 윤리 정도의 가치를 인정할 뿐이다. 문화는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필요악 정도로 이해한다. 변혁주의자들은 인물마다 다르지만, 요한의 경우 세상이라는 개념 안에 자연적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격적인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의 논쟁은 로젠버그(Bernard Rosenburg)와 맥도날드(Dwight Macdonald)가 편집한 『대중문화(Mass culture)』에서 집약되어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대중사회론자들은 비판론적 입장에, 반면에 매스 커뮤니케이션

---

[260]임성빈, *21세기 문화와 기독교*(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48.

론자들은 옹호론적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261]

교회가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교회와 사회가 바로 이 문화를 통하여 만나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듯이, 사람들은 문화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문화 안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신앙인다운 삶과 선교도 문화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당위적인 것이다.

어떤 이들은 복음과 문화는 상극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복음은 문화 안에서, 문화를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복음과 문화를 동일시할 만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262] 전자는 복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를 위협적인 존재로 파악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후자는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악의 존재나 복음의 초월적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4) 적용과 실제

(1) 문화교실 목적

한 개인이 배움을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의 내재적 목적이나 혹은 그를 움직이게 하는 공동체의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다. 새가족 정착을 위한 세 번째 프로젝트로 소그룹 중심의 문화교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과 친밀감으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목표 - 문화교실에 대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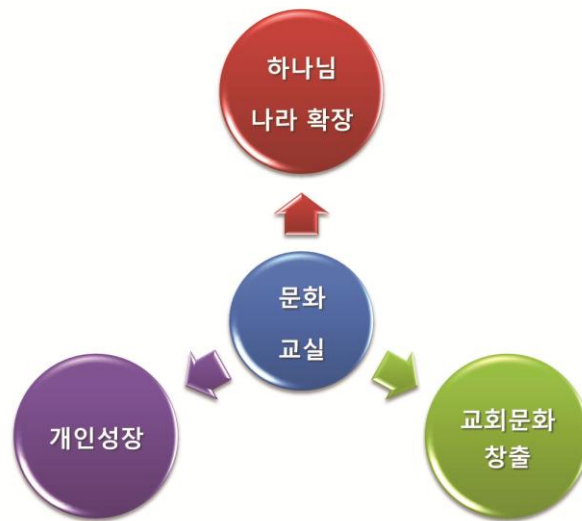
[261]박종균, *기독교와 대중문화 이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2.

[262]임성빈,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14-16.

첫째, 하나님 나라 확장 - 문화의 변혁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둘째, 교회문화 창출 - 문화교실은 친교와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회문화를 창출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통로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개인욕구 충족 - 문화교실을 함으로써 배움에 대한 개인의 내재적인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그림 9> 문화교실 세 가지 목표[263]

(3) 문화교실을 위한 사전조사

문화교실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대상과 연령층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욕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연구조사를 참고하여 문화교실의 과목을 준비하고 개설해야 한다.

[263] 본 연구자는 문화교실 세 가지 목표를 도식화로 나타냈다.

<표36> 한국인 좋아하는 취미 Top 10(2009년 8월 10일 한국갤럽)[264]

순위	항목	비율(%)
1	등산	11.7
2	독서	7.0
3	음악감상	6.9
4	운동 / 헬스	5.9
5	영화관람	4.2
6	축구	3.7
7	PC / 온라인게임	3.6
8	산책 / 걷기	3.2
9	여행	3.0
10	인터넷 / 컴퓨터	3.0
※ 좋아하는 취미 한 가지만 자유 응답 ※ 구체적인 종목을 밝히지 않고 '운동'이라고만 답한 경우는 '운동/헬스' ※ 9, 10위 모두 3.0%이지만 순위가 다른 것은 비율 계산시 반올림 때문이다.		

<표37>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 Top5 - 연령별(2009)

순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	음악감상 16.6%	음악감상 11.1%	독서 9.0%	등산 19.5%	등산 20.8%
2	PC/온라인게임 13.8%	영화관람 9.4%	운동/헬스 7.2%	독서 10.5%	산책/걷기 4.2%
3	인터넷/컴퓨터 8.8%	PC/온라인게임 8.4%	음악감상 6.5%	운동/헬스 7.7%	독서 4.2%
4	축구 6.9%	축구 7.8%	영화관람 6.0%	여행 5.1%	노래부르기 3.9%

[264] http://panel.gallup.co.kr/Gate/Panel/F022.aspx?seq=211&Yy=&SearchGb=&SearchKey/08.17.2009.

5	독서 6.5%	인터넷/컴퓨터 7.4%	낚시 4.9%	낚시 3.9%	음악감상 3.7%

우리나라 대중 음악계의 최신 흐름은 10대와 20대가 주도하고 있다. 그에 걸맞게 10대와 20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로 꼽은 것은 바로 '음악감상'이다. 한편, 'PC/온라인게임', 블로그, 카페 활동, 검색 등을 의미하는 '인터넷/컴퓨터' 역시 10대와 20대가 좋아하는 취미 5위 내에 들었다. 현재의 30대 이상은 학습이나 업무의 도구로 컴퓨터를 처음 접했지만, 10대와 20대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이버 공간을 놀이 공간이나 일상적인 사교의 방편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해 왔음을 볼 때 그들이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W세대(월드컵 세대)라 불릴 수 있는 10대와 20대가 즐기는 취미에 '축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30대 는 '독서', '운동/헬스', '음악 감상', 40대는 '등산', '독서', '운동/헬스', 50대 이상은 '등산', '산책/걷기', '독서'의 순으로 좋아하는 취미를 꼽아 10대, 20대와는 달리 육체적, 심리적 건강과 관련이 있는 취미가 인기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등산'(14.6%), '운동/헬스'(8.7%), '축구'(7.2%), 여성은 '음악 감상'(9.2%), '등산'(8.8%), '독서'(8.7%)의 순서로 남녀 간 좋아하는 취미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10위 내 취미 11개 선호도를 모두 합하면 55.2%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모임에 참석했을 때 자기소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취미이다. 한국인 두 명 중 한 명은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같은 취미,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관계 형성이 더 잘 된다고 한다.

(4) 실행자료

<표38> 문화교실 홍보전략

신문광고	뉴욕한인신문, 교계소식지 등에 홍보
영상광고	문화학교 개강 2주 전에 영상 제작하여 주일광고시간 홍보
포스터	홍보포스터는 한 달 전부터 만들어 교회와 한인마트 홍보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어 홍보
주보	주보 소식란에 3주 전부터 홍보

<표39> 문화교실 기획회의

정기 모임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1:30 / 소그룹 모임방
참석 대상	담당교역자, 문화부장, 강사, 문화학교스텝
회의 내용	개설과목, 교육커리큘럼, 모집홍보, 일정조정, 문화교실 전반
후속 조치	다음 문화교실 강사 섭외, 과목조정, 스텝훈련, 새가족정착
※문화교실 기간에는 매월 정기모임시에 자체평가 및 미비한 사항보완	

<표40> 문화교실 개설과목 (적정인원:6-10명 적정)

성별	과목	내용	강사	장소
여성	독서	추천도서 읽고 함께 나눔	박미현	교회+가정
여성	茶사랑	차와 함께 음악 감상	이미자	교회+가정
여성	중창	노래교실, 아줌마 중창단	김영진	교회모임방
여성	영화	추천영화 보고 함께 나눔	안신자	교회모임방
혼성	포토	사진촬영 이론과 출사	김영환	교회+야외
혼성	기타	기초, 초급, 중급	김범중	교회모임방
혼성	놀이	레크리에이션	성시용	가정+야외
남성	탁구	기초에서 게임까지	정종권	교회탁구실
남성	족구	게임에서 친교까지	이관우	교회족구장

※전반기(3월)과 후반기(9월) - 연2회 개설(각각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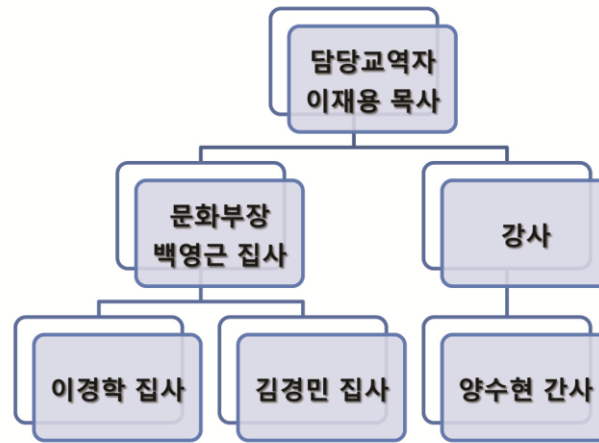
<표41> 문화교실 준비점검

모 임	내 용	준비물
1차 점검	과목 결정 및 강사 점검, 장소섭외	문화학교 기획안
2차 점검	홍보물제작, 문화학교 지원서제작, 교회홍보	포스터, 현수막
3차 점검	접수시작, 새가족 안내문 발송, 교회영상홍보	교회복도 접수창구마련
4차 점검	최종 점검, 안내 전화, 인원파악, 홍보영상	명찰, 출석부, 물품구입
개 강	예배, 오리엔테이션, 반별 모임	간식, 장비세팅, 출석부

※주일 오후1시30분 / 소그룹 모임방

<표42> 문화교실 환경조성

항 목	내 용	수 량	비 교
모임방	장비와 환경을 갖춘 소그룹 모임방	4개	음향장비
컴퓨터	영화교실과 포토스쿨에서 사용	2대	노트북
빔 프로젝트	영화교실과 포토스쿨에서 사용	2대	이동용
교육커리큘럼	각 과목마다 일정에 맞는 교육과정	담당강사	단계별
물품구입	각 과목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예산청구	Staff 담당강사	매학기 보충
강사	교회 자체적으로 과목별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여 강사로 세움	현재 8명	지속적으로 충원
비용	교회예산50%+개인부담50%	각과목당 $20	과목별 약간의 차별
Staff	홍보, 장비세팅, 간식, 회계, 진행	3명	문화학교 간사

<표43> 문화학교 운영조직

<표44> 문화교실의 효과

친밀감	문화교실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친밀감으로 나아간다.
은사	문화교실을 통해서 새가족들의 은사를 발견한다.
전도	새가족 주위사람들을 문화교실로 끌어 들여 전도의 계기를 삼는다.
봉사	문화교실을 통해서 발견된 새가족들의 은사에 맞게 봉사하게 한다.
정착	문화교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된다.

<그림10> 문화교실 오리엔테이션

노래 부르기

게임과 놀이

위의 <그림10>은 문화교실 개강을 앞두고, 새가족 사역자들과 문화교실 관계자 들이 참석하여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는 사진이다. 과목별 교육과정 설명과 강사들의 간단한 Workshop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자는 이를 통해서 문화교실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점검 및 스텝들과의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아래 <표45>와 <표46>에서 문화교실 과목과 강사, 장소와 간단한 현황들을 알 수 있는 지원서와 문화교실 과목별 세부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소그룹 하이터치 문화접근의 프로젝트 과정을 알 수 있다.

<표45> 문화학교 지원서[265]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로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과　목	강 사	내용	장　소	선 택
여성	독서	박미현	추천도서 읽고 함께 나눔	교회+가정	
	茶사랑	이미자	차와 함께 음악 감상	교회+가정	
	중창	김영진	노래교실, 아줌마 중창단	교회모임방	
	영화	안신자	추천영화 보고 함께 나눔	교회모임방	
혼성	포토	김영환	사진촬영 이론과 출사	교회+야외	
	기타	김범중	기초, 초급, 중급	교회모임방	
	놀이	성시용	레크리에이션	가정+야외	

[265]문화교실 특성상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남성	탁구	정종권	기초에서 게임까지	교회탁구실	
	족구	이관우	게임에서 친교까지	교회족구장	

※ 각 과목별 선착순 10명(등록숫자가 5명 이하인 과목은 폐강)
※ 등록비 / 각 과목별 $20

이 름		연락처		E-Mail	
주소					
소속	새가족, 기존교인, 지역주민	가능한 날 체크 (주일반 . 토요반 . 주중반)			

* 등록비는 강의 당일에 받으며, 자세한 문의는 양수현 간사

<표46> 문화교실 - 과목소개

과 목	강의 내용	강 사	시 간
독서	짧은 글 분석과 요약, 독서기술, 독서치료, 독후활동지도, 독서토론, 현장적용	박미현	목요일 오전10시
茶사랑	다도예절, 차 끓이기, 차의 종류별 맛보기, 음악과 차, 차에 얽힌 에피소드, 견학	이미자	목요일 오전10시
중창	발성법, 노래선곡, 노래배우기, 감정표현 화음 넣기, 가족초청 중창단공연	김영진	주일 오후1:30
영화	영상의 의미, 프레임과 구도, 빛과 색체, 음향 작가의 의도, 좋은 영화선정, 영화감상과 나눔	안신자	목요일 오전10시
포토	DSLR 카메라 기능과 효과, 구도 잡는 법, 작품사진 감상, 야외촬영, 포토샵에서 사진변환	김영환	토요일 오후2시

기타	조율하는 법, 코드배우기, 기초화성(순환코드) 쉬운 곡 연습, 독주, 합주, 가족초청 음악회	김범중	토요일 오후4시
놀이	레크리에이션의 진정한 의미, 놀이를 통한 전인적인 치유와 쉼, 다양한 놀이 인도법과 실제	성시용	토요일 오후4시
탁구	입문(용품, 경기규칙), 기초(그립법, 포 앤드롱, 팬홀더~백앤드롱), 응용(푸시, 서비스, 리시브, 드라이브, 스매시, 커트) 단식, 복식 게임실제	정종권	토요일 오후4시
족구	규칙배우기, 공과 친해지기, 서브, 리시브, 킥 게임을 통한 스포츠 정신, 게임의 실제	이관우	주일 오후1:30

Ⅵ. 과제평가(Project Evaluation)

1. 의식화 단계

본 연구자는 새가족 정착을 위한 소그룹 중심의 하이터치 접근을 위해서 먼저 의식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 접근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통해서 먼저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정리하고, 교회현장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의식화 교육이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과제시행에 바로 들어간다면 십중팔구 실패할 확률이 높다. 무엇보다 의식화 단계는 교회의 토양과 환경에 걸맞게 기획되고, Step by Step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고 변화하여 왔다.

한스 큉(Hans Küng)은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부터 현대의 교회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변해왔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한스 큉(Hans Küng)은 교회의 본질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변화하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로써의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네 번째는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다.[266] 본 연구자는 한스 큉(Hans Küng)이 교회의 본질로써 말한 첫 번째 변화하는 교회가 처한 시대마다 역사적 형태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교회상(象)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생겨나, 특정한 역사적

[266]Hans Küng, 5.

교회에 의해 실현 및 형성되고, 특정한 역사적 신학자들에 의해 개념화된다. 현실 교회의 현실의 본질은 역사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은 다양한 변모 속의 동일성이요, 갖가지 사건 속의 연속성이며, 변하는 현상 속의 일관성이다. 변하는 역사적 양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 고인 물은 썩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고, 따라서 역사는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고착 되어서 과거 지향적이 되고 묵은 땅이 되어 생명(organic)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인위적이고 조직적(organizational) 위세를 과시 할 뿐이다. 그러나 그 새로움이 혁명(revolution)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성경으로부터 예후의 개혁[267], 히스기야의 개혁[268], 요시야의 개혁[269]이 왜 실패했는지 겸허하게 배울 수 있다. 또한 에스라-느헤미야의 개혁은 왜 성공하였으며, 다윗은 사무엘의 개혁을 어떻게 승계하였는지 주목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뉴욕새교회에서의 의식화 작업은 조용한 혁명과도 같이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1) 의식화(conscientization) - 앎(knowing)과 행위(doing)에 대한 통찰과정에서 이론과 실제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무언가가 고쳐져야 한다는 모호한 피해

---

[267]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741513&cp=nv /03.14.2011 /장신대 장영일 총장은 예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그의 개혁이 과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68] 히스기야의 개혁 실패는 그의 자만에서 찾을 수 있다. 내탕고를 열어 보인 것이 계기가 되어 앗수르의 산헤립의 침공을 받고, 국고도 털리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왕하 18:13 이하)

[269] 열왕기하 23:25-30 에서 요시야 개혁의 실패는 갑작스런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요시야 개혁은 거기서 그치고 말았다. 요시야 개혁의 실패 중의 한 가지 이유는 마음이 공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식이나,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의식화는 바른 길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여 먼저 자기 성찰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한 헌신의 반복적 결단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다.

2) 조직화(organization) - 조직화는 어떤 프로젝트가 기획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필요부분을 구성하게 되는데 팀의 구성과 예산획득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운영방향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째, 훈련(discipline) - 의식이 행위로 전환되도록 하는 과정을 훈련이라고 한다. 훈련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이미 머리로 아는 것을 삶으로 살 수 있는 자세 정립이다. 특히 교회의 조직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훈련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둘째, 팀워크(teamwork) 형성 - 훈련은 팀워크 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개 훈련대상자 중에 개혁 의식이 뛰어나고, 선명한 헌신의 자세가 있는 자들로 개혁의 기획과 야전 지도자로 세우는 하나의 과정이다.

3) 동원화(mobilization) - 특정 현안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면 실질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 행동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바로 동원화 과정이다.[270] 이는 의식화와 조직화를 통해 준비된 군대가 전투에 들어가는 단계이기도 하다.

---

[270] http://cafe.naver.com/civilmovemen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 05.28.2011.

<그림11> 변화를 위한 세 단계

2. 의식화 작업을 위한 설문자료

의식화 작업은 새가족의 입장에서 그들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새가족 사역자에서부터 교인전체로 점점 의식을 확대해 가는 작업이다. 아래의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미래 한국리포트 조사결과 집계표로 '신뢰도'에 관한 것으로써 의식화 자료로 활용한다.

<표47> ▎질문 : 귀하는 귀하의 'ㅇㅇ'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271]

		사례수	가족	친구	친척	이웃	처음만난 사람
			%	%	%	%	%
전체		1009	98.4	90.8	86.4	64.2	16.4
성별	남자	498	98.1	91.4	87.8	59.8	13.8

[271]http://panel.gallup.co.kr/Gate/Panel/F025.aspx?seq=15294&PageID=F023&date/ 한국갤럽/조사기간 : 2010/09/28~2010/10/11 / 06.30.2011.

	여자	511	98.6	90.4	85.2	68.5	18.9
연령별	19-29 세	197	99.4	92.5	78.9	42.0	8.5
	30 대	215	97.9	92.4	83.5	58.8	14.9
	40 대	226	98.8	91.3	90.8	73.0	20.1
	50 대	175	97.5	87.1	87.4	70.8	20.4
	60세 이상	195	98.1	90.3	91.4	76.4	18.1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78	97.6	86.9	90.4	73.7	20.0
	고 졸	397	98.4	90.8	87.2	70.8	18.2
	대재이상	435	98.7	92.5	84.2	54.3	13.3

신뢰도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지만 처음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조사에서도 가족, 친구, 친척, 이웃, 처음만난 사람 순으로 대부분 나타나지만 50대와 60대 이후에는 친구보다는 친척에 더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는 가족에 대한 거의 전적인 신뢰도 99.4%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시기에는 처음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8.5%의 신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경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웃과 처음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다.

위의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역시 가족일 때 신뢰도가 높게 나온다. 이처럼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 분들을 새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소통에 관한 자료로 2010년 09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새가족과의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의식화 자료로 활용한다.

<표48> ▌질문 :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272]

		사례수	집단 이기주의가 강해서	사회 지도층이 권위적이어서	남의 말을 듣기보다 말하기 좋아해서	각자의 생활이 바빠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념 논쟁이 치열해서	범죄 증가 등 사회가 흉흉해져서
			%	%	%	%	%	%	%
전체		557	35.1	22.2	10.5	9.6	8.6	5.8	4.7
성별	남자	296	37.1	23.0	7.8	7.7	11.1	6.6	3.3
	여자	261	32.9	21.3	13.6	11.8	5.7	4.9	6.4
연령별	19-29세	117	29.0	23.2	13.8	11.7	7.2	4.1	4.9
	30 대	129	37.7	24.3	11.5	5.5	4.9	7.2	5.5
	40 대	129	45.3	20.1	8.1	6.9	9.9	3.9	3.0
	50 대	94	36.2	18.9	10.1	12.4	10.9	5.8	5.0
	60 이상	88	23.3	24.3	8.7	14.0	11.2	9.2	5.7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77	19.3	16.1	12.8	16.3	15.4	8.0	8.2
	고 졸	215	35.3	24.9	9.3	10.1	6.1	5.2	6.3
	대재이상	265	39.6	21.7	10.8	7.3	8.6	5.7	2.4

한국사회가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문조사에 참석한 3명 중에 1명꼴이 넘는 35.1%가‘집단 이기주의가 강해서’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사회지도층이 권위적이어서’라고 22.2%가 응답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듣기보다 말하기 좋아해서’ 라고 응답자의 10.5%가 답하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집단이기주의가 강하다고 답한 반면, 중졸 이하는 각자 생활이 바빠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반응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집단이기주의와 목회자나 중직자의 권위적인 부분, 그리고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요소들이 새가족들과의 소통에 방해가 되며, 그들을 공동체의 우리 속으로

[272]http://panel.gallup.co.kr/Gate/Panel/F025.aspx?seq=15292&PageID=F023&date/ 한국갤럽 / 조사시기 : 2010/09/28-2010/10/11 / 06.30.2011.

끌어들이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세 번째 개신교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새가족들과 전도대상자를 위한 의식교육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아래 조사는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의 관점에서 전국 만18세 성인남녀 1613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서 표본 오차 ±2.4% 내외이다.

<표49> ▌질문 :개신교에 대한 건의사항[273]

항목	%
신앙을 너무 강요하고 배타적이다	9.2
물질 중심적인 면이 많다	8.9
진정한 믿음과 마음을 중요시할 것	4.6
사회봉사 / 이웃사랑 실천	4.3
교파간의 대립이 심하다	4.0
전도방법 개선	2.1
선교와 전도에 힘쓸 것	2.0
교회 일에 지나치게 치중 / 가정을 등한시	0.9
성직자들의 수준 향상	0.8
정치적 중립	0.4
사이비 종교 난무	0.3
기타	0.3
없다	52.2
모름 / 무응답	15.0
계 사례수(명) 1613	100.0

개신교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 절반이 넘는 52.2%가 없다고 대답을 했고, 모름이나 무응답으로 15%가 반응한 것은 개신교에 대한 관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273] http://panel.gallup.co.kr/Gate/Panel/F025.aspx?seq=10788&DaeBunryuCd=02&Bunryu /한국갤럽/조사시기 : 1997/09/14-1997/09/26 / 06.30.2011.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항목으로는 '신앙을 너무 강요하고 배타적이다'고 9.2%가 답했고, 다음으로 '물질 중심적인 면이 많다'고 8.9%가 답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외적인 성장에 치중하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 심리로 '진정한 믿음과 마음을 중요시할 것'과 '사회봉사 및 이웃사랑 실천'으로 꼽고 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민 1세대들은 상당수가 소통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유창한 영어가 되지 않아서 미국주류사회에서의 소통부재, 둘째는 가정에서 자녀와의 소통의 부재, 셋째, 교회 안에서 기존성도와 새가족과의 소통부재를 들 수 있다. 이는 미국사회에서 한인 2세 10명 중 4명은 백인과 결혼 한다고 퀸즈 칼리지(Queens College) 민병갑 사회학 교수는 아시안 2세의 결혼 형태와 언어 사용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에서 한인2세 결혼대상자로 39.6%가 비히스패닉계 백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백인과 결혼한 타아시안과 비교했을 때 최고다. 이로 인해 언어 사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한다.[274] 한인2세들이 한인교회를 떠나는 것도 그들이 백인을 선택하는 것도 소통에서 오는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50> ▌질문 :사람들과의 소통정도[275]

		사례수	잘 소통한다.	어느 정도 소통 한다.	별로 소통하지 못한다.	전혀 소통하지 못한다.	모름 무응답
			%	%	%	%	%
부모	전체	805	25.6	54.6	16.6	2.5	0.7

[274] http://blog.daum.net/susyyanj201/6472/뉴욕중앙일보/01.21.2010.

[275] http://panel.gallup.co.kr/Gate/Panel/F025.aspx?seq=15295&PageID=F023&date/조사기간 /2010.09.28~2010.10.11 / 06.30.2011.

	남자	401	25.4	54.6	18.1	1.8	0.2
	여자	404	25.8	54.7	15.1	3.2	1.2
자녀	전체	733	28.2	54.6	15.5	0.9	0.8
	남자	323	25.4	52.1	20.8	1.2	0.4
	여자	410	30.3	56.6	11.4	0.7	1.0
친구	전체	1009	35.1	55.6	8.0	0.3	1.0
	남자	498	35.8	53.2	9.3	0.6	1.1
	여자	511	34.3	58.0	6.8	0.0	0.8
이웃	전체	1009	13.7	49.1	26.1	6.8	4.2
	남자	498	13.0	44.4	31.2	6.7	4.6
	여자	511	14.4	53.6	21.2	7.0	3.9

사람들과의 소통 정도에서 '소통을 잘 한다'와 '어느 정도 소통 한다'를 합친 비율을 보면, 부모 80.2%와 자녀 82.8% 보다 친구와의 소통 정도가 가장 높게 90.7%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별로 소통하지 못 한다'와 '전혀 소통하지 못 한다'에서는 이웃과의 정도에서 33.0%로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친구와의 소통 정도가 8.3%로 가장 낮게 나온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위의 조사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사실은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하이터치 접근을 위해서 친구 같은 소통의 중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초기 이민자들에게 교회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한인커뮤니티였다. 그런 이유로 한인1세 70% 이상이 교회를 다닌다.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달라졌다. 다양한 커뮤니티로 인해 교회에서 얻었던 정보와 도움들을 인터넷이나 한인방송 TV 등을 통해서 얻는다. 그런 이유로 최근에 교회를 찾는 새가족은 신앙적인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51> 1997년 한국갤럽조사 종교인의 신앙이유[276]

항목	%
마음의 평안을 위해	53.7
영생과 창조주에 대한 믿음으로	17.3
가정환경이나 주위의 권유로	11.1
복을 얻기 위해	10.0
진리와 올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4.6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0.6
기타	1.0
없다	0.4
모름 / 무응답	1.3
계 사례수(명) 757	100.0

위의 조사를 통해서 종교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53.7%가 응답했다. 다음이 영생과 창조주에 대한 믿음으로 답했으며, 가정환경이나 주위의 권유가 세 번째 이유였다. 물론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10%나 되었다.

<표52> 2008년 한국갤럽조사 종교를 믿는 이유?

항목	%
마음의 평안을 위해	67.9
복을 얻기 위해	15.6
영생과 창조주에 대한 믿음으로	7.8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7.0
기타	1.7
계	100.0

[276] http://panel.gallup.co.kr/Gate/Panel/F025.aspx?seq=10661&DaeBunryuCd=02&Bunryu /조사기간 : 1997/09/14-1997/09/26/ 06.30.2011.

10년이 지난 2008년 조사에 의하면[277], 3명중 2명 정도인 67.9%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로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복을 받기 위해' 15.6%, '죽은 다음 영원한 삶을 위해' 7.8%,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가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21세기 하이테크 시대가 될수록 문명의 이기로 인해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 반면 마음의 평안과 복을 점점 더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인은 '죽은 다음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2.7%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불교인은 1.8%로 낮게 나타났다. 천주교인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8.0%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66.4%)보다 여자(69.4%)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종교를 믿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마음의 평안'이 높은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복 받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는 '불교'라는 응답이 37.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천주교(17.0%), 개신교(12.3%) 순이었다. 호감을 느끼는 종교가 '없다'라는 응답도 33.0%를 차지했다.

위에서 살펴본 자료들은 실제 의식화 교육을 위해 PPT자료로 활용된 자료들이다. 새가족 정착을 위한 하이터치 접근 방식에 대한 기존 성도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훈련과 적용은 많은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단계별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새 가족 정착을 위한 하이터치 접근에 대한 1단계 준비와 홍보영상을 광고를 제작한다. 2단계는 의식교육의 일환으로 홍보전단지배포와 현수막제작 그리고 새가족 사역자 교육, 3단계는 소그룹 목자 교육과 평가로 모든 강의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알기 쉽게

---

[277] 한국갤럽의 배남영 차장, 2008 년 5 월 9 일(금) YTN FM 94.5MHz '출발 새 아침'

설명하면서, 분명한 방향과 결과를 제시한다. 그런 후에 평가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부연적인 설명과 부서별 토의를 거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이 단계가 끝나면 각 부서별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인 훈련과 적용에 대한 사전준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림12> 의식화 단계

의식화 단계는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준비에서 평가까지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의식화 작업을 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은 홍보와 교육이다. 전체 교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어서 새가족 사역자와 소그룹 목장의 리더인 목자로 핵심멤버로 전개되어야 한다.

3. 과제 시행 계획

앞에서 살펴본 의식화, 조직화, 동원화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의식화 작업을 위한 설문조사나 자료가 선행되어야 과제 시행 계획에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표53> 단계별 과제 시행 계획표[278]

기간		연구 주제	연구 활동 내용	비고	목표
의식 변화	2009 9월	기획안 작성	시행전략수립, 소그룹 중심 새가족 13기 개강	Site Team 구성	의식 2개월
	10월	단계별 토의	실현 가능한 연구 활동이 되도록 각 단계별로 토의	PPT 작업	
행동 실천	11월	감성접근/8주 (새가족)	Narrative Bible Study	이야기식 성경교재	참여 활동 7개월
	12월	팀별 훈련 (사역자)	바나바팀, 심방팀 영접팀, 교육팀 훈련	훈련교재 제작	
	2010 1월	영성접근/7주 (새가족)	Encounter Seminar	Encounter 자료제작	
	2월	부서실전배치 (사역자)	새가족부, 안내부, 차량부 Position 및 역할분할	Task Force 홍보영상	
	3월	문화접근/12주 (새가족)	Culture Class	문화교실 자료제작	
	4월	매뉴얼작성 (사역자)	새가족 출석에서 정착까지	교육팀	
	5월	전교인수련회	새가족 및 전교인 수련회	핸드북제작	
구조 및 평가	6월	은사발견세미나 양육시스템정착	새 가족들의 은사발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PLACE DISK	구조 개혁 1년 (지속)
	7월	사역배치	은사별로 사역을 통한 생산과 재생산	정착율점검	

[278]본 연구를 위해 1년간 진행된 Date Base이다. 시행 시기는 2009. 09-2010. 08.

	8월~ 5월	매뉴얼 가동 분석 및 평가	새가족 뿌리 내리기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수정안작성	

1) 의식 변화를 위한 계획 -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추진한다.

(1) Site Team 구성 : 본 연구자와 함께 과제시행계획을 추진해 나갈 4명의 사이트 팀[279]을 구성한다.

(2) 기획안 작성 : 시행전략 수립과 소그룹 중심 새가족 13기 개강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가족 사역자들과 사이트 팀이 함께 기획에 참여한다.

(3) 단계별 토의 : 실현 가능한 연구활동이 되도록 각 단계별 토의자료를 PPT로 만들어 의식화, 조직화, 동원화에 활용한다.

2) 행동 실천적 계획 - 11월부터 5월까지 7개월 동안 3단계로 추진한다.[280]

(1) 1단계 : 팀별훈련(사역자) 및 하이터치 감성접근(새가족) / 8주 - 바나바, 심방, 영접, 교육팀 훈련. 5주간 이야기식 성경공부와 주제영상, 3주간 소그룹 목장활동에 참여한다.

(2) 2단계 : 부서실전배치(사역자) 및 하이터치 영성접근(새가족) / 7주 - 새가족, 안내, 차량부 위치와 역할. 5주간 인카운터 세미나에서 5명의 성경 인물을 만나고, 2주간 소그룹 기도회와 간증모임에 참여한다.

(3) 3단계 : 매뉴얼작성(사역자) 및 하이터치 문화접근(새가족) / 12주 - 새가족 출석에서 정착까지 매뉴얼 작성. 기타반, 영화반, 독서반, 노래반, 놀이반, 다도반, 족구반, 탁구반 등 문화교실(동호회)에 참여한다.

<표54> 새가족을 위한 행동 실천적 세부계획표

---

279 <표60> Site Team Profile을 참조.

280 <표54> 새가족을 위한 행동 실천적 세부계획표 참조.

훈련 및 적용		기간	연구활동내용	비고
하이터치1 감성접근	Narrative Bible Study	1주	1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제영상1
		2주	2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제영상2
		3주	3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주제영상3
		4주	4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제영상4
		5주	5과 교회와 그 중요성	주제영상5
	Small Activity	6주	혼성목장 탐방	선택1
		7주	여성목장 탐방	선택2
		8주	새가족 시범목장	전체
하이터치2 영성접근	Encounter Seminar	9주	야곱-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Activity1
		10주	탕자-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Activity2
		11주	향유 부은 여인 - 거절감정치유	Activity3
		12주	다윗 - 나의 신분과 사명(자아상)	Activity4
		13주	아브라함 - 성공으로 이끄는 비전	Activity5
	Retreat	14주	수련회준비 및 사역팀 기도회	특별기도회
		15주	1박2일 영성훈련을 위한 수련회	간증집회
하이터치3 문화접근	Culture Class	3개월 과정	기타모임 “기초에서 연주까지”	교회or가정
			영화모임 “좋은영화선정”	교회or극장
			독서모임 “시나 수필집”	교회or카페
			노래모임 “CCM 중창단”	교회or가정
			놀이모임 “레크리에이션”	교회or야외
			그 외 포토, 족구, 탁구, 茶사랑	교회or가정

3) 구조변화를 위한 계획 - 2010년 6월부터 1년 동안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1) 은사발견세미나 : 새가족의 은사발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PLACE와 DISK 등을 활용하여 교회에 적용한다.

(2) 사역배치와 매뉴얼가동 : 은사별 사역 배치를 통한 생산과 재생산이 이뤄지며, 새가족 양육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3) 분석 및 평가 : 새가족 뿌리내리기(정착율) 점검을 통한 선택과 집중에 치중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평가한다.

<표55> 새가족 사역의 매뉴얼 - 출석에서 정착까지[281]

1단계 - 등록 전 단계

▌주차 봉사자를 위한 점검

시간	내용	대상	장소
오전8:30-40	기도 및 점검	교역자(기도), 1부 봉사자	새가족 환영실
오전8:40-9:40	주차봉사	1부 봉사자	교회 주차장
오전9:30-10:40	기도 및 점검	교역자(기도), 2부 봉사자	새가족 환영실
오전10:30-12:30	주차봉사	2부 봉사자	교회 주차장

• 봉사자를 위한 준비물 : 교회로고된 조끼, 주차용 봉, 명찰, 무전기, 호각, 장갑

• 봉사자 역할분담 - 1부 담당, 2부 담당

• 봉사자 모집광고 및 주차캠페인 - 봉사자 확보, 새가족과 노약자 우선주차

▌주차장에서 예배당까지 안내 - 바나바[282](1부, 2부 담당자)

---

[281] 2009 년 9 월부터 의식화, 조직화, 동원화의 단계를 거쳐 매뉴얼로 만들어져 실행되고 있다. 새가족 사역의 매뉴얼에 사용된 여러 개의 표를 하나로 묶어서 <표 55>으로 대신한다.

시간		역할	장소	준비물
1부	오전8:40-9:10	자리안내 및 새가족 방문목적 기록(교역자보고)	교회입구(안내)	바나바일지, 필기도구
	1부 예배 후	인사 및 소개(담임목사님) 환영	새가족 환영실 (친교실)	간식과 다과(영접부)
2부	오전10:30-11:10	자리안내 및 새가족 방문목적 기록(교역자보고)	교회입구(안내)	바나바일지, 필기도구
	2부 예배 후	인사 및 소개(담임목사님) 환영	새가족 환영실 (친교실)	식사와 다과(영접부)

▌첫 주 바나바사역 보고서 기록요령(새신자 등록카드와 구분)

- 방문목적을 간단하게 기록한다.
- 참석한 인원과 인도자 혹은 교회 아는 분 기록
- 예배 후 돌아가기까지 행적을 간단하게 기록
- 다음 주에도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

▌바나바 사역의 달라진 점[283]

- 기존에는 연결해준 새가족을 만났다면 이젠 처음부터 새가족을 만남(안내부 도움)
- 새가족이 등록하는 순간부터 적합한 바나바를 교역자와 부장에 의해 선정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

소요시간	내용	담당	준비물
10분	인사 새가족 소개 및 환영	담임목사 바나바 & 영접부	바나바 일지 환영송(기타)
5분	새가족 홍보 영상	담당 교역자	노트북과 LCD연결 (사전에 세팅)

---

[282]본 연구과제에서는 바나바를 새가족 사역자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283] 새가족 등록이 불규칙 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바나바 사역자는 오랜 대기로 인한 역할의 부재로 자연스럽게 다른 사역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되므로 바나바 사역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리하게 되었다.

25분	기도와 식사	담당자 & 영접부	식사, 음료, 과일
10분	등록, 사진촬영, 환송	바나바 & 담당자	새신자 등록카드 즉석사진기, 디카

2단계 - 등록에서 새가족반 교육

▌새가족반 교육전까지 바나바의 역할

개요	역할	내용	비고
환영	편안한분위기	방문목적과 예배실 안내, 소개와 환영	1주
관심	전화심방	안부와 교회분위기, 주일예배 참석여부	2주
돌봄	심방연결	심방교역자 & 담임목사와 함께 심방	3주
교제	교인소개	교인소개, 본격적으로 교회 둘러보기	4주
소속감	친해지기	목장 방문 및 봉사자소개	5주 - 새가족반

▌새가족 사역자수칙

- 동성(同性)과의 만남(부부 함께 하는 경우는 예외)
- 최소 6명[284]과의 교인 소개
- 새가족 안에 다른 부서들과 연계한 사역
- 새가족반 네러티브 성경공부와 인물별 Encounter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새가족 조직 및 역할(팀장을 중심으로 새가족 4개 부서)

담 임 - 양승구 목사

지 도 - 이재용 목사

팀 장 - 김주명 장로

---

[284] 여섯 다리만 건너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이라는 서양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친한 사람 여섯 명 이상만 있으면 어떤 공동체이든 정착할 수 있다.' 영국의 한 사회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바나바부	심방부	영접부	교육부
부장: 문경일 차장: 정현정	심방전도사: 왕영선 부장: 김은숙	부장: 민지숙 차장: 강지희.이은숙	부장 : 박진두
박진두, 박희순, 신동순 신은정, 이경학, 김경민 이홍정, 이미자	박미현사모, 권사회 바나바(관련목장)	신의철 지자선	박희순 김경민 (새가족반 교육)

▐ 월1회 전체모임(담임목사&담당교역자&바나바부&심방부&영접부&교육부)

• 새가족 등록현황 파악

• 각 부서별 유기적인 연대 강화

• 새가족 정착을 위한 기도회

▐ 새가족반 성경공부(교육)

※개강시기와 횟수[285]

• 1차 : 1/4분기(1월 개강)

• 2차 : 2/4분기(4월 개강)

• 3차 : 3/4분기(9월 개강)

• 4차 : 4/4분기(11월 개강)

▐ 교육내용

주	과목	도입영상
1주	1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떠난 탕자
2주	2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곰보 약장수의 약초
3주	3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사랑 잇기
4주	4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낡은 성경책 한권
5주	5과 교회와 그 중요성	일곱 소리 마을

▐ 교육일정

[285] 새가족 등록상황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변동 가능함.

시간	제목	인도	비고
1:00-1:07(7분)	소개 및 기도	담임목사	*첫 주
1:00-1:20(13분)	찬양과 나눔	담당교역자	기타, 악보
1:20-1:25(5분)	주제영상	담당자	영상CD
1:25-2:05(40분)	강의	담당교역자	교재
2:05-2:10(5분)	결단	담당교역자	기도제목
2:10-2:15(5분)	광고, 출석체크	담당자	출석부, 다과

▍새가족반 교육(성경공부)의 효과와 기대

- 내러티브 성경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흥미를 가진다.
-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귐과 만남이 이뤄진다.
- 뉴욕새교회의 첫 번째 양육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 소그룹 목장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3단계 - 목장에서 정착까지

▍새가족에게 목장이 필요한 이유

새가족에게 대그룹 예배 이외에도 소그룹 목장을 통한 만남이 풍성한 나눔과 교제로 이어지며, 성도로서 소속감과 함께 안정적으로 교회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가족들이 목장에 들어가는 방법

방안	내용	비고
기존 목장	새가족반 교육 중이나 끝난 후에 목장방문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	목장방문시 자신이 선택
분가 목장	새가족반 교육이 끝나는 시점으로 목장 분가 타이밍을 정해서 분가하는 방법	새가족이 목장을 희망할 때, 교역자, 목자, 바나바 선정

새로운목장	잘 훈련된 목자와 Helper가 새로운 목장을 희망할 때 새가족반을 중심으로 목장을 개척[286]	새가족반에서 관계형성으로 모두가 희망할 때

아래의 2008년 새가족반 명단을 보면 32명 중에서 35% 정도의 11명만 수료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 가을과 2010년 봄, 2회에 걸쳐 본 연구과제의 시행과제인 소그룹 중심의 하이터치 접근을 통해서 두 번의 새가족반 모임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 2009년 하반기에는 11명 중에서 9명이 수료하여 82%가 넘었고, 2010년 상반기에는 7명 중에서 5명이 수료하여 71%가 넘어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새가족 정착을 위한 소그룹 하이터치 접근은 평균 76%의 결과가 나왔다.

<표57> 2008년 새가족반 현황

새가족반 출석부 (2008년 11월 9일)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김명이	O	O	O	O	O	12	송진행	O		O	O		23	전상욱		O	O	O	O
2	김명임	O		O			13	송호윤	O	O	O	O	O	24	전성이		O	O	O	O
3	김숙희	O		O		O	14	신정수		O	O	O	O	25	전경자		O	O	O	O
4	김순식	O	O	O	O	O	15	오현주	O	O	O	O	O	26	정숙희	O		O		
5	김은양	O	O	O	O	O	16	유인형	O	O	O	O	O	27	정준경			O	O	O
6	김진석	O					17	윤난주	O	O				28	주명자	O	O	O	O	O
7	김희숙	O	O	O	O		18	윤지혜	O	O		O	O	29	차경희	O	O	O		O
8	박상희	O	O	O	O	O	19	이선희			O	O	O	30	최동일	O	O	O	O	O
9	박준범	O	O	O	O		20	이연숙	O		O	O	O	31	최정희	O	O	O	O	O
10	성미경		O		O		21	이종범	O	O	O	O	O	32	홍진식		O		O	
11	송선미	O			O		22	장우택	O		O									

[286]신안균 . 신학선 목자 부부의 헌신으로 13 기 새가족반 대부분이 목장에서 정착한 사례.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32명이라는 중그룹 중심으로 진행된 새가족반 모임은 참석률[287]에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쌍방향의 하이터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하는 심리작용도 했으리라 본다. 하지만 2009년 가을부터 소그룹 중심으로 전환하여 하이터치 접근으로 진행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아래의 <표58>와 <표59>에서 잘 증명되고 있다.[288]

<표58> 2009. 9.27~11.1 새가족반 현황

❍ 출석자명단

번호	이름	1과	2과	3과	4과	5과	비고
1	권정란	O	O	O	O	O	새가족반 13기수료
2	권지현	O	O	O	O	O	새가족반 13기수료
3	김수희	O	O	O	O	O	새가족반 13기수료
4	박동원	O	O	O	O	O	새가족반 13기수료
5	이미자	O	O	O	O	O	새가족반 13기수료
6	이홍정	O	O	O	O	O	새가족반 13기수료
7	고종완	O	O	O	O	O	새가족반 13기수료
8	황제니	O	O	O	O	O	새가족반 13기수료
9	최미영	O	O	O	O	O	새가족반 13기수료
10	성시용		O	O		O	
11	김은단	O		O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뉴욕 새 교회**

[287]새가족반 32명 중에서 11명만 수료를 하였다.

[288]www.newchurchny.org/양육과훈련/새가족반/ 뉴욕새교회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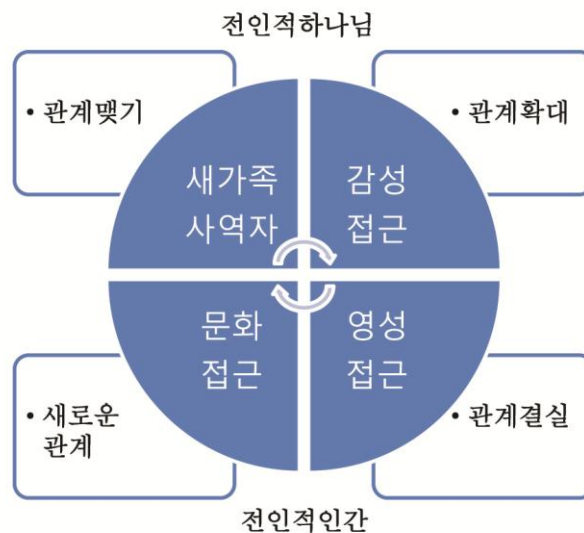
<표59> 2010. 4.25~6/13 새가족반 현황

❍ 출석자명단

번호	이름	1과	2과	3과	4과	5과
1	김영숙	○				○
2	김선태	○				○
3	김은단	○	○	○	○	○
4	복달젠터키	○	○	○	○	○
5	왕연종	○	○	○	○	○
6	성시용	○	○	○	○	○
7	왕영선	○	○	○	○	○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뉴욕 새 교회**

조사 결과 새가족 정착률은 위의 새가족반 성경공부 수료자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과제가 시행된 2009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50% 정도의 정착율을 나타낸 반면,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9부터 2010년까지 과정을 통해서 80% 이상의 새가족 정착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소그룹 중심의 하이터치 접근이 효과적인 면에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13> **하이터치 시스템**

하이터치 접근을 통한 새가족 정착단계를 위의 그림으로 나타냈다. 기존의 중그룹 중심[289]에서 소그룹 중심[290]으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가족 등록과 함께 위로는 전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래로는 전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4단계의 관계형성을 통해 새가족 정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를 통해서 새가족 사역은 재생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첫째, 새가족 사역자들을 통하여 새가족과의 관계 맺기가 시작된다.

둘째, 하이터치 감성접근으로 Narrative Bible Study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확대뿐만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새가족과 사역자 모두 관계 확대로 이어진다.

셋째, 하이터치 영성접근으로 Encounter Seminar를 통해서 관계결실로 이어진다. 넷째, 하이터치 문화접근으로 Culture Class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로 이어져 주위의 전도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문화교실 안에서 재생산이 이뤄지게 된다.

4. 연구반원 평가(Site Team Evaluation)

1) 연구반원의 형성과 진행과정

본연구자는 2009년 9월 초부터 뉴욕새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Site Team 결성을 위해 물밑작업에 돌입했다. 아래의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연구반을 형성했다.

첫째, 교회 안에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둘째, 부담 없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셋째,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

[289] 2008 년 기준 새가족반 32 명 진행, 새가족 사역자 30 여명.

[290] 2009 년 기준 새가족반 10 명 내외, 새가족 사역자 10 여명.

넷째, 다양한 연령층 등이다.

<표60> Site Team Profile

이름	나이	직업	학력	특기
고종완	28세	공인회계사(CPA)	대졸	재정운영
공희숙	53세	사업 (세탁소 운영)	대졸	양육
김민정	39세	현직초등학교교사	대학원	교육행정
차은숙	47세	새한국문화학교교사	대졸	교육

(1) 고종완 -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예능교회(서울 평창동)에서 교회학교부터 가르쳤던 제자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뉴욕새교회로 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젊고 패기 있는 전문인(CPA)으로 맨하튼(manhattan)에 있는 LG 해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구반으로서의 역할은 기획과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공희숙 - 그녀는 본 연구자가 렌트해서 살고 있는 20 Merryll Place, Plainview NY11803 주택의 소유주이다. 맨하튼(manhattan)과 훌러싱(Flushing) 2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바로 옆집에 살고 있기에 만나기 편하고,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다. 연구반에서 그녀의 역할은 심리적 고독으로부터 친밀감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김민정 - 그녀는 본 연구자가 교감으로 있던 새한국문화학교 교사로 지원하여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맨하튼에 소재한 초등학교 K반 교사이며, 현재 교장 자격증도 획득했다. 연구반에서의 역할은 서기와 교육을 감당했었다.

(4) 차은숙 - 그녀 또한 새한국문화학교 교사였기에 만나게 되었다. 현재 그녀는 두 아들 공부를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서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한다. 사람들이 잘 따르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연구반에서의 역할도 인원 동원

이었다.

위에서 나열한 4명의 연령층이 20대에서 50대까지 잘 분포되어 있고, 교회에서 특별히 중직자는 없지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로 본 연구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0년부터 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그룹 중심의 새가족 사역자 부서들을 운영했다. Site Team의 결과물로 나오게 된 아래의 조직 안에서 4명의 바나바(문경일), 영접(민지숙), 심방(김은숙), 교육(박진두) 부장들이 본 연구자와 함께 실질적인 사역을 운영하게 되었다. 연구반원들이 전체적인 베이스를 깔았다면, 이들을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하이터치 접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림14> 새가족 사역부장과 차장

위의 새가족 사역팀장과 차장의 역할은 본 연구자가 실제적으로 사역현장에서 연구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역자들이다. 어쩌면 연구반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역현장에서 본 연구과제를 위해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평가 과정에서 이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2) 연구반원 활동 및 Date Base 작성

<표61> Site Team 활동 및 Date Base 작성

일 시	참석자	장 소	내 용
09/12/2009 토 오후 5:30	고종완, 공희숙 김민정, 차은숙	교회 모임방	오리엔테이션 및 기획안
09/19/2009 토 오후 5:30	고종완, 공희숙 김민정, 차은숙	본 연구자 집	Narrative Bible Study 실습에 대한 검토
09/26/2009 토 오후 5:30	고종완, 김민정 차은숙	교회 모임방	13 기 새가족반 준비 및 소그룹 중심의 성경공부 토의
10/10/2009 토 오후 5:30	고종완, 공희숙 김민정, 차은숙	김민정 집	전교인 대상 새가족 정착에 관한 홍보 전략
10/24/2009 토 오후 5:30	고종완, 김민정	교회 모임방	바나바, 심방, 영접, 교육 부서별 은사배치 점검
11/14/2009 토 오후 5:30	고종완, 공희숙 김민정, 차은숙	교회부근 IHop 레스토랑	새가족반 수료자 대상 반응평가 인터뷰
12/12/2009 토 오후 5:30	고종완, 공희숙 김민정, 차은숙	교회 모임방	조직화 및 동원화 계획 및 홍보영상 제작
01/17/2010 주일 오후 1:30	고종완, 김민정 차은숙, 문경일, 왕영선, 민지숙, 박진두	교회 모임방	새가족 사역부서장 참석 새가족 출석에서 정착까지 매뉴얼 점검
02/13/2010 주일 오후 1:30	고종완, 공희숙 김민정, 차은숙 새가족사역부장 4	교회 모임방	하이터치 영성접근을 위한 Encounter Seminar 토의 (2010. 2. 25 세미나 개강)
03/14/2010 주일 오후 1:30	공희숙, 차은숙 문경일, 왕영선 박진두	교회 모임방	하이터치 문화접근을 위한 Culture Class 토의 (2010. 4. 10 오픈)
04/11/2010 주일 오후 1:30	고종완, 공희숙 김민정, 차은숙 새가족사역부장 4	교회 모임방	은사발견세미나 준비 및 새가족 은사별 사역배치 토의
05/30/2010 주일 오후 1:30	고종완, 공희숙 김민정, 왕영선 민지숙, 박진두	교회 모임방	새가족 수련회(전교인확대) 기획 및 소그룹목장 배치 점검
06/26/2010 토 오후 6 시	김민정, 차은숙 문경일, 왕영선	교회모임방	사역배치 및 새가족 정착율 점검
08/08/2010 주일 오후 1:30	고종완, 공희숙 김민정, 차은숙 문경일, 왕영선	교회모임방	Site Team 종합평가

	민지숙, 박진두		

2010 년 1 월부터 Site Team 에 새가족 사역부장(문경일, 왕영선, 민지숙, 박진두) 참석 하여 과제실행에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평가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3) 연구반원들의 평가

새가족 정착을 위한 소그룹 하이터치 접근에 대한 연구반원들의 평가를 10 가지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91]

<표 62> 연구반원(새가족 사역부장 포함)들의 평가

항목	매우 좋았음 (5점)	좋았음 (4점)	보통 (3점)	적당하지 않음(2점)	부적절 (1점)	평가점수 (합계/만점)
기획력	5	3				37/40
항목별평가	92.5점 탁월함을 나타낸 분야					
의식화	3	3	2			30/40
항목별평가	75점 가능성이 있는 분야					
조직화	3	4	1			34/40
항목별평가	85점 우수성을 나타낸 분야					
동원화	1	3	3	1		28/40
항목별평가	70점 가능성이 있는 분야					
홍보전략	4	4				36/40
항목별평가	90점 탁월함을 나타낸 분야					
파트너십	5	2	1			36/40
항목별평가	90점 탁월함을 나타낸 분야					
Narrative	6	2				38/40
항목별평가	95점 탁월함을 나타낸 분야					
Encounter	3	3	1	1		32/40
항목별평가	80점 우수성을 나타낸 분야					
Culture	1	2	3	1		24/40

[291] 연구반원(4 명), 새가족 사역부장(4) 구성된 평가단에서 위의 10 가지 항목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함.

항목별평가	60점 더 발전되어야 할 분야					
사역배치	2	2	2	2		28/40
항목별평가	70점 가능성이 있는 분야					
※백분율로 환산하여 아래의 점수에 따라 평가를 내림 *90점 이상 = 탁월함을 나타낸 분야 *89-80점 = 우수성을 나타낸 분야 *79-70점 = 가능성이 있는 분야 *69-60점 = 더 발전되어야 할 분야 *59점 이하 = 피하거나 완화시켜야 할 분야						

(1) 탁월함을 나타낸 분야 - 기획력, 홍보전략, 파트너십, Narrative 성경공부 이 네 가지 항목에서 8명의 평가단원들이 골고루 높은 평가를 내려 평균 90점이 넘는 높은 점수가 나왔다. 한 편으로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서울예능교회 사역을 통하여 이미 이 분야는 검증이 되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한다.

(2) 우수성을 나타낸 분야 - 조직화, Encounter Seminar 이 두 가지 항목에서 85점, 80점의 점수가 나왔다. 무엇보다 인카운터 세미나 관련 부분에서 약간의 실망감이 있다. 그 당시 본 연구자나 그 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주 좋았거나 좋았다고 답한 반면, 참여하지 않는 평가단원들이 보통 혹은 적당하지 않음으로 평가함으로 평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이 영역에서는 한국에서도 강사로 활동할 정도로 나름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수긍한다.

(3) 가능성이 있는 분야 - 의식화, 동원화, 사역배치 이 세 가지 항목에서 각각 75점, 70점, 70점으로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나타났다. 어쩌면 교회 성장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닐 수 없다. 대중을 끌어 모으는 사람들은 대개 이 영역에서 은사가 남다르다. 왜냐하면 선동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던져주고,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여 사람들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4) 더 발전되어야 할 분야 - Culture Class로 이 한 가지 항목이 60점으로 나왔다. 본 연구자는 문화의 터 위에 세워진 예능교회에서 문화사역을 해 왔다. 특히 장신대 임성빈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문화사역연구원과 연계하여 예능교회 안에서 뮤지컬

극단도 지도하고, 미디어학교와 각종 동호회까지 맡아서 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이터치 문화접근으로 시도했지만 미국한인교회의 특성상 교회 안에서 문화교실에 대한 인식부족과 컨텐츠가 미약한 것이 주되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아쉬움을 표현하자면 외부로부터 특별강사가 아닌 교회 안에서 구하다 보니 아무래도 Name Value의 문제가 대두되며, 바쁜 맞벌이 부부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했음을 평가단원들의 나름대로의 평가였다.

(5) 피하거나 완화시켜야 할 분야 - 다행히 이 항목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후관리 문제나 지속적 가능한 연구과제로 남을 수 있기를 평가단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본 연구자 역시 하나의 큰 부담으로 남는 것도 사후관리와 지속가능한 사역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아무리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시켜도 새가족 담당 교역자가 본 연구자가 수행한 일정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Ⅶ. 목회자의 유능성 개발(Personal evaluation)

1. 문화코드 읽어내기 - 하이터치(High Touch)

장신대 주승중 교수는 “오늘의 설교자들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의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292] 이 시대의 문화코드를 읽어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수석 대변인을 지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2006년 자신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미래 사회의 중요한 2가지 요소를 하이컨셉(high concept)·하이터치(high touch)로 정리했다. 하이컨셉은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결합시켜 새롭게 의미화 하는 창조적 능력, 하이터치는 사람들과의 감성적 교류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 내는 소통적 능력을 뜻한다. 하이테크의 기술이 도입되면 될수록 그 반동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함이 찾게 되는 문화코드는 TV광고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한 손엔 성경, 다른 한 손엔 신문’이란 말로 유명하다. 신앙과 문화코드를 균형 있게 바라보라는 권고이기도 하다. 선데이 크리스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앙은 교회에서만, 삶은 내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가 점점 문화코드에 벗어난 설교, 교육, 전도와 선교, 교제 등에서 감동(감성터치) 없는 강요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정착하지 못하는 전입교인들을 통해 자주 듣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자는 하이터치 문화코드를 읽어내기 위해 다양한 서적과

[292]주승중, *영상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설교하라*(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4), 7.

문화 Contents를 접하며,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키고, 시대 상황에 걸맞은 교회문화를 만들어 가는 목회자라고 자부한다.

1) 독서계획 : 이 시대의 문화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본 연구자는 독서계획을 세웠다.

<표 63>

<table>
<tr><th>도서명</th><th>내용 소개</th><th colspan="2">일정</th></tr>
<tr><td rowspan="3">그리스도와 문화

저자: 리처드 니버
역자: 김재준
출판사: 대한기독교서회</td><td rowspan="3">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바른 문화관을 정립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나아가 문화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td><td colspan="2">2010 년 5 월 첫 주</td></tr>
<tr><td>독서시간
(매일 3 시간)</td><td>3 일</td></tr>
<tr><td>내용요약
(A4 1-2 장)</td><td>1 일</td></tr>
<tr><td rowspan="3">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

저자: 임성빈
출판사:
예영커뮤니케이션</td><td rowspan="3">이 책은 교회가 문화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고민해야 할 이론적 기반들과 함께 실제적 문화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를 근거로 문화선교에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td><td colspan="2">2010 년 5 월 둘째 주</td></tr>
<tr><td>독서시간
(매일 3 시간)</td><td>3 일</td></tr>
<tr><td>내용요약
(A4 1-2 장)</td><td>1 일</td></tr>
<tr><td rowspan="2">디지로그 선언
저자: 이어령
출판사: 생각의 나무</td><td rowspan="2">디지탈과 아날로그의 조화와 융합, 디지로그적 생각과 철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이</td><td colspan="2">2010 5 월 셋째 주</td></tr>
<tr><td>독서시간
(매일
3 시간)</td><td>2 일</td></tr>
</table>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내용요약 (A4 1 장)	1 일
대중문화도 거룩해 질수 있는가? 저자: 방성기 출판사: 예영커뮤니케이션	이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대중문화에 대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갖도록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것이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명령은 대중문화에도 예외는 아니다.	2010 년 5 월 넷째 주	
		독서시간 (매일 3 시간)	3 일
		내용요약 (A4 1-2 장)	1 일
하이테크 하이터치 저자: 존 나이스비치 역자: 안진환 출판사: 한국경제신문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며, 미래학자인 저자는 진보와, 속도, 정보경쟁 등에 지친 현대인들이 기술의 결과를 음미하고 인간성 회복을 생각해 보도록 권하고 있다.	2010 년 6 월 첫 주	
		독서시간 (매일 3 시간)	4 일
		내용요약 (A4 1-2 장)	1 일

2) 참여계획

<표 64>

일정	내용	장소
6 월 둘째 주	영화관람	극장
6 월 셋째 주	문화인과의 대화	교회나 학교
6 월 넷째 주	인터넷 문화세미나 청강	집(컴퓨터)

3) 교회적용 - 문화교실(표 45‘문화학교 참조’)

(1) 독서모임 개설

(2) 영화모임 개설

4) 개인적용

(1) 설교에 도입

(2)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 교육

5) 결과

(1)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 그 시대에 맞는 문화의 옷을 입고 접근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3) 새 가족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

2. 다음 세대 준비 - Teaching Method & Contents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하셨다.(창1:26)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하지 않고 죄에 의해 손상되고 왜곡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완전한 형상을 다시 찾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제자훈련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어느 시대나 당대에 강력한 지도자는 있기 마련이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훌륭한 지도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했고,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를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는 새가족이라는 다음세대를 제대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새가족 교육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유능성 개발로써 티칭방법(Teaching Method)과 내용 (Contents)

이다. 본 연구자는 Narrative Bible Study를 통해서 소그룹중심의 쌍방향 네트워크의 효과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성보다는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이야기식 성경공부 접근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콘텐츠(Contents)로 자리 잡았다.

1) 독서계획 :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새가족 양육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내용들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 알맞은 독서계획을 세웠다.

<표 65>

<table>
<tr><th>도서명</th><th>내용 소개</th><th colspan="2">일정</th></tr>
<tr><td rowspan="3">말씀목회 패러다임

저자: 이연길
출판사: 쿰란출판사</td><td rowspan="3">말씀 목회 전 과정을 통해 주의 종들에게 비전과 용기를 주기 위한 교재. 교인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훈련시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록했다.</td><td colspan="2">2010 년 6 월 둘째 주</td></tr>
<tr><td>독서시간
(매일 3 시간)</td><td>4 일</td></tr>
<tr><td>내용요약
(A4 2 장)</td><td>1 일</td></tr>
<tr><td rowspan="3">소그룹리더 핸드북

저자: IVF 자료개발부
출판사: 한국기독학생회</td><td rowspan="3">소그룹을 책임진 리더의 역량에 의해 한 소그룹의 성숙과 역동적인 활동이 결정된다. 이런 의도에서 현장 사역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본서는 소그룹의 삶과 실제, 소그룹 리더의 지도력에 대하여 우리 모두를 다시금 일깨우고 도전할 것이다.</td><td colspan="2">2010 년 6 월 셋째 주</td></tr>
<tr><td>독서시간
(매일 3 시간)</td><td>3 일</td></tr>
<tr><td>내용요약
(A4 1−2 장)</td><td>1 일</td></tr>
<tr><td rowspan="2">유일한 구원자</td><td rowspan="2">처음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과 타 교회에서 이동해오는 이동 신자들을 위해 마련된 새가족</td><td colspan="2">2010 6 월 넷째 주</td></tr>
<tr><td>독서시간
(매일</td><td>2 일</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예수 그리스도

저자: 옥한흠
출판사: 국제제자훈련원</td><td rowspan="2">모임의 교재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등의 물음에 대한 답을 통해 신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주며, 출석하는 교회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준다.</td><td>3 시간)</td><td></td></tr>
<tr><td>강의안 작성
(A4 20 장)</td><td>4 일</td></tr>
<tr><td rowspan="3">새가족 탄생교실

저자: 박원영
출판사:
한국강해설교출판부</td><td rowspan="3">이 책은 각 권이 4 과로 나누어졌으며, 총 12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초심자 또는 기존 기독교인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쉽고 체계적으로 본문을 기술했다. 성경 말씀과 교리 그리고 교회생활,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td><td colspan="2">2010 년 7 월 첫 주</td></tr>
<tr><td>독서시간
(매일
3 시간)</td><td>3 일</td></tr>
<tr><td>강의안 작성
(A4 20 장)</td><td>4 일</td></tr>
<tr><td rowspan="3">이야기식 소그룹
성경공부 방법

저자: 이연길
출판사:
한국장로교출판사</td><td rowspan="3">이 책은 성경 지식에 더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술한 성경공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식에서 변화(transformation)를 목표로 한 성경공부 교재를 펴낸 이론적 배경을 다룬 책이다.</td><td colspan="2">2010 년 7 월 둘째 주</td></tr>
<tr><td>독서시간
(매일
3 시간)</td><td>4 일</td></tr>
<tr><td>내용요약
(A4 1−2 장)</td><td>1 일</td></tr>
</table>

2) 참여계획

<표 66>

일정	내용	장소
7 월 셋째 주	새 가족 교육을 위한 탐방	아름다운 교회
7 월 넷째 주	소그룹 세미나 참석	목회자 목장모임
8 월 첫째 주	이야기식 성경공부 인터넷 청강	달라스 한인장로교회

3) 교회적용 – 과제세부현황(표 54 참조)

(1) Narrative Bible Study(이야기식 성경공부)

(2) Small Activity(목장탐방)

4) 개인적용

(1) 새가족 대상 이야기식 성경공부 인도

(2) 소그룹 목장의 리더 교육

5) 결과

(1) 이야기식 성경공부를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

(2) 소그룹 접근에 다양한 틀을 제공하며, 목장 리더들을 교육할 수 있었다.

(3) 다양한 성경공부 Contents 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3. 영성개발 - Spiritual Development

기독교 영성은 성숙한 복음의 온전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삶의 모든 요소들 즉, 자녀들, 배우자, 직업, 날씨, 소유, 관계 등을 부여잡고 그것들을 신앙 행위로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재료들을 원하시기 때문이다.[293] 자신의 탁월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사역(使役)은 사약(死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잠언16:9)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일 즉, 이 변화의 과정을 일으킬 힘은 오직 성령만이 가지고 계시다. 영성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하여 사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을 통하여 일어나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협력해야 한다.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 릭 워렌(Rick Warren)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doing)보다는 어떤 사람인지(being)에 더 관심을 두신다"고 목적이 이끄는 40일에서 말하고 있다. 신약 엡4:22-24은 자신의 옛 태도를 버리고, 사고방식을 바꾸며,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킴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변화를 위해 당신의 말씀, 사람들 그리고 상황을 이용하신다.

이런 배경에서 Encounter Seminar는 말씀 속에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인물들을 강의와 나눔과 기도로 풀어내는 과정이다. 특히 동양적인 묵상이 무소유인 비움의 원리라면, 기독교의 묵상은 채움의 원리이기에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영성개발이다. 본 연구자는 아빌라의 테레사(Teresia Iesu de Avila), 십자가의 성 요한(John of the Cross),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 리처드 포스터(Richard J. Foster),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과 같은 영성의 거장들의 흐름을 이어받아 이 시대 진정한 영성 회복과 신자다움 그리고 교회다움으로 나아가는데 비전을 가지고 있다.

1) 독서계획 : 영성훈련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이론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독서 계획을 세웠다.

---

[293]Eugene H. Peterson, *묵상하는 목회자*, 차성구 역(서울: 좋은씨앗, 2008), 13.

<표 67>

<table>
<tr><th>도서명</th><th>내용 소개</th><th colspan="2">일정</th></tr>
<tr><td rowspan="3">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저자: 유진 피터슨
역자: 홍병룡
출판사: IVP</td><td rowspan="3">이 시대의 탁월한 영성작가 유진 피터슨이 8 년 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쓴 책으로 요한계시록에 관한 그의 감명적인 묵시이다. 성경과 그리스도, 교회, 예배, 악, 기도, 증인, 정치, 심판, 구원, 천국에 관한생명력과 적실성을 살리기 위해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지성을 각성시키고 있다.</td><td colspan="2">2010 년 8 월 둘째 주</td></tr>
<tr><td>독서시간
(매일 3 시간)</td><td>4 일</td></tr>
<tr><td>내용요약
(A4 1−2 장)</td><td>1 일</td></tr>
<tr><td rowspan="3">영적 훈련과 성장

저자: 리처드 포스터
역자: 권달천 . 황을호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td><td rowspan="3">내적 훈련과 외적 훈련, 그리고 단체 훈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깊은 삶’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묵상, 금식, 공부, 홀로 있기, 복종, 인도하심 받기 등의 훈련은 우리의 외적 습관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임하게 한다.</td><td colspan="2">2010 년 8 월 셋째 주</td></tr>
<tr><td>독서시간
(매일 3 시간)</td><td>4 일</td></tr>
<tr><td>내용요약
(A4 1−2 장)</td><td>1 일</td></tr>
<tr><td rowspan="3">21 세기 영성신학

저자: 홍성주
출판사: 은성</td><td rowspan="3">이 책은 21 세기에서 지난 세기의 물량주의적이고 팽창주의에 만연되어 있는 교회와, 지나친 지식 위주인 신학교육을 점검함으로써, 영성신학적인 신학교육과 신앙관을 정립하고자 한 글이다.</td><td colspan="2">2010 8 월 넷째 주</td></tr>
<tr><td>독서시간
(매일 3 시간)</td><td>3 일</td></tr>
<tr><td>내용요약
(A4 1−2 장)</td><td>1 일</td></tr>
<tr><td rowspan="2">하나님 체험과 영성수련</td><td rowspan="2">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성 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 책은 영성</td><td colspan="2">2010 년 9 월 첫 주</td></tr>
<tr><td>독서시간
(매일 3 시간)</td><td>4 일</td></tr>
</table>

<table>
<tr><td>저자: 유해룡
출판사: 장로회신학대학교</td><td>학을 배우고 훈련을 하고자 하는 신학생들과 영성에 대한 열망과 이해를 추구하는 평신도들과 영성적인 쇄신을 꾀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지침서로 쓰여졌다.</td><td>내용요약
(A4 1-2 장)</td><td>1 일</td></tr>
<tr><td rowspan="3">목회 신학 영성
확신체험: 목회의 영성적 기초

저자: 백상열
출판사: 은진영성</td><td rowspan="3">이 책은 자신의 믿음에 정성과 마음을 바친 한 목회자의 이야기와 그의 관심사인 목회, 신학,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특히 목회, 신학, 영성의 기본 바탕이 되는 믿음의 체험과 관련하여 저자가 사역과 신학교에서 가르친 여러 내용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td><td colspan="2">2010 년 9 월 둘째 주</td></tr>
<tr><td>독서시간
(매일 3 시간)</td><td>3 일</td></tr>
<tr><td>내용요약
(A4 1-2 장)</td><td>1 일</td></tr>
</table>

2) 참여계획 - 한국귀국 후 2011 년 5 월 이후

<표 68>

일정	내용	장소
4 월 둘째 주	인카운터 수련회참가	예능교회
5 월 셋째 주	유해룡 교수 영성강의 청강	장신대
6 월 첫째 주	관상기도 참여	은성수도원

3) 교회적용 - 과제세부현황(표 54 참조)

(1) Encounter Seminar(인카운터 세미나)

(2) Retreat(새가족 수련회)

4) 개인적용

(1) 아침 Q.T

(2) 저녁 관상기도

5) 결과

(1) 인카운터 세미나 강사(뉴욕새교회, 예능교회)로 활동하게 되었다.

(2) 체험적인 신앙을 이전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3) 영성 설교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Ⅷ. 결론(Conclusion)

1. Project 요약

본 연구는 교인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새가족 정착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뉴욕새교회를 중심으로 새가족 정착을 위한 소그룹 중심의 하이터치 접근을 시도한 연구이다. 그 결과 새가족들의 정착률이 80%까지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교회가 새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 과제를 통해서 일방통행의 강의식 성경공부 전통방식에서 하이테크 시대에 알맞은 쌍방향 소통방식인 Narrative Bible Study로 새가족 교육으로 바꿨고, 기존 30명 정도의 중그룹 중심의 새가족반과 역시 30여명 가까이 되는 새가족 사역자들은 가진 구조에서 10명 이내의 소그룹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표69> Karl Georgy의 건강한 미래교회의 세 가지 요소 Meta Church[294]

구조	규모	목적	특징	비고
Celebration	대	소속감, 비전	축제적 분위기	예배 등
Congregation	중	필요공급	동일 관심 동일 신앙 정도	청년회, 교사회 리더모임
Cell Group	소	친밀감	가족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	목장, 가정교회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친밀감으로 나아가야 하는 새가족들에게는 소그룹 중심으로 나가는데 효과적이라고 본다. 뿐만

---

[294]http://visionschool.fmnc.net/62/08.14.2009.

아니라 새가족 사역자들에게도 소그룹 중심의 사역을 통해서 파트너십(Partnership)이 높아졌다는 평가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중그룹이 감당하던 것을 소그룹 중심으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조직이 움직이고, 오히려 유기적으로 더 잘 움직이고 있다. 특히 뉴욕새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는 캐치플레이즈(catch-phrase)를 사용하고 있다. 건강한 교회는 신학적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난에도 참여하며 어둠 속에서 소망을 창조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이다. 또한 전통과 관습에 매달려 이대로가 좋다는 식의 교회도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건강한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이고, 이 시대의 문화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교회이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핵심 Key로 하이터치, 즉 인간의 감성터치를 통해서 기존에 지성 중심의 설교, 교육, 훈련, 전도, 선교의 수로에 또 하나의 물꼬를 터주자는 것이다. 포스터모던 시대의 현대인들에게는 감성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윤을 남기는 기업체들도 고객 감동이 곧 구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최근에는 고객 감동을 넘어서 고객 졸도의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교회는 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설교, 교육, 양육, 전도, 선교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어 철새교인들을 양산해 낸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전통적인 흐름이 강한 뉴욕새교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 이 작은 변화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일으키며,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런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식화 교육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결성된 4명의 Site Team과 4명의 새가족 사역자들과의 만남은 의식화교육을 임상하는 장이었다. 그들을 통해서 작은 변화에 성도들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경험하는 바로미터(barometer)이기도 했다. 그리고 의식화교육에서 머물지

않고, 조직화단계로 넘어가서 은사에 알맞게 사역자들을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다. 자칫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기존의 은사발견테스트[295]를 활용하여 사역배치를 소그룹 단위로 세분화 할 수 있었던 것도 연구 성과 중의 하나이다. 이런 토대 위에 하이터치 영성접근으로 비뚤어진 자아상을 회복하고, 하이테크 시대를 살아가는 새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Encounter Seminar는 좋은 반응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야곱, 탕자, 향유 부은 여인, 다윗, 아브라함 등 성경 속의 인물들이 정서적으로 고독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이민사회에 치유와 소통의 길을 열어 놓기를 기대한다.

반면 본 프로젝트(Project)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하이터치 문화접근으로 보다 폭넓은 연구와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특성상 짧은 기간과 부족한 예산으로 성과를 내는데 미숙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화교실을 통해서 새가족과 기존성도, 그리고 믿지 않는 대상자나 지역주민으로 연계되어 관계전도로 이어져 재생산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신청자가 많지 않아, 절반 정도는 오픈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짧은 준비 기간과 예산 부족을 제외하고서도 몇 가지 원인을 더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강사의 자질 문제이다. 사실 교회 안에서 봉사차원으로 강사를 찾다보니 자질(Quality)에서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둘째, 이민생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이다. 대부분 주중에 맞벌이 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미뤄 온 일들을 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극히 제안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회비를 받는 문제이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회비를 내고 참여한다는 선입관이 있는 것을

---

[295]Bruce Bugbee, *은사종합검진,* 배응준 역(서울: 규장, 2009) / Appendices 에 자료첨부

간과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넷째, 과목 선정의 차별화 문제이다. 나름대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취미 활동과 동호회 관련 자료를 한국갤럽에서 찾아서 선정했지만 차별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인커뮤니티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한인교회들은 이런 정도의 문화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몇 가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면 하이터치 문화접근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강의가 개설되었던 기타교실(혼성), 독서교실(여성), 족구교실(남성) 과목을 주일예배 후 기존성도들과 연계하여 함께 식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안을 찾았다.

2. 제언

본 연구자가 진행한 프로젝트(Project)는 하이테크 시대에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소그룹 중심의 하이터치 접근이다. 달리 말하면,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메가 교회(Mega Church)가 아닌 메타 교회(Meta Church)의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메가 교회는 단순히 대형교회를 말한다면, 메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소홀한 교회로 새가족들이 늘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뉴욕새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메타교회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화를 수용하는 교회의 방향성으로 인해 본 연구자는 프로젝트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성의 문화코드를 수용한 것이 새가족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과 목회자의 유능성 개발에도 미친 영향이 크다. 한국에서 '상상이 담긴

설교'로 잘 알려진 워렌 위어스비(Warren W. Wiersbe)는 오늘의 목회자들에게 일방적인 독백의 형식을 탈피하여 쌍방향성의 소통과 이매지네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296]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새가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쌍방향성의 소통과 이매지네이션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새가족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엡4:12)이다.

2008년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종교를 찾는 이유의 67.9%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로 응답한 자료를 통해서 현대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군중 속에 고독한 감정을 가진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를 본 연구자는 하이터치에서 찾았다. 이 하이터치 접근은 인간의 정서적인 감성터치를 말한다. 에릭 에릭슨(Erik Homburger Erikson)의 인간발달이론에서 친밀감의 시기(19-35세)가 포옹과 신혼생활 그리고 깊은 개인적 사랑의 나눔으로 표현되는 친밀감과 그 정반대인 고립감으로 나눠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친밀감을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치유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친밀감은 친구, 가족, 직장, 공동체 등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나누고 자신의 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소그룹 안에서 이뤄지는 하이터치 감성접근, 영성접근, 문화접근의 나눔을 통해서 친밀감으로 나아가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되찾은 새가족들은 정착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해서 얻은 확실한 성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의식화 교육과 함께 구조적인 변화까지 오게 된 것은 조용한 혁명이 아닐 수 없다.

---

[296]Warren W. Wiersbe, 상상이 담긴 설교, 이장우 역(서울: 요단출판사, 1997), 355.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느낀점은 한국에서 예능교회의 목회 경험이 뉴욕새교회에서 임상적으로 적용 되었다는 사실이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오프라인의 하이터치 접근이라는 화두는 분명 효과가 있었고, 새가족 정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온 것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두 문화권에서 교회를 찾고, 신앙을 갖는 계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친밀감의 정서가 공동체에 강한 소속감을 갖는데는 동일했다. 하지만 변화에 익숙한 한국교회 보다 변화에 더딘 이민교회가 풀어야하는 숙제도 적지 않았다. 특히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의식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원할하게 풀어가는 대화의 기술도 하이터치로 접근했다. 특히 다음 세대 리더들을 훈련하고, 평신도들 사역자들을 양성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 리더십 훈련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며 본을 보이는 헌신이 목회자에게 요구되었다. 하이터치 접근은 이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물줄기를 돌려 놓은 터닝포인터가 되었다. 미약하나마 본 연구가 새가족 정착을 위한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Ⅸ참고문헌(Bibliography)

1. 동양서적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강병훈. *주제별종합자료.* 서울: 성서연구사, 1990.

고용수. *하나님나라와 교육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

김경수. *돌봄.* 서울: 서로 사랑출판사, 2006.

김도일. *엘리스 넬슨과 존 웨스터호프의 사회화접근, 교육인가 신앙공동체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김삼성. *인카운터 주말수련회 매뉴얼.* 서울: G12Korea, 2006.

김소영. *현대예배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김영규. *기독교교육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김지찬. *언어의 직공이 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노영상. *미래교회와 미래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9.

두란노편집부.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서울: 두란노, 2002.

명성훈. *뒷문을 막아라.* 서울: 크레도, 2000.

민병갑. *미국의 소수민족.* NY: 가나안인쇄, 1989.

박근원. *오늘의예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박영숙. *2020미래교육보고서.* 서울: 경향미디어, 2010.

박원영. *새가족 탄생교실.* 서울: 한국강해설교출판부, 2003.

박종균. *기독교와 대중문화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박준서.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방선기. *대중문화도 거룩해질수 있는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백상열. *목회.신학.영성-확신체험: 목회의 영성적기초.* 충남: 은진영성, 2010.

오성춘. *신학영성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오세인. *영상매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옥한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7.

______. *제자훈련교재1.2.3.*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7.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0.

이어령. *디지로그 선언.* 서울: 생각의 나무, 2006.

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서울: 쿰란출판사, 2002.

______. *이야기식 소그룹 성경공부 방법: 성서발견 인도자 지침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이용남.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목회.* 서울: 도서출판 그린, 1992.

이재창 외 5인. *인간 이해를 위한 심리학.* 서울: 문음사, 2004.

이종성.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이학준. *다리를 놓는 사람들-2세 교육을 위한 1세들의 사명.* 구리: 두레미디어, 2007.

이형기 외. *기독교 사상사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임성빈.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임종석. *생동하는구역 부흥하는 교회.* 서울: 두란노, 2003.

정삼지. *성장하는 제자.* 서울: 도서출판 제자, 2007.

정성욱. *스피드 조직신학.* 서울: 홍성사, 2007.

정재영. *소그룹의 사회학.* 서울: 한들출판사, 2010.

주서택.김선화.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서울: 순 출판사, 2000.

주승중. 영상세대를 향해 이렇게 설교하라.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4.

채이석.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신문사, 2000.

최향순. *행정조직론*. 서울: 동성, 1997.

한국기독학생회 자료개발부 엮음. *소그룹 리더 핸드북*.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5.

홍성주. *21세기 영성신학*. 서울: 은성, 1995.

홍종관. *자기성장을 위한 집단 상담*. 대구: 대구교대학생생활연구소, 1996.

2. 번역서적

Barclay William. *사도행전*. 정혁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4.

Barton Ruth Haley. *영적성장을 위한 발돋음*. 황의무. 파주: 살림출판사. 2007.

Bonhoeffer Dietrich.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Bounds. E. M. *기도의 능력*. 이정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Brickman Leslie. *셀교회와 자연적 교회성장*. NCD편집부 역. 성남: 도서출판NCD, 2003.

Brockman John. 위험한 생각들. 이영기 역. 서울: 갤리온, 2007.

Bruce F. F. *사도행전 상*. 이용복.장동민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6.

Bugbee Bruce. *은사종합검진.* 배응준 역. 서울: 규장, 2009.

Carl George F.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Clift Wallace B.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이기춘 . 김성민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Cloud Henry . Townsend John.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윤종석 역. 서울: 좋은씨앗, 2004.

Crabb Lawrence J. *인간이해와 상담*.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1.

Donohue Bill. *윌로우크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출판사, 2004.

Dulles Cardinal Avery. *교회의 모델*. 김기철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3.

Eavey. C. B.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2.

Foster Richard J.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Galloway Dale.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이야기*. 전의우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9.

Giddens Anthony.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6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3.

Hodgson C. P. *교회론의 새 지평*. 박근원 역. 서울: 진흥, 1996.

Hoekema Antony A.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4.

Kuhne Gary W.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5.

Küng Hans.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__________.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4.

Mackay John. *에큐메닉스-세계교회운동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Marshall Paul. *정의로운 정치*. 진웅희 역. 서울: IVP, 1997.

Moore Waylon B. *신약성서적 새가족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2.

Naisbitt John. 외 2명 *하이테크 하이터치*. 안진환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 2000.

Nicholas Ron 외 4인.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2005.

Niebuhr Richard H.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Nouwen Henri. *상처 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2000.

______. *영성수업.*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10

Peterson Eugene H. *묵상하는 목회자.*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8.

______. *영혼을 살리는 설교.* 이승진 역. 서울: 좋은씨앗, 2008.

______.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홍병룡 역. 서울: IVP, 2009.

Seamnds David A. *상한 감정의 치유.* 서울: 두란노, 2009.

Sell Charles.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정동섭 역. 서울: 두란노, 2003.

Smalley Gary. Trend John. *사랑언어 그림언어.* 서원교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6.

Smart. J. D.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Snyder Howard. *새 포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Spencer Michael. *순전한 교회로 돌아가자.* 정성묵 역. 서울: 두란노, 2011.

Stone. H. W. *위기상담.*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Stott Joh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양혜원 역. 서울: IVP, 2004.

Tapscott Don.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허운나 역. 경기 안양: 도서풀판 물푸레, 2000.

Tournier Paul. *고독.* 윤경남 역. 서울: IVP, 1999.

______.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한정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Viola Frank. *유기적 교회 세우기.* 이남하 역. 대전: 대장간, 2010.

Webber E. Robert.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 역. 서울: 토라, 2008.

Wiersbe Warren W. *상상이 담긴 설교.*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Worley C. Robert. *교회의 조직.* 박근원 역. 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7.

Zuck B. Roy. *미래목회 비전리더십.*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3. 원서자료

Bruner Emil. *Man in Revolt: A Christian Anthropology.* 1st German edition 1937; English translation 1939 and 1941.

____________. *The Misunderstaning of the Church*. London: Lutterworth,1952.

Carl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New York: F. H. Revell, 1992.

James Bryan Smith with Lynda Graybeal. *A Spiritual Formation Workbook*.

John of the Cross. *Kieran Kavanaugh and Otilio Rodriguez*. New York: Doubleday, 1964.Harper San Francisco, 1993.

Morton T. Kelsey. *The Other of Silence : A Guide to Christian Meditation*. New York: Paulist Press, 1976.

St. Frandis of Assisi.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St. Frandis of Assisi*. Nashville: Upper Room Press, 1952.

Robert E. Webber *Worship is a Verb*. Nashiville: Abbott Martyn, 1992.

Ruch C. Wylie. *The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9.

Stanley J. Grenz. *A Primer on postmodernism.* Grand Rapids: Eerdmans, 1996.

Thomas Merton. *Contemplative prayer*. New York: Doubleday, 1969.

Thomas R. Kelly. *A Testament of Devoti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1.

Walter Brueggemann. *Finally Comes the Poet*. Minneapolis: Fortess Press, 1989.

4. 논문자료

박상진, *새신자를 위한 교회교육과정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1993.

성미경. *소그룹 사역을 위한 통전적 인간 이해에 대한 연구: D. W. Winnicott의 이론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윤진우. *새가족 교육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정재영. *한국교회 소그룹의 공동체성에 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Young Gyu Jang. *The water rite and conversion: The significance of the Naaman Story in 2 Kings 5:1-27 for Christian Baptism,*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Doctor of Theology, 2002.

5. 정기간행물

송인규. "*이민교회 이야기" 빛과 소금. 제59호.* 서울: 두란노, 1990.

유동준. "설교언어, 발신자 중심에서 수신자 언어로" *그 말씀. 제65호.* 서울: 두란노, 1990.

이성희. "21세기는 영성시대입니다." *목회와 신학. 제230호.* 서울: 두란노, 2008.

이재용. *"예능교회 미디어학교" 교육교회. 통권375호.* 서울: 장신대기독교교육연구원, 2009.

6. 참고사이트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http://missionlife.kukinews.com.

기독일보, http://ny.christianitydaily.com.

내러티브이야기, http://kr.blog.yahoo.com/pastorhahn.

뉴로하모니, http://www.brain21.kr.

뉴욕새교회, http://www.newchurchny.org.

동산바나바, http://cafe.naver.com/ds8nam.cafe.

바나바교육원, http://www.bmc153.com.

비전스쿨, http://visionschool.fmnc.net.

삼일교회, http://www.samil.org.

인터넷 시민운동, http://cafe.naver.com/civilmovement.cafe.

자연적 교회 성장, http://www.ncdkorea.net.

크리스천헤럴드, http://cafe.naver.com/newsyoun.

하나임 교회, http://www.hanaimchurch.org.

한국갤럽, http://panel.gallup.co.kr.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Census 2010 Data for States, http://www.cubitplanning.com/census2010.

X. Appendices

1. 새가족 사역자 지침서

새가족 사역자의 역할
❶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새가족을 예배실로 인도하며 방문목적을 확인한다. ❷ 예배 후 새 가족이 담임목사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❸ 새가족 환영실로 인도하여 영접팀과 인사를 나눈다. ❹ 바나바 사역보고서에 기록할 나머지 부분을 부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록한다. ❺ 잠시 방문이 아니면 주중에 전화심방을 하겠다고 사전 약속을 한다. ❻ 편안한 시간에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교회 분위기와 주일예배참석을 권유한다. ❼ 돌아갈 때 주차장까지 따라가서 배웅한다. ❽ 맡겨진 새가족이 정착할 때까지 기도와 관심으로 영적인 돌봄을 쉬지 않는다. ❾ 가정방문이나 교회 밖에서의 만남을 연결한다.(담임목사, 심방교역자, 심방팀장 등) 교회 구석구석 둘러보고, 목장이나 사역현장도 함께 방문한다.
새가족을 대하는 자세
❶ 밝은 모습과 배려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❷ 상냥한 언어와 정중한 인사를 필수다. ❸ 자신의 말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데 노력한다. ❹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❺ 항상 겸손하게 섬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❻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표현을 구사하라. ❼ 작은 것이라도 나눔의 삶을 보여주라. ❽ 신앙 안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자랑하라. ❾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개인적인 질문은 삼가 해야 한다. *새가족이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라.

2. 새가족반 수료증 양식

새가족반 수료증

이름 : 고종완

귀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뉴욕 새교회의

첫 번째 영적 성장 과정인 새가족반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09년 11월 15일

담임목사 양승구

3. 새가족반 신청서 양식

새가족반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이름</td><td>한)</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영)</td><td>세례년도</td><td>년</td></tr>
<tr><td rowspan="2">주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전화</td><td colspan="3">집) 직장)</td></tr>
<tr><td colspan="3">CP)</td></tr>
<tr><td colspan="4">[참고사항]</td></tr>
<tr><td colspan="4">※ 매 주일 오후 1시 15분부터 2시 30분까지
5주 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신청날짜 : 200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td></tr>
</table>

뉴욕 교회

4. 새가족 사역 보고서 양식

새가족 사역 보고서

사역자 이름: 기 간:

단계	개요	작성내용	
첫만남	환영	이름*	
		가족사항	
		연락처	
		방문목적*	
		자리배치*	
		소개&환영*	
		전화약속	
1주	관심 (전화심방)	언제: 약속여부: 예배와 식사: 기타:	
2주	돌봄 (심방연결)	일시: 참석자: 기타:	
3주	교제	교인소개명단: 교회둘러보기: 기타:	
기타	소속감	목장방문: 봉사자소개: 기타:	

1) 첫 주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기록하고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나머지 부분은 교회 등록을 희망할 경우 새신자등록카드에서 보완될 수 있습니다.

5. 영적 은사 확인 진단서1

체험-일상생활 관련검사[297]

번호	내용
1	나는 사람들과 임무와 행사를 잘 조정하여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2	나는 목재나 옷감이나 페인트나 금속이나 유리나 기타, 다른 재료들을 갖고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3	나는 예술적인 소질(미술, 연극, 음악, 사진 등)을 발휘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
4	나는 영적인 자기만족에 빠져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기꺼이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5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6	나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주님의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물질을 드린다.
7	나는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돕는 것이 좋다.
8	나는 나의 집이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9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
10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 그 일에 동참하게 한다.
11	나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낄 뿐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싶다.
12	나는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는 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끌린다.
13	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느껴지는)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
14	나는 복음을 명료하게 전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15	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신뢰와 확신을 쌓고 있다.
1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7	나는 영적인 진리와 오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
18	나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애쓰며 공부한다.
19	개인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
20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세한 부분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잘 처리한다.

[297]Bruce Bugbee 가 만든 은사종합검진이다.

21	나는 다양한 기자재나 도구들을 잘 다룬다.
22	나는 예술적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더 잘 깨닫도록 돕는다.
23	나는 낙심한 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좋다.
24	나는 어려운 시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여전히 공급하시고 도울 것이라 확신한다.
25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십일조 이상의 물질을 드린다.
26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27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누군가에게 환영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돕는 것이 좋다.
28	나는 오랜 기간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보면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 깨달을 수 있다.
29	나는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좋다. 앞에서 이끄는 것이 뒤에서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
30	나는 고통에 허덕이며 안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인내하면서 지원할 수 있다.
31	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
32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의 현재 상황에 빛을 비추어줄 수 있으며, 그런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래에 무엇을 바라시는지 깨닫게 할 수 있다.
33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 잘 받아들이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면 고분고분 고개를 숙인다.
34	나는 오랜 기간 동안 한결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서적, 영적으로 지원하며 도울 수 있다.
35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혼동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36	나는 ‘여섯 번째 감각’ 같은 것을 지니고 있어서 첫인상만으로 어떤 사람의 성격을 간파할 수 있다.
37	나는 자연적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식과 정보를 성령으로부터 받고 한다.
38	나는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나 마찰이 빚어졌을 때 간단하고도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39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나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40	나는 어떤 기구나 장치를 만들기 전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머릿속에 미리 그려볼 수 있다.
41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참신하고도 독창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42	나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함으로써 희망을 준다.
43	나는 비범한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44	나는 더 많이 베풀기 위해 재정 관리에 신경을 쓴다.

45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교회가 맡기는 온갖 잡다한 일이라도 기꺼이 감당한다.
46	나는 주님이 소속감과 친밀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신다고 믿는다.
47	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한다.
48	나는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대표자로 뽑힌다.
49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끌린다.
50	나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
51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강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문화적인 격차에 구애받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시기적절하게 전할 수 있다.
52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53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후원하고 보살피면서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좋다.
54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그들이 즉각 행동으로 반응을 보인다.
55	나는 누군가의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차릴 수 있다.
56	나는 피상적인 깨달음과 억측을 피하기 위해 확실한 깨달음과 진리를 추구한다.
57	쉬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상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
58	나는 어떤 과업을 완수하는 데에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59	나는 손으로 하는 일에 능숙하며 그런 일을 좋아한다.
60	나는 창의적인 상상력을 계발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곤 한다.
61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 등 인생의 문제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이 나와 대화를 하고 나면 힘을 얻는다.
62	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라 굳게 믿는다.
63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물질적으로 절제된 생활을 한다.
64	나는 봉사나 사역 행위를 할 때 그 속에서 영적인 중요성을 본다.
65	나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꺼이 만나며 그들이 교회생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66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
67	나는 목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68	아파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도 무척 아프다.
69	나는 지엽적인 부분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며,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만나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
70	나는 장래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일들은 그대로 일어난다.
71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 담대하게 말하며 그렇게 말할 때마다 긍정적인 결과가 뒤따르는 것을 목격한다.
72	나는 방황하는 신자들을 믿음과 친교의 길로 다시 인도할 수 있다.
73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를 때 나는 몹시 실망스럽다.
74	하나님께서는 내게 '귀신의 영향'과 '정신 질환'과 '진리에 대한 오해'의 차이를 알려주신다.
75	나는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신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중요한 진리와 주제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가득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6	나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행위가 불러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77	나는 어떤 모임이나 집단을 도와 그 구성원들을 능력의 일꾼들로 만드는 것이 좋다.
78	나는 무대 뒤에서 봉사하면서, 주님의 일에 유용하게 쓰이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도구나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좋다.
79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는 "그런 식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시도해보지 않았어요!"라고 종종 말한다.
80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크나큰 기쁨을 느낀다.
81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가 많고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인다.
82	교회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예산을 모금할 때, 나는 모범을 보이고 신자들이 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고무하고 격려한다.
83	나는 교회에 해야 할 일이 없나 찾기를 좋아하며 그런 일을 발견하면 누가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행한다.
84	내가 교회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과 교통하며 친밀하게 교제할 때이다.
85	나는 어떤 사람이나 모임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사안에 대해 기도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8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들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87	나는 어떤 사람이 직면한 장애나 문제를 잘 살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내게 바라시는 것은 없는지 또 내가 봉사할 부분은 없는지 생각한다.
88	나는 문화적인 장벽 같은 것을 민감하게 의식하지 않으며 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편안하다.
89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
90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그들이 내 신앙에 대해 물어봐주기를 바란다.
91	나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와 지혜로 이끌어 격려하며 보살핀다.
92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잘 배울 뿐 아니라 더욱 더 크게 성장하겠다는 의욕을 보인다.

93	나는 통찰력의 신뢰성이나 직관의 확실성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94	누가 귀 뜸을 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해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실을 불현 듯 알게 될 때가 있다.
95	나는 복잡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어려움을 잘 타개하도록 실제적인 조언을 한다.
96	나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짐작할 수 있으며,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으며, 거기에 대응할 전략을 세울 수 있다.
97	나는 수완이 좋아서 당장 필요한 물건을 만들 재료와 도구들을 변동할 수 있다.
98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진리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다양한 예술 표현 양식을 이용한다.
99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길에 발을 들이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다.
100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도전한다.
101	나는 금전 관리에 남다른 신경을 기울여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바친다.
102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103	나는 교회생활을 낯설어 하는 새신자들을 집에 초대하기를 좋아하며 그들이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04	기도 응답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평강과 확신을 주신다.
105	나는 사역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 참여한다.
106	나는 위기의 순간을 지나거나 만성적인 고통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 좋다.
107	나는 나를 따라서 새로운 모험적 사역에 뛰어든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108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게 계시하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깨닫는다.
109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110	나는 사람들이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양육할 책임을 느낀다.
111	나는 사람들이 말씀의 진리와 삶의 기법을 쉽게 깨닫고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
112	나는 영계(영적인 세계)를 본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들을 보여주신다.
113	진리와 말씀을 깨달을 때 나는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114	성경의 진리를 어렵고 복잡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계시해주신다.
115	혼란 속에서 헤매는 모임이나 기관을 보면 개입하여 질서를 잡아주고 싶다.
116	나는 눈썰미와 손재주를 지니고 있다.

117	나는 모든 감각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결합하며, 그것들을 성경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전달하는 조화로운 흐름 속에 편입시킨다.
118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신중하게 도전하거나 부드럽게 나무란다.
11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120	나는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 까닭이 주님의 일을 위해 더 많이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믿는다.
121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못해요!'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122	나는 낯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자질이 있다.
123	내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한다.
124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이르도록 돕는다.
125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 뿐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주고 싶은 의욕이 솟는다.
126	내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명백히 나타난다.
127	나는 죄를 보았을 때 드러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에 사로잡힌다.
128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영적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좋은 방안을 생각한다.
129	나는 신자들을 감독할 책임을 느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신자들 사이의 사랑의 교제를 가로막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책임을 느낀다.
130	나는 말씀을 읽을 때 실로 많은 것들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것 가운데서, 주변의 신자들 각자에게 현재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우쳐줄 수 있는 것들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한다.
131	귀신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 속에서 사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나는 그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132	나는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들을 전해준다.
133	잠언에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들이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기ᅟ 때문에 나는 잠언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 제시한 4 가지 항목은 당신의 반복적인 체험(일회적 체험이 아니라)과 관련된 진술입니다. 이 부분은 점수를 매기기 곤란하므로 '삶의 체험 평가 응답지'의 해당 알파벳 위 칸에 ○× 로 표시하십시오.

항목	내 용
T	내가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면 즉각 낫는다.
U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 내게 메시지를 계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는 말을 통역한다.
V	나는 귀신을 축출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을 종종 체험한다. 나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며, 하나님께서 자연의 세계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목도한다.
W	나는 생전 배운 적도 없고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종종 말한다.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면 누군가가 그 말을 통역하여 교인들 앞에서 말한다.

삶의 체험평가 응답지1

	1	2	3	4	5	6	7	8	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합계										
	A	B	C	D	E	F	G	H	I	J
상위 세 항목										

3점 = 매우 그렇다. 2점 = 대체로 그렇다.

1점 = 거의 그렇지 않다. 0점 = 전혀 그렇지 않다.

삶의 체험평가 응답지2

<table>
<tr><td></td><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 colspan="4" rowspan="7">T, U, V, W
항목에 해당되는 아래 빈칸은 이로 표시하십시오.</td></tr>
<tr><td></td><td>30</td><td>31</td><td>32</td><td>33</td><td>34</td><td>35</td><td>36</td><td>37</td><td>38</td></tr>
<tr><td></td><td>49</td><td>50</td><td>51</td><td>52</td><td>53</td><td>54</td><td>55</td><td>56</td><td>57</td></tr>
<tr><td></td><td>68</td><td>69</td><td>70</td><td>71</td><td>72</td><td>73</td><td>74</td><td>75</td><td>76</td></tr>
<tr><td></td><td>87</td><td>88</td><td>89</td><td>90</td><td>91</td><td>92</td><td>93</td><td>94</td><td>95</td></tr>
<tr><td></td><td>106</td><td>107</td><td>108</td><td>109</td><td>110</td><td>111</td><td>112</td><td>113</td><td>114</td></tr>
<tr><td></td><td>125</td><td>126</td><td>127</td><td>128</td><td>129</td><td>130</td><td>131</td><td>132</td><td>133</td></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K</td><td>L</td><td>M</td><td>N</td><td>O</td><td>P</td><td>Q</td><td>R</td><td>S</td><td>T</td><td>U</td><td>V</td><td>W</td></tr>
<tr><td>상위
세 항목</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3점 = 매우 그렇다. 2점 = 대체로 그렇다.

1점 = 거의 그렇지 않다. 0점 = 전혀 그렇지 않다.

6. 영적 은사 확인 진단서2

관찰-다른 사람들의 평가 관련 검사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주의 사람들이 매우 잘 알고 있을 수 있다. 이번 검사는 자신을 잘 아는 교우나 교역자들의 관찰을 토대로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3부를 준비하여 가까운 성도나 동역자, 자신을 잘 아는 교역자에게 나눠 준다.

관찰 대상자 이름 : ________________

관찰자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

3점 = 매우 그렇다. 2점 = 대체로 그렇다. 1점 = 거의 그렇지 않다. 0점 = 전혀 그렇지 않다.

A	확고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계획을 추진한다. 사람들을 조직하고 임무를 배당하고 행사를 기획한다. 어떤 모임이나 기관이 더욱 효율을 발하도록 돕는다. 혼돈 속에서 갈팡질팡 헤매는 모임이나 기관의 질서와 체계를 잡는다.	3	2	1	0`	
B	목재나 옷감이나 금속이나 페인트나 유리 등 재료를 갖고 창의적인 일을 한다. 다양한 도구들을 잘 다룬다. 실생활에 유용한 물건들을 잘 만든다. 물건을 디자인하고 직접 만든다. 손재주가 좋다.	3	2	1	0	
C	독창적으로 다양하게 의사 전달을 한다. 그림이나 연극이나 음악이나 사진 등 특별한 예술 기교를 개발하여 발휘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참신한 방법을 모색한다.	3	2	1	0`	
D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확신을 준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격려한다. 다른 이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킨다. 사면초가에 놓여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적극 지원한다.	3	2	1	0	
E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환경적 장애나 사람들의 반대에 굴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 전진한다.	3	2	1	0`	

F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기쁘게 돕는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주님의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물질을 바친다. 어려운 사람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거룩한 대의를 위해 금전 관리에 특별히 신경쓴다.	3	2	1	0	
G	다른 사람들의 일을 지원하기 위해 무대 뒤에서 일한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작고 궂은일을 찾아 자발적으로 행한다. 남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허드렛일이라도 일손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돕는다.	3	2	1	0`	
H	낯선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환대받는 느낌을 갖도록 돕는다. 손님들을 접대한다. 안전하고 따스한 둥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집을 개방한다. 낯선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3	2	1	0	
I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 확신한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3	2	1	0`	
J	모임이나 기관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인도한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잘 관리한다. 다른 사람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다.	3	2	1	0	
K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며 같이 아파한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인내하고 지원하면서 동행한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다.	3	2	1	0`	
L	교회를 개척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등 주님을 위한 새로운 일의 선봉에 선다. 다른 지방이나 나라에서 봉사한다. 낯선 문화와 환경에 잘 적응한다. 문화적 분별력과 식견이 뛰어나다.	3	2	1	0	
M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확신적으로 말한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거나 해로운 문화적 추세나 가르침이나 사건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한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전한다.	3	2	1	0`	
N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모색한다. 자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명료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한다.	3	2	1	0	
O	일단의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성실하게 지원하고 양육한다. 다른 사람들이 온전한 데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이끈다. 다른 사람들이 신자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견고하게 양육한다.	3	2	1	0`	

P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고 깨달아 전한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가르친다. 가르침을 받는 이들로 하여금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만든다.	3	2	1	0	
Q	진리와 오류, 선과 악을 분별한다. 사람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한다. 거짓과 속임수를 어렵지 않게 간파한다. 다른 사람들이 일상의 갖가지 상황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도록 돕는다.	3	2	1	0`	
R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주제들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탐구한다. 그리고 부탁을 받으면, 그렇게 얻은 지식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 자연적 관찰이나 수단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얻기도 한다.	3	2	1	0	
S	의견 충돌이 일어난 다른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간단하고도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복잡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충고를 한다. 사람들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생활에서 만난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3	2	1	0`	
T	기도를 통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사람들의 육신이나 정신이나 영의 질병을 치료한다.	3	2	1	0	
U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알지 못하는 낯선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3	2	1	0`	
V	이적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사실임을 입증한다. 자연을 초월하는 권세를 나타내보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이 그 이적의 근원이심을 주장한다.	3	2	1	0	

그 밖의 질문들

1. 3점을 매긴 항목들 가운데서 관찰 대상자의 성향과 행동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세 항목을 선정하여 1, 2, 3의 순위를 매기십시오. 그런 다음, 설문지의 해당 항목 우측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에 순위를 기입하십시오. 그리고 아래 마련된 칸에 1순위, 2순위, 3순위에 해당되는 알파벳 대문자를 기입하십시오.

상위 세 항목

1)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_

2. 당신이 은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평소 관찰 대상자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가 무엇인지 아래에 기입하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

3. 평소에 관찰 대상자에 대해 관찰한 것이나 깨달은 것 가운데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히 깨닫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에 기입하십시오.

평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는 당신의 의견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영적은사	관찰자1	관찰자2	관찰자3	상위 세 항목
A	다스림의 은사				
B	기술의 은사				
C	창의적 전달의 은사				
D	격려의 은사				
E	믿음의 은사				
F	구제의 은사				
G	돕는 은사				
H	후히 대접하는 은사				
I	중보기도의 은사				

J	지도력의 은사				
K	긍휼의 은사				
L	사도적 은사				
M	예언의 은사				
N	복음 전도의 은사				
O	목양의 은사				
P	가르침의 은사				
Q	영 분별의 은사				
R	지식의 은사				
S	지혜의 은사				
T	병 고침의 은사				
U	방언 통역의 은사				
V	이적의 은사				
W	방언의 은사				

관찰 대상자의 은사 발견 응답지

은사 종합 검진 결과

성명 : ____________________

검진일자 : ________________

	영적은사	체험평가	관찰평가	결과
A	다스림의 은사			
B	기술의 은사			
C	창의적 전달의 은사			
D	격려의 은사			
E	믿음의 은사			
F	구제의 은사			
G	돕는 은사			
H	후대 대접하는 은사			
I	중보기도의 은사			
J	지도력의 은사			
K	긍휼의 은사			
L	사도적 은사			
M	예언의 은사			
N	복음 전도의 은사			
O	목양의 은사			
P	가르침의 은사			
Q	영 분별의 은사			
R	지식의 은사			
S	지혜의 은사			
T	병 고침의 은사			
U	방언 통역의 은사			
V	이적의 은사			
W	방언의 은사			

7. 내러티브 성경공부 교안

Narrative Bible Study1

<table>
<tr><td>1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td></tr>
<tr><td>▌도입 : 영상으로 보기 / 다시 집을 떠난 탕자
다시 집을 떠났던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 나니아 연대기와 순전한 기독교의 저술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교수는 "나는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나는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를 새가족반 성경공부 5 주 동안 경험할 것을 기대한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느끼고, 믿는 시간이 될 것이다.</td></tr>
<tr><td>▌본문 말씀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td></tr>
<tr><td>▌그림으로 접근하기
• 질문 1.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길의 종류를 한 가지씩 말해 보세요?
Road : 어원은 말이 달리다는 뜻의 RIDE. 즉, 말이나 마차를 타는 큰 길이다.
Street : 어원은 지층, 계층을 뜻하는 STRATA 이며, 포장된 도로라는 뜻이다.
Avenue : 양쪽에 가로수가 나란하게 있는 길이다.
Lane : 큰 차도의 한차선, 빌리지의 중앙선이 없는 작은 길을 의미한다.
Place : 동그란 광장 같은 도로 명에 사용한다.
~Way : 일반적으로 막히지 않고 뻥 뚫린 도로를 의미한다.
빗길, 눈길, 자갈길, 외길, 산길, 앞길, 뒷길, 갓길, 비탈길, 골목길, 흙탕길, 언덕길, 둑길, 샛길, 오솔길, 갈림길, 논길, 외딴길, 뒤안길, 꼬부랑길, 곧은길, 지름길, 황천길, 비단길...
사실 앞에 나열한 상당수 길은 지적도에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생긴 도로들이다. 오늘날 이런 도로를 현황도로 혹은 관습도로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니는 길을 용도에 따라서 참 많은 길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천국도</td></tr>
</table>

마찬가지로 반드시 길을 필요로 한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 질문 1. 자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 년 전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 언덕으로 걸어간다면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 질문 2. 구레네 시몬대신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성경에서 “길” 이란 단어 앞에는 본래 정관사 The 가 붙어 있는데 이는 유일한 길, 그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길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당시에 아주 밝고 환한 큰 길을 말할 때 특별히 사용되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키는 것이 은혜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닦아놓으신 바로 그 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죄악의 수렁을 뛰어넘는 길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6:25 한평생 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걸었는데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판명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기도 하다.

▌가슴으로 이해하기

• 질문 1. 십자가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질문 2.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것인가? 혹시 다른 길이 있는가?

• 질문 3. 예수님은 자신을 왜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 가지는 연관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질문 4.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와 오늘날 액세서리 십자가는 어떻게 다른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언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행 4:12)

▪ 진리 –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정작 진리란 무엇인가? 물음에는

막막할 때가 많다.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예수그리스도는 이미 창세기 3 장 15 절(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에서 말씀하시는 '최초의 복음'이 있은 후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 장 8 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생명 -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 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 분을 믿을 이유가 없다.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죄를 가지고는 좋은 데 못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은 죄의 해결 방법이다. 모든 종교들은 죄를 가지고는 좋은 데 못 가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 값을 다 갚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죄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맞바꾸시는 신적교환이 이뤄진 것이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도덕'과 '생명'의 차이다.

▌영혼에 새기기

• 질문 1.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상상해 봅시다. 만약 내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 질문 2. 오늘 성경공부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느껴지는가?

누가복음 7 장 11~17 절에는 '나인'이라는 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나온다. 그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청년이 된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상여를 따라가는 과부의 심정이 얼마나 처절했겠는가? 울면서 상여를 따라가고 있는 과부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상여를 멈추게 하고 죽은 그 청년을 향해 명령하셨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명령을 받자 죽은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어머니에게 갔고, 생명이 돌아 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 삶에 옮겨 내기

• 질문 1. 만일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그 증거(근거)가 무엇인가?

• 질문 2. 오늘 성경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감동 받은 것은 무엇인가?

지구상에는 230 여개의 나라가 있다. 이들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정해 놓은 법에 따라 입국할 수 있다. 어떤 나라는 비자 없이도 들어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나라가 정한 법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만일 천국에 가는 비자가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는 얻기가 쉽다.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얻는 방법은 이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도 비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찍어 주시는 천국 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오늘의 결단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하고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평생토록 내가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도입 : 영상으로 보기 / 곰보 약장수의 약초 곰보 약장수의 약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곧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이라는 또 하나의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본문말씀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6)
▌그림으로 보기 • 질문 1, 일상에서 대화의 주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나, 관심을 끄는 사건일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출현에 가이샤라 빌립보 지방 사람들의 표정은 어떠했는지 머릿속에 상상을 그리며, 각자 표현해봅시다. • 질문 2,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신문 일면에 싣는다면 타이틀 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 질문 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질문하는 데 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경설명 –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이 누구를 믿는지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바른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신앙이다. 본문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샤라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가셨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늘어놓았다.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한마디씩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 순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오늘 말씀본문이다.

▌사건으로 겪어 내기

- 질문 1, 여러분이 만약 길 위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겠는가?
- 질문 2,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칭찬해 주셨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네 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결과라고 말씀한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 대단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은 내적, 외적고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고백해야 합니다.

▌가슴으로 이해하기

- 질문 1,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로 질문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 질문 2,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고백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 질문 3, 마 16:18 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것과 "반석"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3 가지 일

베드로가 '주'라 고백한 주는 바로 '예수님'인데,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뜻이다. 베드로는 더불어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같은 의미의 히브리말로서는 '메시아'가 있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별된 자 ‘ 또는 ’ 구원자 ‘라는 의미가 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며, 세움을 받은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바로 이 3 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영혼에 새기기

• 질문 1,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상상하면서 묵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공부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믿음의 내용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9)

▪ 십자가 죽음 –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면, 믿음의 내용도 분명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 죽음에서 부활 –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분명한 사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9)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둘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두 가지는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과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을 말한다. 다른 말로 복음이다.

▌삶에 옮겨 내기

• 질문 1, 내 삶속에서 타인이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내 입술을 통하여 이런 고백들이 몇 번이나 하는가?

• 질문 2,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신앙의 현주소” 는 어디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좌우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엡 2:8 말씀을 펼쳐보자.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어야 한다. 간혹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에베소서 2:8~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여기서
“그 은혜”란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믿음을 갖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자 해도 허사라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도 엄밀히 말하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교회로 나갈 마음을 넣어 주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구원이 우리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결단

자신의 언어로 나의 신앙고백을 만들어서 보세요.

- 베드로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 20:28)
- 백부장의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막 15:39)
- 니고데모: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요 3:2)

- 나의 고백:

3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도입 : 영상으로 보기 / 사랑 잇기

이 집사는 딸아이 학교에 청소하러가는 수요일 되면 오전부터 빵을 굽는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그녀가 피아노 치는 일보다 빵 굽는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17 년 전, 그녀는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인에 대한 인상은 안 좋았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 놓고 다니는 주부들,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냈지, 정작 레슨비 내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 그들이 전도를 하겠다며 하나님 사랑을 말할 때 그녀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어느 날 소현이라는 학생 집에 갔을 때, 첫인상부터 달랐다. 소현 엄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말씨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정부와 기사에게도 한가족처럼 잘 대해주는 모습은 그녀의 기독교인에 대한 편견을 흔들어 놓았다. 그녀가 첫아이 출산 때문에 한달 동안 레슨을 쉴 때 소현 엄마가 찾아왔다. 일하지도 않은 한달치 레슨비와 선물을 가지고...

당시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이 20 명이 넘었지만 그녀를 걱정해 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소현 엄마가 돌아간 자리에는 가죽 표지가 예쁜 성경책과 찬송가가 놓여 있었다. 그 후, 그녀는 소현 어머니가 소개해 준 다락방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 집사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딸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끼리 청소하는 수요일 오후는 그녀가 여러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좋은 시간, 그녀가 직접 만든 빵을 가지고 나눔으로 소현 엄마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친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다.

▌본문말씀 – (히 10:36–39)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림으로 보기

• 질문 1,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 질문 2,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과 힘든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들이 원형경기장의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 질문 3,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이 다릅니까?(히 10:36-39)

신앙생활이란 말은 새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중심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은 교회중심으로 하는 생활은 거룩한 신앙생활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생활들은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않다는 사고가 은연중에 깔려 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과 신앙의 괴리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건강한 성도로써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무엇보다 주일예배부터 새벽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비롯하여 매주 드리는 헌금과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성도로써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오해가 많다. 그런 이유로 교회 문을 나서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사건으로 겪어 내기

• 질문 1,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있을까요?(히 10:38)

• 질문 2,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것은 속히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인데, 그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의 느낌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히 10:37, 행 1:9-11)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 인내

인내란 무엇인가? 참는 것이다. 때론 이성보다 앞서는 것이 감정이기에 아무리 이성적으로 참아야지 하지만 막상 감정 앞에서 맥을 못 춘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 18:21–22 에서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일곱 번 정도는 용서할까요? 사실 베드로에게 일곱은 가장 크게 생각한 숫자이고, 인내의 한계를 정하는 숫자였다. 그러나 주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St Augustin 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은혜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참아 주셨으니 죄를 짓고 살아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예수 믿고 나올 사람 누가 있겠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조차도 "주님 때문에" 참아야 한다. 옆 사람에게 "주님 때문에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다.

▌가슴으로 이해하기

- 질문 1,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했던 것들은 돈(딤전 6:10), 교만(롬 11:20), 명예(요 5:44), 조롱과 핍박(히 10:32–33, 행 8:1)이었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 2, 신앙생활이 바닥을 칠 때, 뒤로 물러나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교회를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히 10:39)
- 질문 3, 히 10: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성도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의해야 할 것 –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

신앙생활은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라 42.195km 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 중에 아무리 오래 달려도 뒤로 달려가는 사람은 없다. 일전에 쥬만지 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본 적이 있다. 한 번 게임이 시작되면 그 속에서 동물들이 나오고, 홍수가 나고, 인간 사냥꾼이 총을 쏘며 죽이려고 해도 게임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중간에 멈출 수 없다. 주사위를 일단 던지고 나면 멈출 수 없는 쥬만지 게임처럼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린 뒤로 물러 설 수 없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빌 3:13–14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 말씀하고 있다. 우린 이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기에 잠시 넘어 질수도 있고, 걸어 갈수는 있지만 결코 뒤로 물러가는 것은 안 된다.

❚ 영혼에 새기기

• 질문 1, 히 10:39 말씀을 놓고 묵상해 봅시다. 묵상하는 동안 믿음의 경주자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지, 아니면 뒤로 잠시 물러나 있는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회상시킴으로써 초대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들은 목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태하거나 포기하지 않고(37 절), 인내(36 절)로써 꿋꿋하게 견디어내면 마지막에 상을 받는다고 신앙생활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인내가 영생의 목표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의인 은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께 신실성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해석된다.

❚ 삶에 옮겨 내기

• 질문 1,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하나님 중심의 삶(롬 14:8), 말씀(마 4:4), 기도(골 4:2)
교제(행 2:46-47), 예배(요 4:24), 전도(막 16:15) 등

• 질문 2, 자신의 신앙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균형 잡힌 생활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인

현대인들에게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는 도박이나 게임과 중독성이 강한 것과 운동이나 낚시 등 취미활동도 도를 넘으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면 삶이 승리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삶도 실패하는 것을 히 10:36-39 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다.

1) 돈(딤전 6:10)

나무는 뿌리가 썩으면 줄기도 썩는다. 그런데 뿌리가 살아 있으면 줄기도 산다.
뿌리가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싹이 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사도바울은 돈도 생명을 가진 뿌리로 비유하고 있다. 돈은 인간생활에서 더없이
소중한 도구이지만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정당히 거둔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정죄한 적이 없다. 다만 돈에 대한
청지기로써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다. 그러나 돈 자체만을 사랑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2) 교만(롬 11: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취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때론 하나님을 거역한다. 내가 선을 베풀고, 법 없이 살면 축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른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2)

3) 명예(요 5: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의 영광, 즉 명예에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어릴 때 땅 따먹기 놀이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 땅 따먹기 할 때는 땅을 조금이라도 더 따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켠다. 작은 손으로 조금이라도 원 더 크게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저녁이 되어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떠난다. 이 세상에서 땅따먹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야! 이제 와라" 하시면 다 끝나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잠 16:31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 삶에 옮겨 내기

• 질문 1,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하나님 중심의 삶(롬 14:8), 말씀(마 4:4), 기도(골 4:2)
교제(행 2:46–47), 예배(요 4:24), 전도(막 16:15) 등

• 질문 2, 자신의 신앙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균형 잡힌 생활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 결단 – 주님과의 만날 약속

하루 한 번 이상씩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신앙생활의 승리로 생활로 이어질 것이다.

4 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도입 : 영상으로 보기 / 낡은 성경책 한권

책 한권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그 책에서 새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책 한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경우는 없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존 아저씨처럼 남에게 전해주기 위해, 지금도 이 세상에는 존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뿐 아니라 자기 가족의 삶까지 함께 희생하면서 낮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있다. 왜? 그들이 성경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 새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경은 아주 놀라운 책이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자료는 많다. 사람들은 성경이 지닌 초자연적 능력을 과소평가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데서 생기는 소치이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 성경을 모르는 만큼 성경은 작아 보일 것이다. 1,600 여 년 동안 40 여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기록하셨다. 지난 2,400 여 년 동안 기적적으로 보존해 주셨다. 얼마나 많은 황제와 폭군들이 성경을 영원히 매장시키려 했는가, 성경을 장사지내는 영구차의 조종소리가 수없이 울렸지만 성경은 무덤을 다시 열고 살아났다.

▎본문말씀 – (딤후 3:15–17)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림으로 보기

- 질문 1,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 질문 2, 성경하면 떠오르는 단어와 이미지들을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나누어 봅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 3, 책은 저자의 의도가 있기 마련인데, 성경은 1600 년 동안 40 여명의 저자에 의해서 동일한 의도로 기록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느낍니까?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은 영어로 The Bible 이라고 한다. The(그) 라는 정관사는 유일한 것 앞에 붙는 것으로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The Bible 이라고 한다. 성경책만큼 많이 팔린 책은 이제까지 없다.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소위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의 질문 내용은 "당신이 만약 3 년 동안 감옥에 갈 일이 있다면 가지고 들어가서 일고 싶은 책이 무엇입니까? 세 권만 소개하십시오." 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가 가장 먼저 성경을 꼽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영과 혼과 육체(혹은 영혼과 육체)로 창조되었다. 육체의 배고픔을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성경말씀을 먹어야 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암 8:11) 주님은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신다. 마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런 이유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사건으로 겪어 내기

• 질문 1,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의 저자로 선택되었다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 질문 2,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

•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 3:16-17)

❚ 가슴으로 이해하기

• 질문 1,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얻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딤후 3:15)

• 질문 2,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무슨 뜻일까요?(딤후 3:16)

• 질문 3,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고, 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 '감동(感動)'이라는 말은 원어(原語)로 '페로메노이'이다.

이 헬라어 낱말은 사도행전 27:15, 17 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바람에 쫓겨 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때 '쫓겨 가다'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 낱말이 바로 '페로메노이'이다.

그러므로 '감동으로 쓰여 졌다'는 말의 뜻은 바람에 의해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가는 배처럼, 성경이 그 기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의미이다. '의지와 상관없이 기록되었다'고 할 때, 그대로 모든 것이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각각의 기자들에 따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방법을 달리하셨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 1:1) 직접 불러주어 받아쓰게도 하셨고,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

말씀하기도 하셨다. 또한, 기자들의 교육수준이나 환경, 각각의 재능이나 문체가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든 성경은 그 기록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기자들의 자의적인 생각이나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혼에 새기기

• 질문 1, 신약성경 13 권을 기록한 사도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딤후 3:16 말씀을 놓고 묵상해 봅시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슴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불후의 명작 벤 허(Ben Hur)를 남긴 작가 윌리스는 본래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불신자였고 기독교가 필요 없음을 강조하고 공박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허구성을 철저하게 밝혀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펴내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성경에서 잘못되고 거짓된 부분을 발견하려고 성경구석구석을 다 읽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말씀 속에 내재해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으며, 결국에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험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에 이르러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감격한 윌리스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 후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했던 붓을 꺾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입각하여 만인의 심금을 울리며,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 불후의 명작 "벤허"라는 작품을 썼다.

▎삶에 옮겨 내기

• 질문 1, 기독교인의 지침서는 성경말씀이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안내할 뿐 아니라 일종의 제품설명서로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성경말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질문 2, 계 1:3 을 읽으시고 성경에 대한 신자의 태도로 어느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봅시다.

성경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 1:3)

•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읽는 자체가 복이다. 지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사모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 1:1-2)

•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 1:1-2)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같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많이 듣지만 행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첫째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과 셋째는 믿음이 부족해서이다.

❙오늘의 결단 - 성경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것

벧전 2:2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가정이나 직장 등 삶의 자리에서 매일 정해진 큐티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어려우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공부와 소그룹 목장모임에 참여하면 된다.

5과 교회와 그 중요성

▌도입 : 영상으로 보기 / 일곱 소리 마을

이 세상에 노래만큼 아름다운 소리는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7 소리가 하나의 노래가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교회도 이와 같다. 7 소리에 오선지가 그려진 악보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듯,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며 요람이다. 엄마 품을 떠난 갓난아이가 살아남을 수도 없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 지상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이기 때문이다. 각지체인 성도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인 성도들 간의 교제와 협력이 이루어진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며, 생활 영역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본문말씀 – (에베소서 2:20-22)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림으로 보기

- 질문 1,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와 실제로 교회로 들어와서 느낀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 질문 2, 교회란 교인들이 모이는 건물을 말하는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인가?
- 질문 3, 사람의 몸으로 예를 들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표현해 봅시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이며 요람이다. 마치 엄마 품을 떠난 아기가 살아 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 한마디로 교회는 가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공동체이다.

또한 교회는 학교와 같다. 양육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어린아이가 가족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하듯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양육을 받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교회는 병원과 같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위로 받고 치유 받으며 회복되는 곳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교회가 불완전한 것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건으로 겪어 내기

- 질문 1,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당시 누구 위에 교회를 세우셨나?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마 16:18, 엡 2:20, 행 20:28)
- 질문 2,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비교해서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고백 위에 세우셨다.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고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가톨릭과 기독교가 나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다.

'베드로'는 헬라어의 '반석'이라는 뜻이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고 해석한다.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하다.

헬라어는 격변화가 분명히 표현이 되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성명사이다. 그러나 '이 반석 위에' 에서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마태복음 16: 16 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고백' 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구약 성경말씀의 터 위에 세우셨다.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지칭하고, '사도들의 터'는 '신약성경'을 '선지자들의 터'는 선지자들이 남겨준 '구약성경'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구약성경말씀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이다. 터가 다르면 교회가 아니다.

•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돌보신다.

행 20: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교역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은 '교역자들' 을 말한다. 성령께서 '그들' 즉 '성도들' 가운데서 교육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돌보라고 맡기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가슴으로 이해하기

• 질문 1,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고전 1:2)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 질문 2, 교회를 건물의 구조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엡 2:20-22)

• 질문 3, 교회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하는가?(눅 24:33-48)

교회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전 1:2)

• 지역교회 –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 즉 유형교회라고도 한다. 또한 지역교회는 '모이는 교회' 와 '흩어지는 교회' 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모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이다.

둘째, 흩어지는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시 개체로 돌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이웃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로써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의미이다.

• 우주적인 교회 – 우주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로 '무형교회' 또는 '불가견 교회'라고 한다. 불가견 교회는 시대나 국경이나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 편에 말씀하시는 완전한 교회이다. 여기에는 가짜가 있을 수 없다.

❚ 영혼에 새기기

• 질문 1, 엡 2: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로써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성전의 한 부분으로써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가슴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 봅시다.

“너희(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신약성경)과 선지자들(구약성경)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잇돌 즉 머릿돌이 되시고, 그의 안에서 우리는 건물의 뼈대와 기둥이 되어서 건물을 연결하는 주의 성전을 이루고 있다.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위치가 있기 마련이다.

❚ 삶에 옮겨 내기

• 질문 1,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 질문 2, 교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

오늘 공부를 통하여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골 1: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고전 12: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첫째, 머리는 생명 자체를 의미한다.
둘째, 머리는 명령을 하는 곳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 인격의 대표이시다.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붙이는 것처럼 머리는 인격을 대표한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고전 12: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으니”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 도와야 한다.
먼저 믿은 사람이 후에 믿은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서로 섬기고 도와 줄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빛이 난다. 인간관계의 원칙을 세우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진다.
"남이 나에게 못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남이 나에게 잘 해주는 것은 기적이다"

❚ 오늘의 결단 -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역할 충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써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 증거, 교제, 사랑의 봉사, 교육과 훈련에 성실이 임할 것을 결단한다.
무엇보다 교회가 바로 나의 삶의 현장이며, 생활 영역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잘 흩어지기 위해서 잘 모이는 그런 교회를 지향한다.

8. 인카운터 세미나 교안

Encounter Seminar1

<table>
<tr><th colspan="2">1강, 야곱 -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창32:22-30)</th></tr>
<tr><td>찬양</td><td>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내가 주인 삼은, 전심으로 주 찬양</td></tr>
<tr><td>기도</td><td>찬양과 함께 자연스럽게 합심기도 후 인도자 마무리기도</td></tr>
<tr><td>하이터치
도입1
그림</td><td>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 한 점이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경매되었는데,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293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팔렸다. 그 작품은 ‘황소머리’ 라는 조형물이다. 1943년 어느 날 길을 가던 피카소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고, 안장과 핸들을 떼어낸 후, 그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는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하였다. 그것이 오늘날 고가의 작품이 된 것이다. 버려졌던 자전거가 피카소를 만난 후에는 값비싼 걸작품이 되었다. 사실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걸작품이기 때문이다.</td></tr>
<tr><td>하이터치
도입2
시</td><td>기억은 끈끈이주걱

한명희
기억은 단단하다 손발을 옹송 거린
호두껍질처럼 쉽게 무르지 않는다.
끊어내려고 해도 이빨이 들어가지 않았다.
기억은 싱싱하다 물을 뿌리면 되살아나는 배춧잎처럼 기억은 싱싱하다.
뒤적거려도, 뒤적거려도 숨이 죽지 않았다.
기억은 튼튼하다 튼튼한 신발을 신고
뒤따라왔다 잠자리에서도 신발을 벗지 않았다.
기억은 끈끈이주걱
머릿속에 벌레가 바글거려도 끈끈한 주걱을 놓치지 않는 기억
그것은 끈끈이주걱, 끈끈이주걱!
야곱의 삶에 끈끈이주걱처럼 늘 따라 다닌, 속이고 속는 아픈 기억들은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므로 끝이 나고, 브니엘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td></tr>
</table>

1강. 야곱 -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 본문: 창32:2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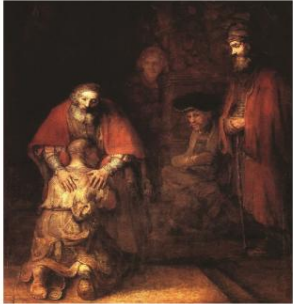
❦ 목표: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질적인 죄를 깨닫고,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게 한다.

❦ 서론

❶ 자기의 힘으로만 살다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난을 당할 때가 온다.

❷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은 우리의 성품에 깊고 근본적 변화를 가져다준다.

❸ 야곱은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1. 야곱의 삶
   1) 선택받은 야곱:
   2) 벧엘의 야곱:
   3) 밧단 아람의 야곱:
   4) 브니엘의 야곱:
2.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 : 네 이름이 무엇이냐?

3. 만남의 결과 : 가면을 벗은 자유의 삶
   1) 성품의 근본적 변화(25절)
   2) 운명의 변화(28절)
   3) 잊을 수 없는 체험
   4) 참 권세의 사람(창47:7-10)

❦ 조별 나눔 : 자신을 돌아보기 + 물러서지 않는 태도

❶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❷ 조별 만남 후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야곱의 기도"를 드린다.

<table>
<tr><th colspan="2">2강, 탕자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눅15:11-24)</th></tr>
<tr><td>찬양</td><td>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기도해</td></tr>
<tr><td>기도</td><td>찬양과 함께 자연스럽게 합심기도 후 인도자 마무리기도</td></tr>
<tr><td>하이터치
도입1
그림</td><td>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1667년경 그가 죽기 2년 전에 그린 미완성의 작품이다. 눅15장에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금가락지, 새 신발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즐기는 장면을 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거지같이 해진 옷에 죄수처럼 머리를 깎고, 다 떨어진 신을 한쪽만 신은 채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아들의 어깨에 늙은 아버지가 두 손을 부드럽게 얹고 용서하는 극적인 순간을 묘사했다.
렘브란트의 심리적 통찰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포옹과 용서의 감동적인 순간을 택했다.</td></tr>
<tr><td>하이터치
도입2
시</td><td>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탕자는 세풍에 흔들리며, 세파에 젖으며 인생의 바닥에서 아버지를 찾았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바닥을 칠 때, 돌아갈 영혼의 안식처가 있느냐가 문제이다.</td></tr>
</table>

Encounter

2강. 탕자 -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 **본문: 눅15:11-24**

❦ **목표: 참가자들에게 죄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이끈다.**

❦ 서론

❶ 자신의 삶에 실패가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회복의 길은 있는가? 무엇인가?

❷ 대개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상은 현재의 하나님에 대한 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❸ 여러분의 아버지 상은 어떠하였는가?

❹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관한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가장 감동적이고, 완벽한 장면을 연출한다.

1. 잘못된 결정과 삶의 방황

2.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3. 삶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당신의 삶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라)

1) 아버지 = 기다리시는 분

2) 아버지 = 용서하시는 분

3) 아버지 =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❶ 자아상 회복 :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22절)

❷ 권세 회복 :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22절)

❸ 신분과 사명 회복 : 그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다.(22절)

❹ 기쁨 회복 : 그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다.(23절)

결론 : "Stop doing wrong"

❶ 자신이 잘못 행한 삶에 대한 깊은 고통을 수반

❷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다는 것을 깨달음

❸ 참된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

❦ **조별 나눔(자신을 돌아보기 + 물러서지 않는 태도)**

❶ 당신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 대한 상은 어떠한가?

❷ 이것이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table>
<tr><th colspan="2">3강, 향유 부은 여인 - 거절감정으로부터 치유(눅7:36-50)</th></tr>
<tr><td>찬양</td><td>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td></tr>
<tr><td>기도</td><td>찬양과 함께 자연스럽게 합심기도 후 인도자 마무리기도</td></tr>
<tr><td>하이터치
도입1
그림</td><td>푸에르토리코의 국립미술관에 걸린 루벤스의 "노인과 여인" 명화이다. 이 그림을 처음 본 순간 당신은 어떤 느낌을 가졌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가슴을 드러낸 여자와 노인의 모습을 보고 단순히 에로틱하다거나 불륜을 떠올리지는 않았는가?
수의를 입은 노인은 젊은 여인의 아버지다. 커다란 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 놓고 있는 여인은 음식물 투입 금지로 인해 감옥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해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무거운 몸으로 감옥을 찾았다.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였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의 눈에 핏발이 섰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 부끄러운가. 여인은 아버지를 위해 가슴을 풀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에 물렸다. 동일한 그림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저질' 이라고 비하도 하고, 다른 이는 '성화'라고 격찬도 한다. 노인과 여인에 깃든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 속에 담긴 본질을 알고 나면 눈물을 글썽이며 명화를 감상한다.</td></tr>
<tr><td>하이터치
도입2
시</td><td>소금인형

류시하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바다를 알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소금인형은 자신의 몸이 녹는 것을 보고 비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처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은 주님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리고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td></tr>
</table>

3강. 향유 부은 여인 - 거절감정으로부터 치유

❦ **본문: 눅7:36-50, 잠15:13, 히4:14-16**

❦ **목표: 참가자들로 하여금 삶의 여정에서 생긴 거절감정의 원인을 스스로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와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유케 한다.**

❦ 서론

❶ 거절당함이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의 하나임은 틀림없다.

❷ 거절감정은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여 약화시키다가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파괴한다.

❸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다.

❹ 우리의 삶에서 언제 거절감정을 경험했는지를 발견하고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

1. 거절감정이 생기는 영역들(뿌리)

1)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

2) 출생시 :

3)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사건들 :

❶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돌보지 않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

❷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 : 대개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야단을 칠 때

❸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잠19:18)

❹ 훈계와 사랑 사이에 균형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4:6)

❺ 성적 남용으로 인해 :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눅7:37)

❻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과 말들 : 타인과 비교, 인격적인 모욕

4) 성장 후, 어른이 되어서 받은 충격적 사건들

❶ 결혼실패와 이혼 :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 경우

❷ 남편 혹은 아내의 때 아닌 죽음

❸ 성폭력과 배신

2. 거절감정의 결과 : 거절감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결과로 인해 고통을 당함

1) 두려움

2) 부끄러움

3) 실패감정

4) 외로움과 슬픔

3. 거절감정을 받을 때 일어나는 반동적 행동들

1) 공격적 성격 형성 :

2) 낮은 자존감의 형성 :

3) 거절의 두려움으로 인한 부정적 성격 형성 :

4. 치유의 시작 :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의 선포를 들어보라 // 사54:4-8)

1)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았다.(엡1:4)

2) 우리는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시22:9, 렘1:5)

3) 어디서도 도움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시34:4)

4) 다른 사람의 눈에 당신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가?(고전1:27-29)

5.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절감정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셨다.

1) 대속자(사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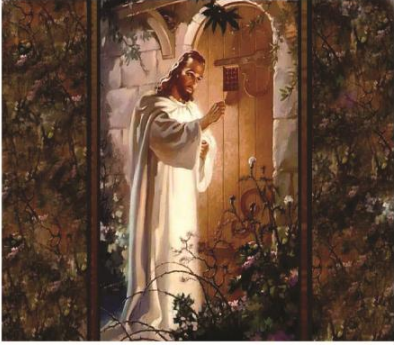
2) 대제사장(히4:14-16)

3) 화목자(고후5:19)

4) 용납자(엡1:6)

6. 성령의 음성은 치유의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2:13)

❦ 당신이 해야 할 일

❶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라.(거절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

❷ 잠잠히 과거로 돌아가서, 상처의 근원을 알게 해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라.

❸ 자신에게 상처를 준 원인이 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❹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 조별 나눔(자신을 돌아보기 + 물러서지 않는 태도)

❶ 자신의 삶에 가장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나눠보자.

❷ 자신이 겪었던 느낌과, 그로 인해 현재까지 당하는 고통을 나눠보자.

<table>
<tr><th colspan="2">4강, 다윗 - 자아상 회복(삼하12:7-14, 시137:13-16)</th></tr>
<tr><td>찬양</td><td>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예수 사랑하심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td></tr>
<tr><td>기도</td><td>찬양과 함께 자연스럽게 합심기도 후 인도자 마무리기도</td></tr>
<tr><td>하이터치
도입1
그림</td><td>윌리엄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으로 영국 런던 성 바오로 성공회 대성당에 있다. 작가는 이 등불 외에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상징들을 도입하고 있다. 등불을 드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른손으로 닫혀 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문은 담쟁이와 잡초가 우거진 채 뒤엉켜 있어 아직 한 번도 열어 본적이 없는 그런 문으로 묘사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폐쇄된 삶의 태도와 완고한 마음들을 상징하고, 더 높은 복음적인 삶을 위에 시도해야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 탈출에의 열정을 끈끈한 욕망의 세계에 묶어 두는 게으름과 방종을 상징한다.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이 문은 손잡이가 없는데, 작가는 왜 문에 있어야 할 손잡이가 없는지에 대해 심원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 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갈망하고, 인간이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해야 할 결단의 상징임을 표현하고 있다.</td></tr>
<tr><td>하이터치
도입2
시</td><td>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슬픈 얘기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아니 사실은 삶과 죽음이 늘 가까이 있지만 느끼지 못한다. 마치 잡초가 무성한 정원을 지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의 자아상과 정체성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이다.</td></tr>
</table>

4강. 다윗 - 자아상 회복

❦ **본문: 삼하12:7-14, 시137:13-16**

❦ **목표: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대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 창조된 존재로서 자신의 사명을 알게 한다.**

❦ 서론

❶ 비극적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

❷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❸ 나는 누구인가?

1. 죄의 원인과 결과 : 삼하11-12장

1) 죄의 원인:

2) 죄의 결과:

2. 회개와 삶의 회복

1) 다윗의 회개

2) 다윗의 회복

3. 당신의 자아상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139:14)

1)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2) 우리는 서로 다르다.

3) 나의 자아상

4. 당신의 사명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139:16)

1) 하나님의 창조계획 = 당신의 인생 사명

2) 당신의 사명을 파괴하는 요소들

❶ 비교의식

❷ 거절감정

❸ 잘못된 관점(세상적인 관점)

3) 하나님 안에서 자아상을 회복하라.

4) 하나님은 당신을 걸작 품으로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다.

❦ 조별 나눔 : **자존감과 사명의 회복(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

❶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새로운 자아상과 사명에 대해서 나눠보라.

❷ 자아상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table>
<tr><th colspan="2">5강, 아브라함 – 성공으로 이끄는 비전(창1:27-28, 갈3:13-14)</th></tr>
<tr><td>찬양</td><td>나 무엇과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의 성령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td></tr>
<tr><td>기도</td><td>찬양과 함께 자연스럽게 합심기도 후 인도자 마무리기도</td></tr>
<tr><td>하이터치
도입1
그림</td><td>"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 이라는 렘브란트의 작품이다. 이 그림 속에서 보여 지는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옷이 벗기고, 손을 뒤로 묶인 채, 커다란 손으로 입과 얼굴을 가리고,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내리치는 순간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 칼이 이삭을 향해 내리치는 순간 천사의 손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는 장면을 연출한다. 화가 렘브란트는 이 부분을 유화로 그렸는데, 거의 반나로 벗겨진 이삭을 향해 결연한 의지로 칼을 잡고 목을 향해 내려치는 아브라함의 칼 든 손을 하나님의 천사가 황급히 잡아 말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아브라함의 의지가 하도 결연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그 칼을 든 손을 쳐서 칼이 허공에 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인간의 눈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시험이 잔인하게 보여 진다.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서 창세기 편집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명료하게 적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쳐야 한다는 점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적한 것이다.</td></tr>
<tr><td>하이터치
도입2
시</td><td>가을이 오면

김용석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김용석 시인의 '가을이 오면' 이란 시입니다.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들을 고스란히 내어주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꽃의 마음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족히 비교될 수 있을까요?</td></tr>
</table>

5강. 아브라함 - 성공으로 이끄는 비전

❦ **본문: 창1:27-28, 갈3:13-14**

❦ **목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비전을 갖는다.**

❶ 성도에게 약속된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을 확신케 한다.

❷ 뉴욕새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며 나간다.

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은 지향한다.

❦ 목표

❶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은 인간의 축복이다.(창1:28)

❷ 하나님은 비전과 꿈의 하나님이시다.(행2:17-18)

❸ 성경적 비전은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열방 회복의 비전이다.

1. 비전의 하나님 : 아브라함 안에 심으신 열방을 향한 비전

1)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 열국을 향한 비전의 시작

❶창12:1-3

❷창13:14-18

❸창15:5-7

❹창17:1-8

2) 순종으로 성취되는 아브라함의 비전

❶ 떠나라 - 이전 세상적 삶을, 죄악의 삶을, 불순종의 삶을 떠나라!

❷ 가라 -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진리의 삶, 비전의 삶을 향하여 가라!

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비전(갈3:13-14)

❶ 비전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창1:27-28)

❷ 비전을 상실한 인간(창3:6, 창3:16-17)

❸ 비전의 새로운 시작(창12:1-3)

❹ 비전의 회복(갈3:13-14)

4) 교회의 비전과 사명

❶ 교회는 모든 민족들(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마28:18-20)

❷ 교회의 사명 : 성도들의 사명(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열방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로 만드는 것)

❸ 뉴욕새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2. 전략의 하나님 :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1) 구약 이스라엘

❶ 아브라함-이삭-야곱으로 이어지는 3세대를 통한 비전의 성취 : 12아들

❷ 이스라엘의 12지파 : 정복과 왕국의 통치 질서

2) 예수 그리스도

❶ 12제자의 선택 :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자, 맛디아를 뽑아서 12제자의 숫자의 가입(행1:26)

❷ 12제자들에게 열방을 향한 비전을 명하신 예수님(마28:16-20)

3. 성공으로 이끄는 비전의 필수조건 = 성령 충만

1)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❶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3:3-7)

❷ 우리 안에 동거하여(요14:16-18)

❸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롬8:16, 엡1:13-14, 고후1:21-22)

❹ 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14:16, 요16:12-13)

❺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여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16:23-24)

2) 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❶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요14:12, 행10:38)
❷ 증인의 능력을 주시려고(행1:7-8, 요15:26-27)
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려고(행2:17-18)
❹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빌2:13-14)
❺ 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갈5:16-26)

3) 성령 충만과 임재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현상

❶ 성격이 변화 한다 :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갈5:22-26)
❷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강하여 진다.(행2:5-13, 행3-6장)
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행5:42)

❦ **조별 나눔**

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무엇인지 나눠보자.**

❷ **마음에 품고 있는 새신자나 영혼의 vip,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